

Vol.83 2022. 11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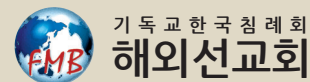
특집 : 선교사 멤버 케어

FMB, SRDC, WMTC 선교저널

FMB Missio Dei

Foreign Mission Board of the Korea Baptist Convention

Missio Dei
Vol.83 2022. 11



• 발행인 | 주민호 • 발행처 | 침례교해외선교회(FMB) • 발행일 2022년 11월 9일 • 홈페이지 www.fmb.or.kr
• 주 소 | 07238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국회대로 76번길 10, 기독교한국침례회 총회빌딩 12층
• 연락처 | Tel. 02-2619-2202-4 Fax. 02-2619-8797 E-mail. fmbkorea@fmb.or.kr



- + Missio Dei는 라틴어로 '하나님의 선교'입니다.
- + Missio Dei는 FMB와 FMB 산하기관인 SRDC, WMTC가 공동으로 발간하는 통합 선교 저널입니다
- + 침례교해외선교회(Foreign Mission Board of the Korea Baptist Convention, FMB)는 주님의 명령을 따라 우리 당대에 주님이 다시오시기를 소망하는 마음으로 미전도 종족에게 찾아가 복음을 전하고, 성경적 교회를 세움으로써, 그들로 하여금 그 지역을 복음화하고 선교적 사역을 감당하게하는 일에 힘쓰고 있습니다.

Contents



- 제목 :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 Photographer : 김바울 선교사(인도)

Missio Dei 표지를 장식할 생생한 선교 현장 사진을 보내주세요.(인물, 풍경, 사역 등)


• 파일명을 '이름-사진제목'으로 변환하여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FMB Missio Dei

머리글	03
FMB 선교포럼	04
FMB 지부장 연례회의와 리더십 과제	18
제10회 아시아태평양침례교대회	23
한국인선교사를 위한 적절한 연장훈련 제안	30
한국 선교사 자녀(MK) 교육 케어	50
선교사 이야기	70
MUT-Professional 훈련 소감문	76
MUT-Professional 사진으로 보는 훈련	80
MUT-Senior 훈련 소감문	82
MUT-Senior 사진으로 보는 훈련	90
기관별 사역 일정(FMB, SRDC, WMTC)	92
in2mission 안내	94


침례교해외선교회, 선교전략연구개발원, 세계선교훈련원은 지역교회와 성도들의 후원으로 운영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귀한 물질을 서로 나눔으로, 하나님 나라 확장에 함께 기여할 수 있습니다.
기대에 어긋나지 않도록 진실되고 성실하게 최선을 다하여
거룩한 영향력을 끼치도록 노력할 것을 약속드리겠습니다.



선교, 행복한 동행!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받으리라
그러나 그들이 믿지 아니하는 이를 어찌 부르리요 듣지도 못한 이를 어찌 믿으리요
전파하는 자가 없이 어찌 들으리요 보내심을 받지 아니하였으면 어찌 전파하리요
기록된 바 아름답도다 좋은 소식을 전하는 자들의 발이여 함과 같으니라”
(롬10장 13-15절)



선교는 주님께서 주신 사명입니다. 모든 나라와 민족이 주께로 돌아오는 일에 참여하는 것은 모든 그리스도인의 사명입니다. 어느 곳, 어느 자리에 있던지 우리는 그 자리에서 묵묵하게 하나님께서 주신 이 사명을 겸손하게 수종 들어야합니다. 선교지에 나가서 복음을 전하던지, 이곳에서 보내는 선교사로서 각자에게 주신 시간, 재능, 물질, 기도로 동역하는 것! 이것이 선교입니다. 선교는 혼자 힘만으로 할 수 없습니다. 보내는 자가 없이는 가는 자도 없습니다.

지금 바로, 행복한 선교의 동역자가 되어 주십시오.

[FMB, SRDC, WMTC는 재정이 독립되어 운영되고 있습니다]

📍 행복한 동행 - 후원의 종류

- 재정후원 : 각 기관들의 사역을 위한 일반 후원과 선교사들을 위한 특별 헌금
- 중보기도 : 분기별로 소식지를 활용하여 기관들과 선교사들을 기도로 지원
- 재능기부 : 기타 행정 지원 및 MK 교육, 돌봄지원

📍 행복한 동행 - 재정후원방법

- 각 단체별 후원 계좌를 통해 직접 일시 후원, 정기후원을 하실 수 있습니다.
- 침례교해외선교회 : 256-890033-76504 (하나은행, 기독교한국침례회 해외선교회)
- 선교전략연구개발원 : 990-007953-940 (하나은행, 기독교한(선교전략))
- 세계선교훈련원 : 461301-04-598321 (국민은행, 세계선교훈련원)

함께하는 선교, 어떻게?

주민호 선교사 (FMB 회장)

- 최근에 “함께하는 선교”라는 말을 많이 듣게 된다. 침례교해외선교회는 “침례교회는 열방으로, 열방은 주께로!”를 기치로 내걸고 34년을 달려왔다. 함께함이 더욱 요청되는 시즌임이 분명하다.
- 2022년 9월 초에 제10차 APBF 침례교인대회가 한국에서 열렸다. 그 대회의 한 부분이었던 “APBF 미션 컨선테이션”에서는 “Mission Partners”를 결성하는 결정을 하였다. 아시아 태평양 지역 국가의 침례교 선교책임자들이 한국교회를 향하여 이구동성으로 “현지 교회와, 그리고 현지총회와 함께 해주세요!”라고 외친 것이다.
- 아시아태평양 침례교인대회 다음 주간에 3박4일 열린 지부장 회의에서는 또 다른 차원의 “함께하는 선교”에 대한 논의들이 있었다. 한국침례교회에 의해 파송된 현장 선교사들이 보여준 관심도 “함께 해주세요!”였다. 자신들을 열방으로 보낸 한국침례교회를 향하여, 그리고 FMB 본부와 현장 사역자 서로를 향하여 외치는 우리 현장 선교사들의 소리였다.
- 10월 17-18일에 열린 제4회 FMB 선교포럼은 “함께하는 선교, 어떻게?”가 주제였다. 침례교회들 가운데 두 교회의 사례와 타교단교회 사례를 통하여 큰 교회만 감당하는 선교가 아니라 중간 크기 교회, 작은 교회, 심지어 개척교회도 선교 동참이 가능함을 제시하였다. 이미 선교를 하고 있는 침례교회들이 다른 교회들에게 외치는 소리는 “선교, 함께 하자!”였다.
- 선교하는 교회가 되느냐 되지 못하느냐를 결정짓는 가장 핵심적인 요인은 결국 목회자이다. 목회자의 믿음, 목회자의 관계, 목회자의 결단이 가장 중요하다. 이제 정직하게 응답해야 할 시간이다. 함께하는 선교, 우리 교회는 그리고 나는 어떻게 할 것인가? 동참할 것인가, 아니면 계속하여 미룰 것인가?



“침례교회는 열방으로 열방은 주께로!”
함께 하는 FMB



제4회 FMB 선교포럼 - 함께 하는 선교



침례교해외선교회는 1987년 침례교 77차 총회의 결정으로 출범된 이후 이사회가 구성되었고 1988년에는 유병기 목사가 초대회장으로 선임되면서 그 업무가 시작되었다. 1989년에 첫 선교사 파송으로 시작된 이후 2022년 10월 현재 730명의 선교사가 61개국에서 사역하고 있으며 이들을 위하여 156개의 파송교회와 734개의 재정 후원교회가 기도와 재정으로 세계선교에 참여하고 있다. 침례교해외선교회(이하 FMB)는 3,500개의 침례교회 가운데 아직도 선교에 동참하지 못하는 2,760여 교회와 목회자들에게도 함께하는 선교의 축복이 나누어지길 바라는 마음으로 제 4회 FMB선교포럼을 개최하였다. 10월 17일부터 18일까지 1박 2일의 일정으로 대전에서 개최된 이번 선교포럼은 FMB와 "함께하는 선교를 어떻게 할 수 있는지"를 교회들의 사례와 경험을 통해 듣고, 나누어진 그룹 별로 토론하는 가운데 각 교회의 상황에 적용할 수 있는 길과 방법을 찾아 나아가는 시간이었



다. FMB의 김종식 이사장은 환영사를 통해 “선교에 순종하는 교회들에게 손을 내밀어 잡아주고, 선교하려는 교회의 안내자가 되며, 선교의 방법을 찾는 교회에게는 방향을 제시하는 선교 포럼이 될 것입니다. 우리들이 힘을 모으면 침례교회가 파송한 730여 명의 선교사들이 주님의 지상명령을 잘 완수할 수 있도록 지원할 수 있습니다. 모든 교회가 땅 끝까지 복음을 전하고 모든 민족을 제자 삼으라는 주님의 지상명령을 수행하도록 돕게 되는 것입니다.” 라는 말로 이번 선교포럼에 대한 기대감을 표현하였다.

주민호 회장의 사회로 진행된 개회예배에는 FMB 이사인 손석원 목사의 기도로 시작되었다. 침례교 총회장인 김인환 목사는 ‘부흥은 연결과 결합의 열매입니다’라는 제목으로 개회설교를 한 후 2022년 새로 취임한 신임 이사진에 대한 취임패와 30년 근속 선교사들에 대한 근속패 전달이 있었다. 그리고 개회예배 때 참석자들이 모두 함께 부른 ‘하나 되게 하소서’라는 찬양은 FMB의 선교적 방향성을 담기에 충분한 모습이었다.

〈찬양: 하나 되게 하소서〉

하나님께서서는 우리의 만남을 계획해 놓으셨네
우린 하나 되어 어디든 가리라
주위해서라면 무엇이든 하리라
당신과 함께 우리는 하나 되어 함께 걷네
하늘 아버지 사랑 안에서 우리는 기다리며 기도하네
우리의 삶에 사랑 넘치도록

첫 번째 강의에서 주민호 회장은 ‘함께하는 선교, 어떻게?’ 라는 제목으로 침례교회가 FMB와 더불어 어떻게 선교할 수 있는지에 대해 주제발표를 하였다. 비전 2030 선포





대회의 비전들을 나누며 선교사를 파송하고자 하는 지역교회와 어떠한 모습으로 어울릴 수 있는지에 대한 구체적인 방안제시들이 있었다. 지역교회가 FMB와 함께 선교할 수 있는 6가지 방안을 제시하였는데 다음과 같다. 첫째, 선교사 파송교회가 되어 주십시오. 둘째, 내년 예산계획에 '한 유닛 선교사' 추가 후원을 포함시켜 주십시오. 셋째, 선교사 후원 시 FMB 공식 계좌를 이용해 주십시오. 넷째, 2만 FMB 패밀리 운동을 허락해 주십시오. 다섯째, 선교잔치를 계획하고 협조 요청해 주십시오. 여섯째, FMB 이사님들과 함께하는 정례 소그룹모임에 참여해 주십시오.



주민호 회장에 이어 침례교회 내의 모범적인 선교사례 발표가 있었다. 세종 선한목자교회(문영호 목사)와 뿌리깊은교회(이민옥 목사)의 선교 사역에 대한 소개가 있었는데, 구체적인 사례 발표의 시간을 통해 현장에 참석한 목회자들에게 도전과 은혜의 시간이 되었다. 막연하게 느껴졌던 교회의 선교 참여가 작은 교회들의 구체적이고 실제적인 사례를 통하여 섬기고 있는 교회에 어떻게 적용할 수 있는지 고민해 볼 수 있는 귀한 시간이었다. 세종 선한 목자교회는 “복음으로 제자 삼아 하나님이 찾으시는 예배자로 가정과 목장, 지역과 열방에 하나님 나라를 세우는 선교 공동체가 된다.”는 사명 선언문을 바탕으로 몽골과 말레이시아에 선교사를 파송하였다. 선교사 파송 이외에도 선교사 후원 및 각종 선교기관에 대한 지원에도 힘을 쏟고 있다. 또한 각 목장의 명칭을 선교사 또는 후원기관으로(예 : 몽골 김영선, M국 전바나바, 기아대책...) 정하여 모든 성도들이 선교적 마음으로 신앙생활 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선교사가 한국 방문할 때에는 목장과 식사교제를 할 수 있도록 안내하여 성도들이 현장의 선교사들과 더욱 친밀한 관계를 맺도록 하고 있다. 뿌리 깊은 교회의 경우에는 카자흐스탄에 집중하여 하나의 지역교회에 단기 선교팀을 지속적으로 파송하고 있는데, 특징적인 것은 팀원을 모집하는데 있어서 기존의 다른 교회나 단체들이 했던 청년 혹은 장년들로만 구성하는 것이 아니라 아이들을 포함한 가족단위의 동행을 권면한다는 것이다.





사례발표 이후에는 조별 그룹토의와 발표로 진행되었는데, 함께 모인 지역교회 목사님들의 의견 교환 및 토론으로 어떻게 지역교회에 적용이 될 수 있는지 좀 더 구체화되는 시간이 되었다. 그리고 저녁식사시간 이후에 진행된 플루티스트 송솔나무의 연주 및 사역소개는 또 다른 의미에서 도전과 더불어 힐링의 시간이 되었다. 송솔나무씨는 최근 우크라이나 전쟁지역을 방문하여 구제사역 등을 진행하였는데, 이 사역에 대한 나눔은 참석자들에게 많은 감동을 주었다.



둘째 날 진행된 타교단 선교사역 사례발표 시간에는 미국남침례교단(IMB) 선교단체의 송요셉 대표가 '포스트 팬데믹, 선교기회와 협동 사역'이라는 주제로 발표를 하였다. 그는 현재 IMB가 진행하고 있는 다양한 선교방법(Long Term, Mid Term, Journeyman, Handson, Team Associate, GMP...)을 통하여 지역교회가 실질적으로 선교에 참여할 수 있는 방안들을 제시하였고, IMB가 그 방안들을 어떻게 실천해 나가고 있는지 설명함으로써 지역교회들로 하여금 선교에 대한 관심을 불러일으키게 하였다. 이어서 진행된 'FMB 이사들과 함께하는 정례 소모



임 계획&발표' 시간을 통해 앞으로 FMB가 지역교회와 함께하는 선교적 비전에 대해 FMB의 이사진과 더불어 어떻게 실행해 나갈 것인지 나누었다, 이에 대해 다음과 같은 계획을 발표하였다.

- 방법 : FMB 이사가 초청, 식사 대접을 하며 비형식&비공식적인 모임을 가진다.
- 시기 : 분기별 1회 정도
- 목적 : 넉넉한 마음으로 가지는 교제와 나눔
 - 동역자 의식 고취
 - 목회와 선교에 대한 비형식&비공식적 멘토링 및 코칭
 - 목회와 선교의 동역자, 선후배 연결
- 소모임 구성

이번 제 4회 FMB 선교포럼은 코로나가 정점이던 시기를 지나 대면 모임이 가능해진 상황에서 개최되었다. 비록 1박 2일의 짧은 시간이었지만 직접 만나는 교제를 통하여 서로를 알아가고, 선교에 대한 나눔으로 더욱 친밀함을 다질 수 있는 기회가 되었다. 또한 구체적인 사례발표를 통해 실질적인 선교사역의 지침을 가르쳐주었고, 지역교회들이 이를 바로 적용할 수 있도록 가이드북을 통해 FMB와 더불어 선교적 모범이 되는 지역교회들의 선교규약을 제시해 주었다. 또한 FMB 선교사역의 현황들을 발표하고 산하기관들을 소개하며 지역교회가 FMB와 함께 선교할 때 어떠한 유익이 있는지를 알리는 계기가 되었다. 앞으로 FMB의 '함께하는 선교'가 하나님의 선교를 이 땅 가운데 널리 알리는데 쓰임 받는 존재가 될 것을 희망하며, 제 5회 선교포럼 또한 기대해 본다.

〈 제 4회 FMB 선교포럼 침례교단 사례발표 : 뿌리깊은 교회 / 이민욱 목사 〉

(본 내용은 선교포럼에서 발표된 내용을 요약한 것입니다.)

1. 뿌리깊은교회 소개

뿌리 깊은 교회는 2010년 1월 17일, 저희 가정과 4명의 청년들과 함께 시작되었습니다. 이후 약 5년 동안 서울과 경기 인근의 카페, 사무실, 공연장 등을 빌려 예배와 훈련을 진행하였습니다. 그러나 다양한 세대로의 확장의 어려움, 안정적인 공간 및 지역 교회로의 전환에 대한 필요, 다음 세대 훈련 요청 등에 대한 논의가 확대되면서, 기흥구 청덕동에 소재한 상가 건물을 2014년 10월에 임대하게되었고, 지금까지 사용해 오고 있습니다.

2. 뿌리깊은교회 단기 선교 소개

저는 강남중앙교회에서 부교역자로 훈련받던 시절 많은 단기 선교 사역에 참여할 수

있었는데, 그 때 주로 집중적으로 카자흐스탄을 방문하게 되었습니다. 당시 카자흐스탄에서의 단기선교 사역은 강남중앙침례교회의 파송선교사였던 주OO, 이OO 선교사와의 협력을 통해 준비와 실행이 이루어졌고, 두 선교사님은 헌신적으로 섬겨주시며 현지 카자흐스탄 민족뿐 아니라 한국의 선교팀 대학생들에게도 신앙적으로 좋은 훈련이 될 수 있도록 많은 신경을 써 주셨습니다. (선교사를 파송한 교회의 단기선교팀이 자신들의 교회가 파송하여 현장에서 사역하시는 선교사님과 해마다 사역을 진행하게 되면 여러 보이지 않는 유익들이 매우 큰 것 같습니다.)

이렇게 강남중앙침례교회를 통해 시작된 단기 선교 사역을 해마다 준비하면서, 두 선생님과는 단기 선교사역의 필요와 일을 위한 만남이 아닌, 서로 인격적인 신뢰의 관계로 발전하게 되었다고 느꼈습니다. 그런 여러 해의 동역 경험과 상호간 신뢰의 토대를 쌓아가면서, 저에게는 목회 환경의 변화가 생겼습니다. 강남중앙침례교회를 사임하고 유학을 준비하는 과정에서, 일련의 경험들로 인해 건강한 교회개혁에 대한 소명을 받게 되었습니다. 이후 여러과정들을 거쳐 2013년 저의 영적은사님이 계신 말레이시아로 사역을 다녀오며 선교사역의 씨앗과 열매들을 확인하고 배우며 도울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2014년 10월, 청덕동에 위치한 예배당을 중심으로 새로운 환경(상가임대)에서의 공동체 생활을 시작했습니다. 약 2년 여의 시간을 보내며 다시 소외계층을 향한 공회 사역과 열방의 민족들을 향한 해외선교 사역을 재개하고자 하였고, 기도와 협의의 과정을 통해 2016년 카자흐스탄 민족을 품게되었습니다. 카자흐스탄 민족을 품게되는 과정에는 현장의 주OO, 이OO 선교사님의 인격과 경험에 대한 깊은 신뢰가 바탕이 되었고, 그런 현장 선교사님과의 협력이라면 저희 공동체 교우들을 주저 없이 맡길 수 있겠다는 확신이 있었습니다. 그러한 요소들은 저희 교우들에게 현장의 정보를 전달하고 상대적으로 풍성한 질의 응답의 시간을 보낼 수 있는 힘이 되었으며, 주님의 인도하심을 구할 때 분별하며 결정할 수 있는 귀한 기준들이 되었습니다. 또한 첫 단기 사역을 품고 준비하려던 초창기에 카자흐스탄은 위험하다며 저에게 우려와 걱정의 질문들을 던졌던 교우들이 이제는 자신들의 자녀들과 배우자에게도 주저 없이 카자흐스탄 단기선교를 권하는 동역자들이 되어 주셨습니다.

저희 뿌리깊은교회가 처음 단기선교를 실행한 2017년에는 장년 5명과 미취학 어린이 4명이 함께한 총 9인의 팀이 꾸려졌고, 크즐오르다 지역을 방문하여 7박 8일의 일정으로 선교훈련을 잘 마쳤습니다. 단기선교를 실행한 첫 해에 선교사님들과 사역을 논의하는 과정에서 미취학 어린이들이 포함된 팀 구성과 사역에 대하여 안전함, 효율성 등에 대

한 우려가 있었지만, 주님의 인도하심에 대한 신뢰를 바탕으로 과감하게 가족 단위로 단기팀 구성을 하였습니다. 그리고 사역을 마친 이후 저희 모두는 기대 이상의 소중한 은혜와 경험을 얻는 계기가 되었습니다. 예를 들면, 현지교회에도 어린 세대가 많이 있었는데 우리 선교팀의 아이들과 현지 아이들이 통역의 필요가 없이 하나되어 어린이 성경학교 사역에 큰 우군이 되었습니다. 현지 장년들, 초대된 VIP도 가족이 함께 온 저희들의 모습에 어색함과 긴장감을 빠르게 해결하는 것 같았습니다. 이 때의 경험과 간증을 바탕으로 저희는 가족단위의 참가가 기본이 되는 분위기가 되었습니다.

그렇게 첫 카자흐스탄 단기 선교 사역을 마치고 이듬해 2기 단기팀을 준비하며, 대부분 여름 휴가 기간이어서 직장에서의 휴가를 얻기가 가장 무난한 7월 말~8월로 방문 기간을 정해놓았습니다. 선교팀 모집은 늘 1월에 공지하여 마무리를 짓는데, 2018년도의 경우, 1월에 2기 선교팀을 모집하여 장년 13명, 어린이 10명으로 구성된 총 23명이 그 해 여름 사역을 잘 감당하였습니다. 1기 팀의 경우 크즐오르다 지역을 직접 방문하여 지역 교회에서 함께 사역을 했던 반면, 2기 팀의 경우에는 크즐오르다 지역의 살렘 교회 목회자와 성도들, 성도들의 불신자 가족들까지 모두를 카자흐스탄의 휴양 도시인 캅자기리로 초대하여 전교인 세미나와 어린이 성경학교를 섬기게 되었습니다.

2019년 1월에는 3기팀을 모집하여 장년 18명, 청소년 2명, 어린이 13명 등 총 33명이 그 해 여름 사역을 감당하였습니다. 2019년에는 직전 해에 실시했던 휴양지 초대와 전교인 세미나의 형식을 한 번 더 이어가기로 결정하되, 초대하는 교회를 한 곳 더 추가하여 저희 교회 단기팀에 크즐오르다 살렘교회와 탈가르 살렘교회의 교우들과 가족들이 모두 모였습니다. 현지 선교사님과 현지인 목회자들이 세미나의 강사로 섬겨주셨고 저희 선교팀은 세미나 행정과 중보 기도, 어린이 성경 학교를 진행하였습니다. 저희 선교팀의 어린 자녀들은 현지인들과의 경계를 허무는 귀한 사역을 감당하였습니다.

2020년 1월, 4기팀을 모집하여 총 40명의 팀이 구성되었으나, 코로나의 영향으로 일정이 전면 취소되었습니다. 많은 교우들이 실망을 하였고 취소를 해야만 했던 그 순간의 아픔이 제게 아직도 생생합니다. 그러나 나가지 못한다고 선교 사역이 멈추는 것은 아니라는 분위기가 형성되며 대안을 모색하게 되었고, 그해 단기 선교 사역을 위해 책정한 예산과 추가 헌금을 통해 크즐오르다의 살렘교회의 예배당 건축 완공을 도울 수 있는 기회를 마련할 수 있었습니다. 적지 않은 예산이 요구되는 사역이었지만, 이미 3년간의 선

교지 방문으로 많은 교우들이 현장의 필요를 직접 확인하고 있던 상황이라 예배당 헌당을 위한 프로젝트는 어려움 없이 일사천리로 진행되었습니다. 크즐오르다 예배당을 위한 기도를 이루기 위해 오래전부터 우리 교회를 불러내시어 그 건축을 마무리짓게 하신 하나님의 섭리를 뒤늦게 깨닫게 되며 큰 은혜와 배움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코로나가 잦아든 올해 여름에 카자흐스탄 현장 사역의 재개를 위해 1인 정탐 방문을 하였고, 두 선교사님의 가정에 머물며 2023년 단기선교 사역의 방향과 구체적인 일정을 협의하고 돌아왔습니다. 일정은 2023년 7월 30일부터 8월 7일까지로 확정되었으며 각 요일별 이동 방법 및 숙소, 사역계획 등 구체적인 사항이 대부분 정해졌고 이 내용에 대해 이미 저희 교우들에게도 충분히 공유가 되었습니다.

특히 올해는 코로나로 인해 현장 방문을 하지 못하는 기간이 길어지는 상황에서 크즐오르다 살렘교회 목사님 부부, 목장을 섬기는 두 분의 목자와 인솔자 1명 등 총 5명을 한국으로 초대하여 섬길 수 있는 기회가 있었습니다. 오랜 사역으로 지친 현지 목회자 부부와 목자들이 여러 기독교 순교자들을 방문하며 순교자들의 역사들을 알게되고 해외선교회, WMTC 등 한국의 선교사님들과 기관을 방문하는 과정에서 다시 사역의 동기를 얻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해당 기간에 저희 교우들은 민박으로 선교사역에 참여하기도 했고 시니어&장년 목장과 하루, 형제 목장들과 하루, 자매 목장들과 하루를 지내며 간증과 대화의 시간도 보냈습니다. 주일 저녁에는 저희 뿌리깊은교회와 카자흐스탄 크즐오르다 살렘 교회의 형제 교회 협약식을 갖기도 하였고 FMB 주민호 회장님께서 참석하셔서 설교와 축사로 섬겨주시기도 하였습니다. 이제 저희는 23년도 4기 단기팀을 위한 기도를 이어가며, 3년간 멈추었던 단기 선교 엔진의 예열 단계에 있습니다. 저희 교우들이 여전한 마음과 새롭고 더 성장한 믿음으로 동참할 수 있도록 기도를 부탁드립니다.

3. 연속적인 단기 선교 동력의 원인

우선, 현장 선교사님의 오랜 경륜과 사역적 열매들이 중요했던 것 같습니다. 카자흐스탄은 이미 FMB 현장 선교사님들의 오랜 사역적 열매들이 각종 현장에서 확인이 되어 있는 곳이기 때문에 그런 현장 선교사님들의 수고와 헌신의 바탕이 있는 곳으로 단기선교팀을 인솔하여 간다는 것은 매우 큰 안정감과 기대감의 근거가 되었습니다. 또한, 신뢰 관계가 중요했던 것 같습니다. 오래전부터 이어져서 어느덧 십수년이 되어가며 선교사님 내외와 많은 사역을 기획하고 동참해온 경험이 있는지라, 불필요한 에너지 소모가 거의 없었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하나의 지역 교회와의 꾸준한 동역이 중요했던 것 같습니다. 저희

교회는 카자흐스탄의 크즐오르다 지역에 있는 살렘교회와 지속적인 관계를 이어가고 있는데, 서로간의 공감대가 형성되어 이제는 우리 교우들 중 점차 많은 분들이 살렘교회의 목회자와 사모님, 가족들, 목자들의 이름을 알고 그들의 형편도 알고 있는 상황이 되었습니다. 다들 이 점에서 기도의 차원이 달라졌으며 내년 단기팀 동참에 대한 관심이 훨씬 커졌다는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저는 저희 교우들에게 선교지 교회의 한 명의 성도와 정말 교제하는 사이가 되기를 권면합니다. 실제로 그런 관계들이 조금씩 늘어나면서 목회자의 권면이 아닌 자발적 참여가 훨씬 많아지고 있고 재방문자의 비율이 매우 높은 특성을 갖게 되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단기선교 사역이 해마다 정해진 기간에 진행된다는 것과 빠른 마감과 사전준비 또한 적절했던 것 같습니다. 성도들 대부분이 단기 선교 기간을 알고있고, 참여의 마음이 있는 가정은 미리 일정을 확보해 두는 분위기가 있습니다. 그리고 항상 1월에 공지하여 마감을 하는데, 이는 항공권 구입에도 유리합니다. 그리고 출국 직전까지 매주 수요일 저녁에 모여 선교 사역에 필요한 훈련을 진행해 왔습니다. 이러한 과정을 통하여 준비가 부족했다는 불안감을 해소할 수 있었고, 필요한 사역들을 체계적으로 준비할 수 있었던 것 같습니다.

4. 결론 : 기도의 부탁

저희는 앞으로도 공휴 사역과 해외 선교 사역을 꾸준히 섬겨나가고 싶습니다. 저희 공동체에 맡겨주신 사역들을 묵묵하게 잘 감당해 나갈 수 있도록 선배 목회자님, 선교사님, 귀한 침례교단 공동체들의 기도를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제 4회 FMB 선교포럼 타교단 사례발표 : 큰터교회 / 문창욱 목사

(본고는 선교포럼에서 사례발표로 소개된 내용을 요약한 것입니다.)

제1부 : 작은 교회도 선교할 수 있다

작은 교회가 선교할 수 있다고 믿는가? 재정은 현저히 부족하고 교인이 몇 명 안 되니 불가능한 일인가? 나는 작은 교회도 선교할 수 있다고 믿는다. 작은 교회가 어떻게 선교할 수 있는지 살펴보고 싶다. 작은 교회가 선교할 수 있는 이유는 선교를 돈으로 하는 것이 아니고 성도가 많아야 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이다.

큰터교회, 개척과 함께 선교 시작하기

경제위기가 한창 시작되던 1998년 3월에 우리는 큰터교회를 개척하였다. 당시 재정이 한푼도 없어서 건물의 임차료를 낼 수 없었으며 목회자의 생활비도 없는 형편이었다. 그런 중에 성도가 4~5명 정도 생겼을 때 선교를 시작하겠다는 생각을 가졌다. 처음부터 선교하지 않으면 앞으로도 할 수 없을 것 같았다. 그 때 교회안에서는 “너무 사치스러운 것 아닌가?”라는 말들이 들려왔고 이런 분위기를 바꾸기 위해 나는 한 사람씩 찾아가서 설득을 하였다. 그렇게 설득을 하다보니 4~5명 모두를 설득하게 되었고, 그렇게 선교를 시작할 수 있었다.

드디어 선교 시작

첫 번째 달에 한 명의 협력 선교사를 세워 매월 십만원씩 지원했다. 다음 달에는 두 번째 선교사 가정을 세워 매월 이십만원씩 지원했다. 세 번째 달에는 세 번째 선교사 가정을 세워매월 삼십만원을 지원하게 되었다. 우리 교회 선교는 이런 식으로 계속 진행되었다. 당시 IMF 상황에서 우리안에는 불안함이 있었고 3개월 후면 교회 문을 닫을 것으로 예상했지만, 교회문은 닫히지 않았고 20년이 흘러 지금도 교회내에서의 선교는 계속 일어나고 있다.

큰터교회 선교 운동의 현주소

서울 큰터교회를 9년전에 개척해서 약 50명 정도가 모이는데, 부산 큰터교회와 합치면 150명 정도의 성도가 된다. 현재 150명의 성도가 150가정의 선교사를 후원하는데, 파송 선교사는 50가정이고 협력 선교사로 100가정을 후원하고 있다. 매달 지출하는 재정이 4,500만원이다. 이것이 잘 될 때도 있고 안 될 때도 있지만 중요한 것은 ‘계속하고 있다’는 점이다.

작은 교회가 선교할 수 있는 비결 : 믿음

담임 목사인 나 자신의 선교에 대한 태도가 중요하다. 믿음이 없이는 선교에 도전할 수도, 선교를 진행할 수도 그리고 지탱할 수도 없다. 선교를 시작하던 당시 재정적인 염려들이 찾아올 때에도 마태복음 6:25~34절까지의 말씀을 약속의 말씀으로 믿고 나아갔다. 우리에게 아무것도 없어도 살아있는 하나님과 살아있는 말씀이 있다. 그 말씀이 있는데 염려될 것이 무엇인가! 물론 기록하지 않은 현실 앞에 걱정이 없는 것은 아니다.

작은 교회가 선교할 수 있는 비결 : 절대적인 순종

인생의 목표는 우리의 뜻을 이루는 것이 아닌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것이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이유도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 오신 것이다. 이 선교를 시작한 것도 내가 주도한 것이 아니었다. 그저 하나님의 뜻에 순종한 것이었다. 어떤 분들이 처음부터 그렇게 선교해야 하는가, 형편이 나아지면 해야 하지 않는가 라고 물었을 때, 나는 하나님께 물었다. 어떤 사람을 보내야 할지에 대해서도 그리고 재정을 어떻게 써야 할지에 대해서도 하나님께 물었다. 결국 교회를 시작하지 2년 만에 교회 재정의 50%를 선교비로 지출하게 되었고, 그 다음 2년이 지나고는 무려 다섯 가정의 선교사를 한꺼번에 파송하며 파송 선교사를 세우기 시작했다. 선교를 쉬지 않고 지속했지만 그 과정에서 단 한 번도 쉽게 된 적은 없었다. 우리 교회가 아무리 작다고 해도 하나님은 살아계시며 우리에게 아무리 재정이 없다고 해도 하나님은 모든 것을 가지고 계신다. 선교를 위해서 헌신하는 교회들이 일어날 때 하나님은 대한민국 교회를 축복하실 것이라고 믿는다.

제 2부 : 작은 교회 큰 선교

작은 교회의 큰 선교, 과연 가능한 일인가? 선교를 하되 형편에 맞는 선교를 해야 하는가, 아니면 형편을 넘어서는 수준까지 해야 하는가? 나는 이 질문에 대한 답을 예수님으로부터 찾았다. 예수님은 형편껏 하지 않으셨고 마지막 피 한방울까지 다 희생해서 우리를 구원하셨다. 주님이 가신 길을 따라갈 수만 있다면, 작은 나의 순종이라도 하나님 나라에 공헌할 수 있다면, 내가 가지고 있는 에너지와 소유를 다 소진해서 주님을 위해 살아갈 것이다. 왜냐하면 주님이 우리를 그렇게 사랑하셨기 때문이다.

큰터 교회의 선교

큰터교회는 작은교회이지만 파송 선교사가 50가정이고 협력 선교사가 100가정으로 대형교회 못지 않은 규모로 선교사를 파송&협력하고 있다. 어떻게 이 일이 이루어지고 있는 것인가?

먼저는 성도들을 선교 동력화시키는 것이다. 지난 22년의 세월을 돌아보았을 때 초기 10년은 너무 힘들었는데, 하나님 나라를 위해 헌신하는 사람들이 이렇게 없나 싶어 속이 답답했다. 교회의 비전에 동참하지 못하고 교회를 떠나는 성도들도 있었지만, 여전히 교회에 남아 귀한 선교의 동력이 된 분들도 있다. 누군가는 자신의 전 재산 향유욕함을 깨

트리기도 하고, 누군가는 적금을 가져오기도 했는데, 나는 그 때 우리 모두 하나님 나라를 위해 다 팔아 소진하자는 강력한 메시지를 전했다. 성도들은 이 메시지를 주님의 음성으로 듣고 따라왔고, 그 결과 누가봐도 불가능해 보이는 선교가 가능하게 되었다.

또 한가지 선교 동력화를 위한 한 방편으로 우리 교회에서 시작했던 것이 열방 수련회였는데, 큰터교회 성도와 선교사의 만남의 장을 만들며 선교에 대한 마음을 나누었다. 성도들은 선교사들의 얼굴을 보니 선교에 대한 현실감이 다가왔고, 선교사도 큰터교회 성도들이 이렇게 열악한 가운데 선교하는 것에 감동을 받았다. 이 열방 수련회가 지금 10회를 넘었고 이제는 해외에서도 하는데 전 성도가 한 명도 빠짐없이 교회를 완전히 비우고 선교지로 가는 열방 수련회를 진행한다.

이 밖에도 큰터교회가 선교를 진행하는 방법으로는 매년 크리스마스가 되면 선교사님들에게 선물을 보내기도 하고, 1월에 선교 작정 헌금을 하며 동시에 금식을 작정한다. 금식을 그냥 하는 것이 아니라 줄어든 식비를 선교비로 낸다. 그리고 교회 유지비용을 절약하기 위해 예배당은 무상으로 사용할 수 있는 곳을 찾았고, 교회 식비를 절약하기 위해 전 성도가 도시락을 싸 오도록 했다.

우리의 재정 목표는 현상유지이다. 교회 재정이 제로가 되는 것이 목표이다. 나는 이것이 얼마나 좋은지 모른다. 돈 한 푼 안 남기고 제로로 만들어서 주님 나라를 위해 나의 모든 것을 다 소진했다고 생각하면 마음속에서부터 기쁨이 올라온다. 요즘도 돈이 많이 들어오면 결덜 수가 없다. 제로로 만들려고!

큰터교회 선교 운동의 확산

큰터교회의 선교운동이 한국교회에 알려지면서 방송에서 보았다며 전화 한 통이 왔다. 얼굴도 모르는 이분은 큰터 교회에 매달 100만원씩 선교헌금을 한다. 나중에 알게 된 사실인데 이분은 헌금을 만들기 위해 쓰리잡을 뛰었다고 한다. 그뿐만이 아니라 한국교회의 많은 분들이 이제 선교 동역자가 되어 일어나고 있다. 더 나아가 우리가 파송하고 협력하는 선교사님들이 헌신하기 시작했다. 한 선교사님은 본인의 마지막 재산인 집을 팔아 선교비로 드렸고, 어떤 선교사님은 안식년으로 왔다가 큰터 교회가 선교하는 것을 보고 2천만원짜리 수표를 건네고 갔다.

나가는 말

큰터교회의 선교는 매달 어떻게 될지 아무도 모른다. 그러나 정지하지 않으며 진행되고 있다. 과거에 작은 교회의 큰 선교는 불가능하다고 생각했다. 과도한 헌신에 대해서 불안해하는 사람들이 너무나도 많았는데, 사실은 제 주위의 거의 모든 사람들이 다 불안해 했다. 그러나 하나님이 기뻐하신 뜻이기 때문에 그분의 뜻을 받들고 묵묵히 나아갈 수 있었다. 처음에 사람들은 나를 이상하게 생각했지만 지금은 사람들의 인식이 달라졌다. 교인들도 우리 목사님이 했던 것이 무모해 보였지만 점점 이게 맞다고 생각하기 시작했다. 사람들은 가능한 일에만 도전하려고 한다. 얼마나 안타까운 일인가.

한 번 밖에 없는 인생을 하나님을 위해 목숨 걸고 나아갈 수 있는 것보다 더 기쁨 넘치고 가치있는 일이 있을까? 나는 많은 작은 교회 목사님들, 성도님들 그리고 한국교회에 이렇게 도전하고 싶다. 지금까지 이런 방식의 선교 운동이 없었지만 큰터 교회가 앞서서 모델을 만들었다. 이 길이 안되는 것이 아니고 되는 길이라는 것을 보여주었다. 우리 한 번 같이 한국교회를 위해서 일어나 보지 않겠는가? 작은 교회&큰 선교, 하나님이 이루신 작품이다. 주어진 형편에 더 이상 주눅들지 말고 하나님을 위해 용기있게 일어나는 우리 모두가 되면 좋겠다.





2022 FMB 지부장 연례회의와 리더십 과제

2022년 9월 13일부터 15일까지 대전 세계선교훈련원에서 해외선교회(FMB)의 현장 지부장들이 모여 FMB 지부장 연례회의를 가졌다. 이번 연례 지부장 회의는 COVID19와 다른 연유로 4년만에 모이게 되었고 신입회장 취임이후 첫 대면 지부장 회의였다. 총 20개 지부 중에서 15개 지부의 지부장과 본부 리더십 3명과 WMTC 부원장, SRDC 연구원 1명과 FMB 이사 7명이 참석하여 FMB의 2030 비전과 관련하여 선교지 현장과제를 어떻게 풀어 갈 것인가를 논의하였다.

2022 연례 지부장 회의 주요 목표

이번 지부장회의의 주요 목표는 먼저, 지부장들에게 리더십의 비전을 고취하는 일이었다. 이것을 위해 이태웅 박사를 강사로 초청하여 “글로벌 선교 리더십”이란 주제의 강의



를 듣고 지부장들의 리더십을 계발하는 동기로 삼았다. 두번째는 FMB 2030 비전의 선교지 현장과제를 풀어가기 위한 각 지부의 현장 상황을 파악하는 것이다. 세번째는 현장 상황과 2030 비전의 현장과제를 이루어 가기 위한 논의를 통해 FMB가 2030 비전을 향해 가는 일에 함께하는 공동체 정신의 가치를 공유하는 것이었다.

지부장 연례회의의 주요 내용들

지부장들에게 선교적 리더십 계발의 동기 부여 : 이태웅 박사의 선교적 리더십 강의는 지부장들에게 리더십을 계발하도록 하는 동기를 부여하였다. 리더십 강의를 위해 충분한 시간은 아니었지만 두 번에 걸친 90분짜리 강의는 동기 유발에 좋은 촉진제 역할을 했다고 본다. 이태웅박사는 1) 매일의 회심을 경험하라 : 매일 예수님께 재헌신하라 2) 매일 훈련으로 당신의 삶을 든든히 하라 : 성품은 훈련으로 만들어진다. 3) 소명의식으로 살라 : 내 수준에 맞게 소명의식을 재구성하라. 4) 주위에서 공동체를 만들어라 : 반드시 주위에 친구들로 이루어진 친밀한 공동체가 있어야 한다는 맥도날드 목사의 4가지 리더십 핵심원리를 인용하며 리더는 훈련할 의무가 있으며 하나님은 리더들이 “아무나”와 같은 삶을 살도록 허락하지 않으시고 우리가 배워서 할 수 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사명을 맡기셨다며 리더십 훈련을 강조하였다. 선교적 리더십에서 영성 리더십의 중요성이 특히 강조되었으며 영성형성이 어떻게 이루어지는지를 다시 한번 점검하게 하였다. 또한 지부장의 권위 때문이 아니라 존경하기 때문에 형성되는 리더십이 더욱 중요하다고 언급하는 것을 잊지 않았다. 지부장 회의와 같은 기회가 있을 때마다 리더십에 대한 도전과 교육이 일어난다면 지부장 임무를 수행하는 선교사들의 리더십이 점진적으로 계발될 것으로 사료되는 시간이었다.

각 지부 현황 파악 : 먼저 각 지부의 현황을 발표하는 시간을 가졌다. 회의에 참석한 15개의 지부의 지부장들과 부득이하게 참석하지 못한 다른 5개 지부의 지부장들 역시 발표 자료를 피피티와 영상으로 제공하여 20개 지부 전체의 상황을 파악하는 귀한 시간이 되었다. 각 지부의 기본적인 정보를 넘어서 사역자들 간의 분위기와 협력, 팀사역 현황 및 지부 사역들이 어떤 상황인지 등의 내용들이 진지하게 나누어졌다. 또한 FMB의 전체 사역현장에서 각 지부의 사역환경에 따라 다양하고 다른 형태의 사역이 진행되는 것을 지부장들과 본부의 리더십이 함께 들을 수 있었다. 그동안 본부의 공지와 행정지시 사항을 전달받는 패턴을 벗어나 지부장들이 현장의 이야기를 직접 나누었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었다.

본부 리더십의 “함께하는 선교”의 공동체성에 대한 공감대 형성(본부, WMTC, SRDC, 안

식관 발표) : 본부와 선교현장 선교사들의 대치구도를 벗어 버리고 모두 동일한 FMB 공동체로서 함께한다는 정신을 나누는 귀한 시간을 가졌다. 회장 자신의 선교 현장 경험을 나누며 삼위일체 하나님의 공동체성을 견지하고 하나되는 FMB가 되어야함을 강조할 때에 지부장들의 공감을 얻었다. 또한 이를 위해 WMTC는 현장 선교사들을 위해 마련한 계속 교육 프로그램(MUT-PRO, MUT-SENIOR, FIELD ORIENTATION 등)을 소개하였고, SRDC는 현장 선교사들의 전략적인 사역을 돕는 계획과 그 동안의 연구된 내용을 나누었다. 안식관은 유기적인 운영 원칙을 나누어 선교사를 진정으로 섬기는 태도를 보여줌으로서 전체 FMB가 효과적인 현장 사역을 위해 한 방향으로 나아가고 있다는 공감대를 형성하는 의미 있는 시간이었다.

FMB 이사님들과 대화 : 김종식 이사장을 비롯하여 김용혁 문기태 송희진 이영은 임성도 이사가 참여하여 지부장들과 대화를 통해서 이사회의 기대와 현장 선교사들의 생각을 나누었다. 최성은, 손석원 이사는 잠시 방문하여 격려하는 시간을 가졌다. 그 동안 선교지 방문 경험과 선교에 대한 깊은 통찰력을 가지고 겸허함으로 섬기는 이사회의 선교에 대한 열정은 지부장들과 FMB 실무 책임자들을 도전하는 동시에 큰 격려와 힘을 불어넣어 주었다. 이사들 또한 지부장들이 함께 진지하게 현장 사역에 대해 논의하는 모습을 보며 역으로 격려받는 분위기가 되었다. 신학교 사역과 지도자 계발 등 선교 현장의 핵심적인 주제들이 이사들과 지부장들 사이에서 토론되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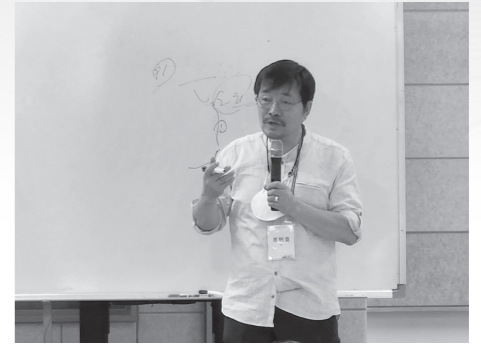
FMB 2030 비전의 선교 현장과제 실천을 위한 토론 : 2030 비전의 선교 현장과제 3가지는 '권역선교회 설치', '팀사역중심과 현지교회와 협력', '디아스포라 사역의 전문성 강화'이다. 이중에 가장 집중적으로 논의된 내용은 권역선교회 설치이다. 권역선교회 설치의 요지는 선교회의 본부 역할을 선교현장으로 옮겨가는 것이다. 서울의 원격 관리보다 현장의 직접관리가 효율적이라는 의미이다. 어떤 형태에 대한 이슈보다는 현장 구조 자체를 강화하자는 의미가 강한 과제이다. 권역선교회의 주제는 지속가능한 선교, 멤버



케어, 효과적인 사역 등을 포함하기 때문에 현실적으로 현장구조의 즉각적인 변화를 가져올 수 없다면 현재의 구조를 강화해야 한다는 점과 점차적으로 권역선교회 구조로 변화해야 한다는 점에서 지부장들이 공감하는 분위기였다.

팀사역중심과 현지교회와의 협

력의 현장과제에 대해서 FMB가 초기부터 팀사역을 강조했고 현지교회와 적극적으로 협력했음을 주민호 회장이 강조했다. 지난 9월 분당 지구촌 교회에서 열린 아시아태평양 침례교대회(2022 APBF)의 미션 컨설팅에서 각 나라의 침례교단 선교관계자들은 선교사가 현지교회와 협력할 것을 “미션 파트너스”라는 이름으로 협약한 점을 상기시키며 현지교회와 협력을 강화하는 정책은 FMB의 2030 비전과 같은 방향이라는 것을 확인하였다.



현장과제들을 논의하는 과정에 드러난 것은 리더십의 부재에 대한 염려였다. 리더십의 부재는 사람이 없다는 의미가 아닌 훈련과 교육의 기회가 부족했다는 의미이므로 사람을 세우는 일을 위해 리더십 계발을 위한 훈련과 교육의 기회를 만들어야 한다는 논의가 있었다.

2022 연례 지부장 회의의 성과 및 의의

지리하게 끝나지 않을 것 같은 팬더믹을 뒤로 밀어내며 모인 연례 지부장회의는 오래 기다린 만큼의 성과가 있었다. 참석했던 지부장들이 새롭게 변화를 향해 가는 FMB에 대한 기대와 동시에 이러한 변화를 위해 현장에서 해야 할 과제를 가지고 흠뻑 젖었다. 이번 지부장 회의 성과와 의의를 몇 가지로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첫째, 이번 지부장 회의의 참여도와 관심도가 매우 높은 모임이었다. FMB의 20개 지부 중에서 15명의 지부장이 현장 참석하였고 부득이하게 참석하지 못한 5개 지부의 지부장들은 지부 현황을 자세하게 피피티와 영상을 통해 보고 자료를 제출하였다. 지부장들 뿐만 아니라 본부 리더십과 많은 이사들까지 적극적으로 지부장회의에 참여하였다. 지부장 활동을 위한 공식적인 재정 지원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지부장들이 헌신적으로 회의에 참석하여 적극적으로 의견을 개진해 주었다. 이번 지부장 회의는 FMB 조직의 핵심 구조가 “함께하는 선교”로 가는 공동체성의 새로운 세포로 갱신하는 분위기를 느끼게 하였다.

둘째, 각 지부의 상세한 현황을 지부장이 보고하고 다른 지부장들과 본부의 리더십이 경청했다는 점에서 의의가 있다. 지부의 사역 현장의 상황을 나눌 공식적인 장이 마련

제10회 아시아태평양침례교대회 "Stronger Together"



됨으로써 지부장의 발표가 상당한 공신력을 얻는 계기가 되었다. 뿐만 아니라 그 동안 각 자의 사역 현장에만 관심을 가졌었는데 이제 모든 지부장들이 FMB 전체 사역 현장의 정보를 공유하게 되었다.

셋째, FMB 2030 비전의 현장과제 실천을 위해 지부장들과

구체적으로 논의하는 과정은 매우 유의미한 일이었다. 지부장회의 짧은 시간 동안 현장과제를 어떻게 실천할지 구체적으로 논의할 수 없었으나 각 지부들이 자신의 사역현장에서 어떻게 현장과제를 실천할 것인가를 논의할 수 있는 길이 시작된 셈이다. 즉, 각 지부 모임에서 이 논의가 계속될 것에 대한 기대가 생겼다. 비전과 사역현장 사이에 서서 사역 수행의 현실성과 효율성을 고려하여 실천하려는 발걸음을 시작한 것이다.

넷째, 이번 회의 기간 동안에 본부의 리더십과 지부장들이 급격하게 변화하는 선교 환경과 각 지부가 직면한 도전들을 넘어서서 FMB의 비전을 향해 한마음으로 나가려는 공감대 형성이 시작되었다는 것이 고무적인 성과였다.

다섯째, FMB 역사상 지부장회의에 이렇게 많은 이사들이 참석한 것은 처음이었다. 많은 수의 이사들이 회의에 참석하여 지부장들과 함께 현장 사역에 관련하여 심도있는 대화를 나누었다는 것은 교회와 선교현장의 연결에 있어서 큰 의미를 가진다. 지역교회의 선교참여가 단지 물질 후원의 수준이 아닌 선교 자체가 교회의 존재목적으로 가는 길의 모범을 FMB의 이사들이 먼저 보여준 셈이다.

마지막으로 지부장회의를 통해서 참 감사할 일이 많았다. 지부장들이 재정 지원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헌신적으로 참여하였다. 더욱 감사한 일은 FMB 이사들과 후원 교회들이 회의 참석자들을 위해 식사를 대접하고 귀한 선물로 지부장들을 격려했다. 더욱 감사한 일은 지역교회 목사님 세 분이 차례대로 매일 오전 경건회에서 예배와 말씀으로 섬겨준 일이었다. 선교사들 앞에서 형식적인 인사 수준의 메시지가 아닌 지역교회 담임목사로서 선교의 열정이 우러나는 진심어린 간증과 도전의 말씀은 지부장들의 가슴을 축축하게 만들며 큰 힘을 주었다.

아시아태평양지역 침례교회들의 축제인 아시아태평양침례교대회(이하 APBF)가 지난 9월 5일부터 2박 3일동안 경기도 분당의 지구촌 교회에서 개최되었다. APBF는 아시아태평양 지역의 22개국 65개 침례교단과 3만 3천여 교회가 속한 단체로 5년마다 대회를 개최한다. 올해는 기독교한국침례회총회(총회장 고명진 목사, 대회준비위원장 유관재 목사)가 주관하였는데, 이번 제 10차 대회가 주목받았던 이유는, 코로나 이후 한국에서 개최되는 첫 국제 선교대회이기 때문이다. 메인 강사로는 APBF 총회장인 Edwin Lam 목사, 세계침례교 연맹 사무총장인 Elijah Brown 박사, 지구촌교회 담임 최성은 목사, Elon318 Community교회 담임인 Ai Nohara Tetseo 목사, 호주 침례교 세계구호단체 대표를 지내고 있는 Melissa Lipsett이 수고하였으며, 일부 선택강의를 제외한 모든 집회가 영어로 진행됨과 동시에 중국어, 일본어, 베트남어, 바하사어 등으로 통역 중계되었다. 이번 대회를 주관하는 기독교한국침례회 총회장인 수원중앙침례교회 고명진 목사는 “침례교





단은 이번 대회를 주관하면서 코로나 이후 침례교회의 건강성을 확인하고 아시아 태평양 선교의 구심점 역할을 감당하는 기회로 삼을 것”이라고 말했다. 또한 이번 대회의 총괄분과위원장을 맡은 정미연 교수는 기자회견을 통해 “선교대회로서의 성격을 가진 이번 대회를 한국에서 유치할 수 있었던 것은 타국에 비해 기독교 역사가 길지 않지만 그럼에도 교회들의 빠른 성장과 탄탄함이 있었기 때문이었다. 아시아태평양 지역 침례교 중에는 핍박받는 소수민족이 많은데 그들이 한국 대회를 기대하고 열광하고 있다. 이번 대회는 코로나 19로 현장에 모두가 참석하지 못한 아쉬움이 있지만 역설적으로 하이브리드 대회로 인해 더 많은 이들이 온라인으로 참여할 수 있어서 감사하기도 하다.”라며 제 4회 APBf에 대한 소감을 표했다.

Stroger Together 에베소서 4:16

“그에게서 온 몸이 각 마디를 통하여 도움을 받음으로 연결되고 결합되어 각 지체의 분량대로 역사 하여 그 몸을 자라게 하며 사랑 안에서 스스로 세우느니라.”(에베소서 4:16)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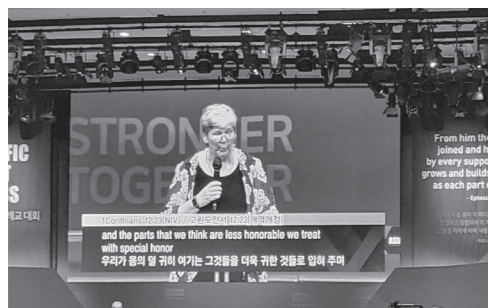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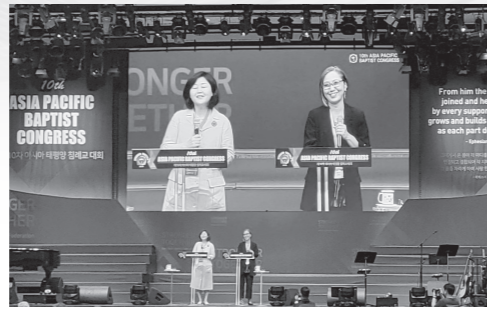
APBf 본 대회에 앞서 7월 12일에는 여의도에 있는 기독교한국침례회 총회빌딩에서 미디어테이가 진행되었다. 기자회견에는 총회장 고명진 목사와 준비위원장 유관재 목사, 실무위원인 정미연 교수, 주강사인 최성은 목사, 분과위원장 안동찬 목사, 총무 김일엽 목사가 참석하여 제10회 APBf를 알리기 위한 시간을 가졌다. 유관재 목사는 이날 “원래 온라인 개최에 대해서는 생각하지 않았고 강릉에서 준비를 하고 있었는데, 하이브리드

대회를 하게 되었다. 지구촌교회에서 도와줘서 8개국 언어로 동시 통역이 되어 온라인으로도 함께할 수 있게 되었다. 한국은 아시아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에너지를 가지고 있는 나라이다.”라며 APBf를 준비하는 소감을 밝혔다. 대회 주강사인 최성은 목사는 “이번 대회는 워드 코로나 상황에서, 또 인구절벽 시대에 선교와 전도가 위축되고 있는 시점에 한국 교계에서 타교단을 포함해서 처음으로 열리는 국제 선교대회로, 복음이 어떻게 퍼질 수 있는가가 최대 관심사라며, 한 교단의 독단적 선교가 아닌 연합하는 선교, 함께하는 선교가 가장 중요하다. 협동하는 모습으로 위축된 선교와 지역교회에 힘을 주고 격려를 하고, 앞으로 선교, 복음전도, 교회 사역에 있어 하나님의 주권적 사역이 일어날 것이라는 기대를 갖고 있다.”고 말했다.

또한 본 대회 직전인 9월 2일부터 3일까지 대회 장소인 지구촌교회에서는 이현모 교수(침례신학대학교, 선교학)의 진행으로 APBf 리더서밋인 미션파트너스가 진행되었다. 미션파트너스의 목표는 APBf의 사역에 대한 리더들의 헌신을 새롭게 하고 갱신하며 재점화하는 것이었는데, 선교에 있어서 다양한 성공적인 방법을 서로 공유하고 배우기 위해 네트워크를 형성하고 협력하는 방안을 모색하였다. 약 30여명의 아시아태평양 지역의 리더들이 모여 진행된 미션파트너스를 통해 APBf 본 대회 이전에 이들 간의 협력을 다지고, 아시아 태평양 지역 그리스도인들의 삶을 변화시키기 위한 훈련과 봉사의 방안들을 모색하며 주님의 위대한 계명에 순종하기 위해 협력하는 시간을 가졌다.

One Lord, One Faith, One Baptism!

아시아 태평양 지역 최대 규모의 침례교 행사인 APBf는 1979년 총회를 시작으로 5년에 한 번씩 회원국에서 열리고 있다. 아시아 태평양 지역의 침례교인들이 함께 모여 하나신 주님께, 하나의 믿음으로, 침례교인이 하나 됨을 확인하는 시간이다. 총회장인 에드윈 램 목사(PEV, Edwin Lam)는 이번 대회에 앞서 “꿈꾸던 것들이 마침내 현실로 이뤄졌다. 지난 몇 년간 이 대회를 꿈꾸고 계획했는데, 마침내 우리 눈 앞에 펼쳐졌다.”고 반겼다. 특히 이번 대회에는 2024년 한국에서 열릴 로잔 선교대회에 앞서, 선교의 문을 여는 계기가 될 것을 기대하는 마음으로 아시아 태평양 지역 침례교 지도자들이 참석해 세계 선교를 위한 협력 방안을 논의 하였다. 워크숍을 통해 교제와 예배 회복, 협력 선교의 장을 열고 새로운 선교의 패러다임을 제시하는 시간이었다.



The Mission : North Korea

APBf는 이번 제 10차 대회를 마무리하며, 북한 선교에 대한 협력방안을 담은 ‘APBf 한국대회 선언문’을 발표하였다. 선언문의 내용은 다음과 같다.

- 첫째, 완전한 복음 전파를 위해 총체적 선교를 지향한다. 복음전파에 최우선을 두며, 당면한 사회적 책임도 감당한다.
- 둘째, 복음전파를 위해 침례교단과 복음주의 단체와 협력한다.
- 셋째, 교회 중심의 선교를 지향한다.
- 넷째, 북한선교에 전교회가 마음을 쏟는다.

고명진 대회장은 “앞선 두 개의 선언은 APBf가 이전부터 함께 공유해오던 가치를 이어가는 차원의 선언이지만, 교회중심 선교와 북한 선교에 대한 3, 4번째 선언은 특별히 이번 한국대회에서 구체적으로 논의가 된 사안”이라고 전했다.

See you next time!

총회장인 에드윈 램 목사는 대회 기간 내내 ‘선교’에 대해 집중적으로 언급하였다. “코로나로 선교는 멈춘 듯 보였습니다. 하지만 화상회의나 유튜브 라이브 등 온라인을 적극 활용하게 된 뉴노멀 시대를 경험할 수 있었습니다. 선교에 대한 새로운 방법들을 많이 알게 됐고 선교 사역은 끝난 것이 아니라는 걸 깨닫게 되었습니다. 이번 대회의 주제인 ‘함께’는 온라인 플랫폼 안에서 구현되어 회원 교단의 4만 여개 교회 중 대부분이 온라인으로 참석하였습니다.”

대회 마지막 날 저녁 집회에서는 APBf 신입원 취임식이 진행되었는데, 그동안 수고한 구임원들을 격려하고 새로운 집행부를 소개하는 시간을 가졌다. 마크 윌슨 신임 총회장과 고명진 부총회장이 새로운 집행부 임원으로 추대되었다. 구임원들이 신입원들을 위해 위임기도를 했다. 취임식 이후에 에드윈 램 전 총회장이 요한복음 17:20~26절과 15~17절을 본문으로 말씀을 전했으며, 이번 APBf를 성공적으로 진행한 한국침례교 고명진 총회장과 지구촌교회 최성은 목사에게 감사패를 전달하는 순서도 가졌다. 마지막으로 에드윈 램 전 총회장이 APBf 2027의 한국 개최를 선포하며 제10차 아시아태평양 침례교대회는 문을 닫았다.

제10차 APBf를 마치며... : 지구촌교회 해외선교부 이명준 목사

** APBf를 진행하면서 느꼈던 점에 대해 한 말씀 부탁드립니다.*



이명준 목사

이번 제 10차 아시아태평양 침례교대회는 코로나 펜데믹 이후에 한국에서 열린 첫 국제선교대회로서 그 의미가 작지 않다고 할 수 있습니다. 코로나로 인한 어려움이 여전하여서 어느 지역에서는 아예 한국을 입국하는 것조차도 쉽지 않은 경우가 있었다고 하는데요, 그러나 하나님은 당신의 선교를 쉬지 않고 계신 것처럼, 아시아 태평양 지역의 침례교인들이 본 대회에 참석할 수 있는 기반을 온라인이라는 마당에서 이루셨습니다. 이번 APBf는 온&오프라인 양쪽으로 개최되어서 지역적인 한계를

뛰어넘어 아시아태평양 지역의 더 많은 침례교인들이 참석할 수 있었습니다. 집회는 영어로 진행이 되었지만 아시아태평양 지역의 5개국 언어로 통역이 되어 더욱 많은 이들이 대회의 은혜를 함께 나눌 수 있었고, 통역의 수고를 우리 FMB 선교사님들께서 함께 담당해 주신 덕분에 대회 진행에 큰 도움이 되었습니다. 말레이시아의 한 교회에서는 수십명의 교인들이 한 모니터 앞에 모여 집회에 참석했다는 이야기도 들려옵니다. 사람의 생각으로는 코로나 때문에 이동이 어려워 대회 참석이 제한적이었다고 느끼지만, 하나님은 우리의 생각 이상으로 더 많은 사람들이 이번 APBf의 은혜를 누리게 하셨습니다.

** 이번 제10차 APBf 대회가 한국 침례교와 침례교 선교에 어떤 영향을 끼칠까요?*

이번 APBf는 10회 대회였는데, 그 동안은 한국에서 개최된 적이 한 번도 없었습니다. 한국에서 처음으로 열렸던 이번 대회를 통해 아시아 태평양 지역에서 한국침례교단의 위상이 높아졌다고 생각합니다. 한국 기독교의 역사와 선교의 역사는 다른 나라에 비해 길지 않지만, 짧은 기간 동안 눈부시게 성장한 한국교회의 발전을 보여줄 수 있는 시간이기도 했습니다. 이렇게 큰 대회를 훌륭하게 잘 치러낼 수 있는 한국교회의 역량이 아시아태평양 지역에 알려진 의미 있는 시간이었고, 더불어 앞으로 선교사역을 진행하는데 있어서 다른 지역의 교회들과 연합할 수 있는 기틀이 마련된 시간이었습니다. 이번 대회

의 타이틀처럼 함께하는 것이 더욱 큰 힘을 만들어 낼 수 있음을 느끼며, 앞으로 한국 혼자서만의 선교가 아닌 아시아 태평양 지역의 많은 나라들과 '함께하는 선교'를 이루어 나갈 수 있기를 기대해 봅니다.

** 혹시 이번 대회를 진행하며 아쉬우셨던 점이 있을까요?*

숙소의 문제로 현장참석에 제한이 있었던 점에 대해 송구스러운 마음입니다. 그리고 더 많은 침례교회들이 함께하지 못하여 혹시나 일부만의 잔치가 되었던 것은 아닐지 아쉬운 마음이 남는 것 또한 사실입니다.

** 앞으로 APBf가 어떤 방향성을 가지고 나아가야 할까요?*

기본적으로는 흔들리지 않고 복음을 분명하게 선포하는 것이 우선이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침례교회들의 영적인 건강에 대해서도 좀 더 깊이 고민을 해보고, 해볼 필요가 있습니다. 교회가 건강하면 복음을 나누는 일, 즉 사회적 책임이 자연스럽게 실행이 될 것입니다. 우리 침례교회들이 건강하게 사회적 책임을 다할 수 있도록 그 방안을 제시해 주었으면 합니다. 이것을 위해서 아시아 태평양 지역의 단체들이 더욱 협력하고, 재난이나 기후위기 등의 어려운 일이 있을 때 각 기구들이 적극적으로 나서야 합니다. 한국 교회는 지난 시간 동안 눈부신 부흥을 이루었습니다. 그리고 재정적으로도 많은 부어주심이 있었기에, 한국의 침례교회들이 이제는 아시아 태평양 지역의 교회들을 위해 여러 방면으로 더욱 섬겨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 마지막으로 한 말씀 부탁드립니다.*

이번 APBf를 성공적으로 마칠 수 있게 해주신 주님의 은혜에 감사드립니다. 10차 대회의 표어처럼 '함께, 더 강하게' 아시아 태평양 지역의 침례교회들이 연합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번 대회의 경험을 바탕으로 한국 침례교 또한 하나님의 선교에서 그 역할을 더욱 잘 감당해 낼 수 있기를 희망해 봅니다.



한국인선교사를 위한 적절한 연장훈련 제안



| 침례교해외선교회 세계선교훈련원 부원장
이병문(D.Miss)

I. 들어가는 말

19세기는 ‘위대한 선교의 세기’라고 하지만 아프리카에 초기 파송되었던 선교사의 평균 수명은 2년에 불과했다고 한다.¹⁾ 감사하게도 사람의 수명이 증가함에 따라 선교사의 수명도 연장되었고, 이제 선교지 경력 30년이 넘는 선교사를 만나는 것은 어렵지 않다. 이처럼 선교사의 사역기간이 길어지는 반면 세상은 더 빠르게 변화하고 있다. 미래 학자 피터 드러커(Peter F. Drucker)는 세상의 흐름을 따라가기 위해서 전문 지식을 4~5년마다 새로운 지식으로 업데이트해야 해야 한다고 주장한다.²⁾ 이처럼 선교사는 긴 선교사역 기간 중에 세상이 변화하는 것을 여러 번 경험하게 되지만 안타깝게도 선교현장에 있는 선교사 스스로가 그 변화에 능동적으로 대처하기는 쉽지 않다. 여기서 선교사의 연장훈련 필요성이 나온다.

이런 연장훈련의 필요에도 불구하고 선교사의 연장훈련을 제도적으로 실행하고 있는 선교단체는 많지 않다. 연장훈련은 선행 연구조차 거의 전 무(全無)한 블루오션 분야이다. 한국선교의 시대적 과제는 더 많은 선교사를 파송하는 ‘양(量)의 문제’가 아니고 선교사의 수준을 높이는 ‘질(質)의 문제’가 되어 버린 이때, 현장 선교사의 성실성(integrity)과 효율성

1) 이현모, 『현대선교학개론』(서울: 침례신학대학교 출판부, 2007), 180.
2) Peter F. Drucker, The Essential Drucker, 이대규 역, 『프로페셔널의 조건: 어떻게 자기실현을 할 것인가?』(서울:청림출판사, 2008), 67.

(efficiency) 제고는 더 이상 늦출 수 없다. 따라서 본 논문은 선교지에서 30~40년 동안 사역해야 하는 선교사들이 업데이트 되고, 업그레йд 되도록 선교단체가 적절한 연장훈련을 제공해야 하는 필요성과 구체적인 접근 방법을 체계적으로 연구하여 제안한 것이다. 이를 위해 국내외 선교단체의 연장훈련 사례를 비교조사하고, 침례교해외선교회(FMB)의 WMTC(세계선교훈련원)의 연장훈련을 회고하려고 한다. 또한 현장 선교사들에게 연장훈련에 대한 필요와 희망에 대한 설문조사를 통해 적절한 연장훈련 방향을 제시하려고 한다.

II. 선교사 연장훈련의 정의와 필요성

1. 선교사 연장훈련의 정의

한국의 선교지도자 최형근은 선교사훈련의 목적을 “선교사들로 하여금 타문화에서 충격의 경험을 자기 성장의 기회로 삼게 만들며 타문화에서 삶과 사역 가운데 오는 다양한 종류의 스트레스를 극복할 수 있는 도구와 기술들을 제공하고 결국에는 효과적인 타문화권 선교사역을 위해 현지문화에 적응함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지상대위임령을 성취하는데 있다.”고 말했다.³⁾

그런 면으로 선교사훈련은 파송전훈련(Pre-field Training)과 현장훈련(on-field Training), 그리고 연장훈련(Continuing Training)으로 구분된다.⁴⁾ 이 연구의 주제인 연장훈련은 재훈련(Re-training) 혹은 ‘안식년 훈련’⁵⁾이라고 불리기도 한다. 하지만 재훈련이라는 단어는 앞의 훈련이 미흡해서 다시 훈련을 한다는 어감이 있어서 연장훈련으로 불리는 것이 적합하다고 본다.⁶⁾ 즉, 연장훈련은 이미 선교지에 나가서 사역하고 있는 선교사가 본국사역기간(안식년)이나 일정 기간 본국에 들어와서 필요한 것을 배우거나 학위과정을 공부하는 것을 말한다.⁷⁾

2. 연장훈련의 필요성

선교사에게 연장훈련은 왜 필요할까? 일찍이 한국선교훈련원(GMTC; Global Missionary Training Center)의 초대원장이었던 이태웅 박사는 선교사 연장훈련의 필요성을 이렇게 피력했다. 첫째 선교사가 현지에서 오랜 시간을 보내다 보면 세상의 변화에 민감하게 반응하지 못하고, 현지인화 될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둘째, 신학교육만으로 국제사회나 선교

3) 최형근, “타문화 선교사 훈련 방법: 한국적 상황을 중심으로”, 『교수논총』 15(2004): 349-371.
4) 최원진, “선교사 연장훈련의 필요와 발전적 제안”, 『복음과 실천』 59(2017): 300.
5) W. Douglas Mackenzie, The Preparation of Missionaries, 이종만 역, 『에딘버러 세계선교사대회 연구 총서 5- 선교사훈련』(서울: 한국연합선교회, 2012): 79.
6) FMB(침례교 해외선교회)에서는 2018년 이후 연장훈련을 MUT(Missionary Upgrade Training)으로 불려왔다. MUT라는 명칭은 선교사들의 성장과 발전에 초점을 맞춘 단어로서 이후에는 이런 명칭 상의 논란이 일어나지 않았다.
7) 최원진, “선교사 연장훈련의 필요와 발전적 제안”, 300.

지의 문화에 적응하기에 불충분하기 때문에, 셋째, 선교지에서 실제적인 체제를 갖추고 행정력을 구비하고 지도력을 발휘해야 하기 때문에, 넷째로 급변하는 선교지에서 효과적으로 사역을 감당해야 하기 때문에 재교육(연장훈련)이 필요하다고 말했다.⁸⁾

‘10년이면 강산이 변한다.’고 한다. 그런데 사람의 수명이 늘면서 사역기간도 길어져서 선교사는 선교지의 강산이 여러 번 변하는 것을 목도하면서 사역해야 하게 된다.⁹⁾ 이런 변화 속에서 선교사는 수십년을 사역하다가 방향을 잃기도 한다. 따라서 선교사를 재무장시킨다는 의미에서 연장훈련은 선교단체와 파송교회 뿐 아니라 선교사들도 그 필요성을 인정한다.

과거 한국교회는 선교의 부흥시대를 지나면서 많은 선교사 헌신자들이 배출되었다. 선교기관은 신입선교사를 현장으로 보내기 위한 ‘파송전훈련’에만 온 힘을 쏟았다. 따라서 ‘선교사훈련=파송전훈련’이라는 등식이 만들어져 버렸다. 하지만 이제 선교사 헌신자가 감소하면서 선교사 훈련기관들도 여유가 생겼다. 더욱이 한국선교가 양(量)보다 질(質)이 중요한 시대로 들어가면서 아직 생소하지만 한국 선교사들의 연장훈련에 힘을 기울여야 할 때가 되었다.¹⁰⁾

3. 선교사 연장훈련의 사례와 평가

1) 국내 선교단체의 연장훈련

Krim(한국선교연구원)과 KWMA(한국세계선교협의회)가 공동으로 조사한 2021년 한국선교사 현황에 의하면 파송된 한국인 선교사는 총 22,210명이며, 선교사 파송단체는 227개이었다. 그 중 35개의 단체에서 선교사훈련(파송전훈련)을 하고 있었고, 27개의 단체에서 연장훈련을 한 것으로 조사되었다.¹¹⁾ 하지만 일부 연장훈련은 선교단체 없이 파송된 선교사를 허입하기 위한 훈련으로 진행되었고, 실제 체계적인 연장훈련 프로그램을 가진 선교단체는 많지 않았다.

선교사 연장훈련으로 분류할 수 있는 훈련은 가장 먼저 시행한 곳은 GMTCC(한국선교훈련원)이었다. GMTCC는 1986년부터 선교사훈련을 실시하였는데, 1994년까지는 1년에 1회(9개월)만 훈련하였다. 1995년부터 상반기 장기훈련(6개월)과 하반기 단기훈련(3개월)으로 나누어 훈련을 하면서 하반기 훈련에는 선교지 경험자를 모집함으로써 연장훈련을 시도하였다.¹²⁾ 하지만 당시는 한국교회의 해외선교 초기이기 때문에 선교사훈련이 제대로 이루어

8) 이태웅, “선교사 재교육 프로그램에 대한 소고”, 『선교연구』32(1996): 1-2.

9) 이병문, “새로운 상황에 대비한 미래지향적 선교사훈련”, 『미시오데이』77(2019.12): 38. 이에 대해 100년 전의 선교사는 25세에 파송되어서 40세까지 15년 정도의 사역기간이 일반적인 반면, 지금은 40세에 파송된다 하더라도 70세까지 30년 이상을 사역하게 되는 현실을 지적했다.

10) 이에 대해 이태웅 박사는 100세 시대의 선교사를 위한 전인관리를 주장했다. 이태웅, “100세를 사는 시대를 위한 전인관리”, 『한국 선교운동과 선교사』(서울: 한국해외선교회 출판부, 2021), 928.

11) Krim, “2021 한국선교현황”, <https://krim.org/2021-korean-mission-statistics>, (2022, 4, 27 접속).

12) GMTCC, <https://gmtc.co.kr/gmtc-%ec%97%b0%ed%98%81/>, (2022, 4, 27 접속).

지지 않아서, 하반기 훈련에는 훈련을 받지 않고 선교지에 파송되었던 선교사들이 많이 입소하였다. GMTCC의 진정한 연장훈련은 2015년 하반기부터 시행된 ‘연장교육’(15주 과정)으로 시작되었다고 볼 수 있다. 이후 현재까지 7년 동안 현장의 선교사를 대상으로 자신의 삶과 선교 사역에 대한 성찰과 평가, 사역 갱신과 방향 조정 및 재설정, 쉼과 재충전을 목적으로 하는 연장훈련을 해왔다.¹³⁾

GMTCC 이외에 연장훈련을 시스템을 가지고 있는 선교단체는 두란노해외선교회 소속 Act29(비전빌리지)이다. 이곳은 파송전훈련(Pr-field Training) 이외에 본국선교사훈련(Home to Home; H2H, 6주)과 본국선교사 리더십훈련(Home to Kingdom; H2K, 4주)이라는 두 가지의 연장훈련 프로그램을 가지고 있다.¹⁴⁾ 본국선교사훈련(H2H)은 온누리교회 파송 혹은 협력파송 선교사로 4년 이상 경력의 선교사를 대상으로 하고 있으며, 이미 10여년 동안 200여명이 수료하였다. 이 훈련은 삶과 사역의 디브리핑, 영육의 회복과 관계의 회복, 재충전, 변화된 세계와 전략의 습득, 사역과 인적 네트워크, 재헌신을 목표로 한다. 또한 본국선교사 리더십훈련(H2K)은 온누리교회파송 장기선교사로서 12년 이상 사역한 선교사이거나 H2H 훈련을 수료하고 이천선교본부로부터 선발된 자를 대상으로 하고 있으며, 2018년에 시작되었다. 이 훈련은 리더십 개발, 팀 사역 개발, 선교 동향과 이슈에 대한 전략 수립, 네트워크 구축을 목표로 하고 있다.¹⁵⁾

사실 안정적으로 연장훈련이 시행되려면, 훈련기관과 커리큘럼 그리고 훈련생이라는 삼박자를 갖추어야 한다. GMTCC는 GMF라는 단체에 소속 되어 있지만, GMTCC 연장훈련이 소속단체의 필수 멤버십 훈련이 아직 아니었기 때문에 현장의 선교사들이 필요에 의해 자발적으로 참석하는 훈련이었다. 그래서 훈련생의 동기유발에는 유리하겠지만, 안정적 훈련생 확보에는 어려움을 겪게 된다. 반면 두란노해외선교회는 한국 선교단체 중에서 가장 확실한 연장훈련 프로그램을 가지고 있는 단체였다.¹⁶⁾ 두란노해외선교회는 Act29라는 훈련기관, 10년 이상의 경험으로 검증된 커리큘럼, 두란노해외선교회의 필수훈련으로 매년 훈련생이 확보되므로, 연장훈련의 삼박자를 모두 갖추고 있어서 안정적인 훈련이 가능했다.

2) 해외 선교단체의 연장훈련 과정

OMSC(Overseas Ministries Study Center)는 선교사의 연장훈련을 전문적으로 하는 미국의 대

13) 변진석, “21세기 한국선교교육과 훈련의 개혁방안: 한국선교훈련원(GMTC)의 사례를 중심으로”, 『미션네트워크(Mission Network)』6(2018, 2): 87.

14) Act29 비전빌리지, <http://www.visionvillage.org/>, (2022, 4, 28 접속).

15) Act29 비전빌리지, H2H(본국선교사훈련) 및 H2K(본국선교사리더십훈련).

16) 연장훈련 현황 조사를 위해 국내 최대의 선교단체인 GMS(총회해외선교회)와 PMS(고신해외선교회) 선교사훈련센터를 방문하고 연장훈련에 대한 프로그램을 질문했으나, 각 단체는 계획 중이거나 이미 선교지에 나가 있는 선교사의 허입을 위한 훈련으로 활용되고 있었다.

표적인 단체이다. OMSC는 1922년에 ‘Society for Foreign Mission Welfare’로 시작되었으며 원래 휴가(안식년) 중인 복미 선교사들이 해외로 돌아가기 전에 건강을 회복하고 영혼을 고양시킬 수 있는 장소를 제공하고자 설립되었다.¹⁷⁾ 지금은 미국 코네티컷 주 뉴헤이븐(New Haven)에 있으며, 과거 프린스턴(Princeton) 신학교와 관련이 깊었지만, 지금은 지리적으로 예일대학(Yale University)과 가까이 있어 학문적인 많은 도움을 받고 있다. 해스팅스(Thomas J Hastings) 원장은 “OMSC는 선교사들이 재충전을 받고 힘을 얻어 집으로 돌아가는 정거장과 같은 곳”이라고 소개하고 있다. OMSC는 창립이후 100여 개국에서 25,000여명의 선교사, 목회자, 교회지도자들이 재충전과 연구 활동을 했다. 한국에서도 100여명의 선교사와 목회자들이 다녀갔다고 한다. OMSC는 저명한 선교저널 IBMR(International Bulletin of Missionary Research)을 발행하는 등 학문적으로도 활발하게 활동하고 있다.¹⁸⁾ 선교사의 연장훈련이라는 측면에서 보면 OMSC는 높은 수준의 학문적 재무장과 휴식을 제공하지만, 다소 신학/선교학 측면으로 강조점이 몰려있고, 여전히 자발적으로 참여하는 선교사를 대상으로 한다는 한계성을 가지고 있다.

IMB(International Mission Board; 미남침례교 해외선교부)는 세계에서 가장 큰 선교단체로 약 3,500명의 선교사가 전 세계에서 사역하고 있다. IMB의 연장훈련은 철저하게 현장 중심으로 이루어진다. 그들은 국제적인 조직이 잘 갖추어져 있기 때문에 현장의 상황에 맞는 훈련이 잘 갖추어져 있어서 본국(미국)에서 하는 훈련이 그다지 필요하지 않았다. 다만 모든 선교사는 5년에 한번은 안식년을 가져야 하고, 그때마다 버지니아의 ILC(international Learning Center)에 입소하여 일주일(5일)의 훈련을 받게 된다. 그 훈련은 예배(찬양과 메시지를 통해 총재/부총재가 선교회의 사명에 대해 재도전), 선교사의 기본 과업 재교육, 국내(미국) 교회들의 연결과 사역동참 방법, 안전 및 보안 교육, 참가자들과의 소그룹 모임 등으로 이루어져 있다고 한다.¹⁹⁾

선교사의 전문성을 위해 많은 교육/훈련이 있다고 알려져 있는 위클리프 성경번역 선교회(Wycliffe Bible Translator)²⁰⁾는 ‘성경 번역’이라는 분야에 국한해서 사역을 하고 있는 단체이다. 성경번역은 매우 전문적인 분야이고 성서학, 언어학, 문화인류학 등의 다양한 학문과 기술이 요구되기 때문에 연장훈련의 중요성이 큰 사역이다. 하지만 이 단체 역시 현장 중심의 연장훈련이 이루어지고 있고, 본부가 일괄적으로 실시하는 훈련은 없다고 한다.

17) OMSC, "History", <https://omsc.ptsem.edu/history/>, (2022. 5. 5 접속).

18) Thomas J Hastings, "정체기 한국교회 목회자에 필요한 건 안식", 「국민일보」(2017년 3월 21일), <http://news.kmib.co.kr/article/view.asp?arcid=0011344141&code=6122111&cp=du>, (2022. 5. 5 접속).

19) IMB 한국본부에 전화 문의(2022. 5. 6) 및 ILC 담당자에 이메일 문의(2022. 5. 6)

20) WBT는 성경번역선교를 위해 국제적인 단체들과 연합사역하기 위해 위클리프 국제 연대(Wycliffe Global Alliance)로 활동하고 있다. 한국에서는 GBT(Global Bible Translator)가 회원단체로 동역하고 있다.

선교사들이 현장에 도착하면, 현장 적응훈련을 하고 현지 언어를 습득하게 된다. 번역사역에 착수하게 되면 선교사의 필요에 따라 다양한 언어학과 성서학을 수강하게 된다. 본부 혹은 현장의 조직은 다양한 세미나를 개최하여 필요한 현장 선교사들에게 지식과 기술을 습득하게 한다. 특이한 것은 본부에서 4년에 1회 모든 선교사들에게 ‘자기개발 계획서’를 제출하게 한다는 것이다. 그를 통해 본부와 현장의 지도자(supervisor)는 선교사들이 적절한 능력을 유지 발전하도록 돕고 필요한 훈련을 권유한다고 한다.²¹⁾

3) FMB의 연장훈련

필자가 속한 침례교해외선교회(FMB)는 1988년에 설립되어서 34년의 역사를 가지고 있고, 파송된 선교사가 760명에 달하는 단체이다.²²⁾ 이는 설립 후 매년 평균 22명의 선교사를 파송했다는 의미인데, 사실 과거에는 2~3년의 단기선교사의 파송이 매우 활발했으므로 매년 평균 30여명의 선교사를 파송했다고 볼 수 있다. 이처럼 많은 선교 헌신자가 있었던 과거에는 선교사를 훈련하여 파송하는 것이 큰 과제였다. 하지만 선교사의 수적 증가가 거의 정체된 이제는 선교사의 수준을 높이는 것이 새로운 과제가 되었다. 이에 따라 FMB 소속의 세계선교훈련원(WMTC)도 연장훈련을 위한 다양한 시도를 하게 되었다.

이에 따라 2016~2017년 동안 연장훈련의 시도가 있어서 2년간 19명이 수료하였다.²³⁾ 하지만 이때는 필요에 따라 선교사가 자발적으로 받는 훈련이라서 신청한 선교사가 많지 않았다. 이후 2018년 10월에 MUT(Missionary Upgrade Training)이라는 명칭으로 새로운 훈련과정으로 재편되어 12명이 수료하였다. 더욱이 2019년 FMB 이사회에서 선교사 연장훈련의 필요성을 인식하고 65세 이전에 필수적으로 수료해야 하는 훈련으로 지정되면서 훈련인원이 증가하여 2019년(15명), 2020년(26명), 2021년(22명)이 수료하게 되었다. 이후 MUT-senior라고 개칭하여, 55~65세 사이에 사역의 종료/이양을 준비하고, 한국의 재적응과 노후를 준비하는 훈련으로 자리 잡았다.

2022년에는 MUT-pro.(Missionary Upgrade Training-professional)이라는 훈련이 시작된다. 이 훈련은 파송 후 만 6-12년 사이에 받는 훈련으로 사역의 방향을 평가하고 재설정하는 훈련이다. FMB는 장차 필수훈련으로 지정할 예정이며, 그래서 FMB 선교사는 평생 3번의 훈련을 필수적으로 받아야 하는 것으로 확정되었다. 선교지에서 받게 되는 현장훈련(On Field Training)까지 포함하여 ‘훈련으로 완성되는 선교사’를 지향하고 있다.

21) GBT 한국본부에 전화 문의(2022. 5. 6).

22) 침례교해외선교회, <https://fmb.or.kr>, (2022. 4. 27 접속).

23) 당시 WMTC 원장이었던 최원진 교수(침신대)는 치밀한 조사와 준비로 훈련을 시작하였지만, FMB의 필수훈련이 아니었던 관계로 훈련인원이 많지 않았다. 이는 선교지의 일정조정이 쉽지 않고, 훈련의 필요성을 절감하지 않는 선교사의 특성상 연장훈련은 반드시 선교기관의 필수훈련으로 자리 잡아야 한다는 것을 반증하고 있다.

III. 연장훈련에 대한 현장 선교사의 설문조사 결과

FMB(침례교 해외선교회)의 WMTC(세계선교훈련원)에서는 선교사 연장훈련을 준비하기 위해 2022년 1월 현장선교사를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하였다.²⁴⁾ 설문조사 표본과 내용은 다음과 같다.

구분	본인(6~12년 경력 선교사)	선배선교사(20년 이상)
모집단	106명(만 6~12년 선교사)	170명(20년 이상의 선교사)
표본(응답자)	37명	37명
응답율	34.9%	21.8%
설문	질문 15문항 ²⁵⁾	질문 16문항(10문항은 동일 질문)
성별	남 28(75.7%), 여 9(24.3%)	조사하지 않음
결혼여부	기혼 36(97.3%), 싱글(2.7%)	조사하지 않음
연령	평균 49.5세(40대 59.5%, 50대 32.4%, 무응답 8.1%)	평균 58.5세(40대 8.1%, 50대 48.6%, 60대 이상 29.7%, 무응답 13.5%)
선교지 연차	평균 10.5년 (10년 미만 73.0%, 10년 이상 27.0%)	평균 22.1년 (10년 이내 5.4%, 11~20년 27.8% ²⁶⁾ , 21~30년 40.5%, 30년 이상 16.2%)

〈표-1. 선교사 연장훈련을 위한 설문조사(2022. 1)〉

설문조사의 결과 매우 흥미로운 여러 가지 사실을 발견하였고, 특히 연장훈련 대상자(6~12년 경력 선교사)와 선배선교사(20년 이상)의 견해에 미묘한 차이가 있다는 것을 발견하였다. 설문 조사 결과는 다음과 같다.

1. 현재 선교지에 겪는 어려움은 무엇입니까?

(선배에게는 '6~12년 선교사가 선교지에서 겪는 어려움은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로 물음)

24) 본 조사는 구글에서 제공하는 설문조사를 사용하여 ① 파송 만 6~12년을 대상으로 하는 설문조사와 ② FMB 소속으로 선교지에 파송 20년 이상의 선배 선교사를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2022.11.~1.27 동안 진행되었다. 이 설문 조사에 각각 37명이 응답하였고, 훈련을 위한 자료로 활용하고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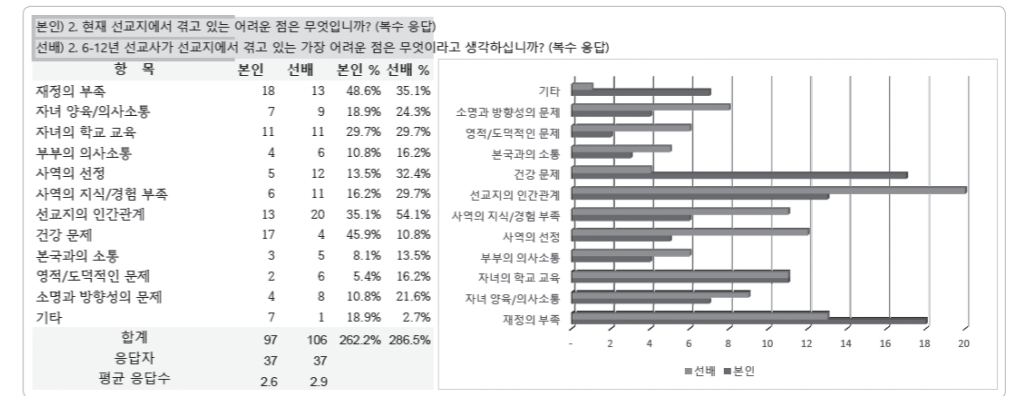
6~12년차 대상 <https://docs.google.com/forms/d/1BqIFCYxNRtigmFST59zqDdH-HwIqr-jTXP3piKlBJCs/edit>

20년 이상 <https://docs.google.com/forms/d/1UjBDzk1YgeZxVaam9WOF9o2iIMNJFxT7XjeFF7PRjSQ/edit>

25) 설문은 총 15문항이었으나 본 논문에서는 연장훈련과 직접 관련이 있는 8개 문항만을 수록하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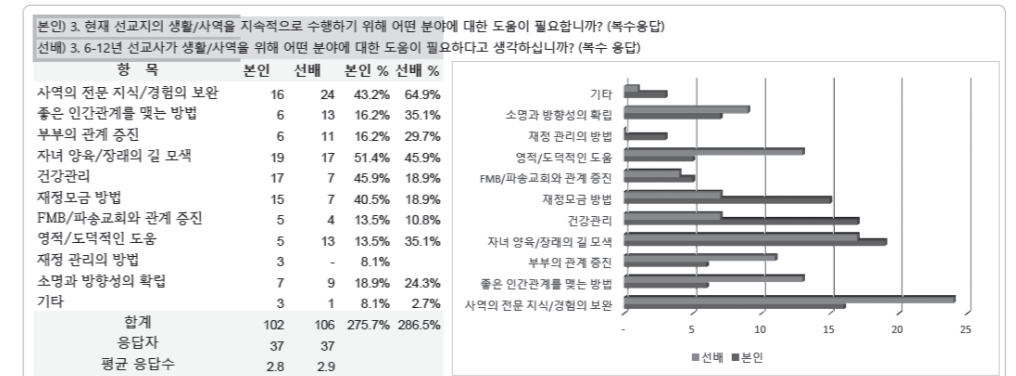
26) 원래는 20년 이상의 선교사에 국한하려고 했으나, 원활한 연락을 위해 지난 3년간 MUT훈련(55세 이상)을 대상으로 하는 FMB 선교사 연장훈련) 참석자를 대상으로 하였기 때문에 20년 미만의 선교사가 1/3 정도 포함되었으나 응답 내용에는 큰 차이가 없었으므로 조사결과에 포함시켰다.

선교지에서 6~12년 된 선교사가 겪는 가장 큰 어려움은 무엇인지를 묻는 질문(복수응답)에 본인들은 재정 부족(48.6%), 건강 문제(45.9%), 선교지의 인간관계, 자녀의 학교 교육 문제를 꼽았다. 반면 선배들의 답은 선교지의 인간관계(54.1%), 재정 부족(35.1%), 사역의 선정 등이었다. '재정 부족'문제는 공통적으로 지적하고 있었으나, 다른 문제는 본인과 선배들 사이에는 미묘한 차이를 발견하게 되었다. 즉 '선교지의 인간관계'를 공통적으로 지적하기는 했으나, 정도의 차이가 커서 선배는 이 문제를 첫번째(54.1%)로 지적한 반면, 본인들은 세 번째(35.1%)로 지적하고 있었다. 그리고 건강의 문제는 본인들은 45.9%로 높게 지적 했지만, 선배들은 10.8%로 큰 문제로 지적하고 있지 않다는 점 등이었다.



〈그림 1. 선교지에서 겪는 어려움〉

2. 현재 선교지의 생활/사역을 지속적으로 수행하기 위해 어떤 분야에 대한 도움이 필요하다고 생각하십니까? (복수응답 3가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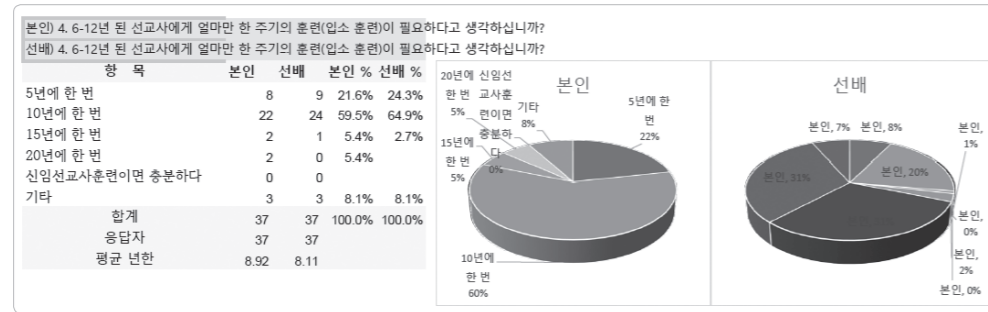


〈그림 2. 선교지에서 필요한 도움〉

선교지에서 6~12년 되었을 때 필요한 도움에 대해 본인들은 자녀양육/장래의 길 모색

(51.4%), 건강관리(45.9%), 사역의 전문 지식/경험의 보완(43.2%), 재정모금 방법(40.5%)을 꼽았다. 하지만 선배들은 사역의 전문 지식/경험의 보완(64.9%)을 압도적으로 높게 꼽았고 또한 자녀양육/장래의 길 모색(45.9%), 좋은 인간관계를 맺는 방법(35.1%), 영적/도덕적인 도움(35.1%)을 꼽았다. 이로 볼 때, 본인들은 자신과 자녀의 문제와 자신의 현실 문제에 집중하는 반면 선배는 후배들이 사역적으로 미숙하다고 느끼고 있음을 발견하게 되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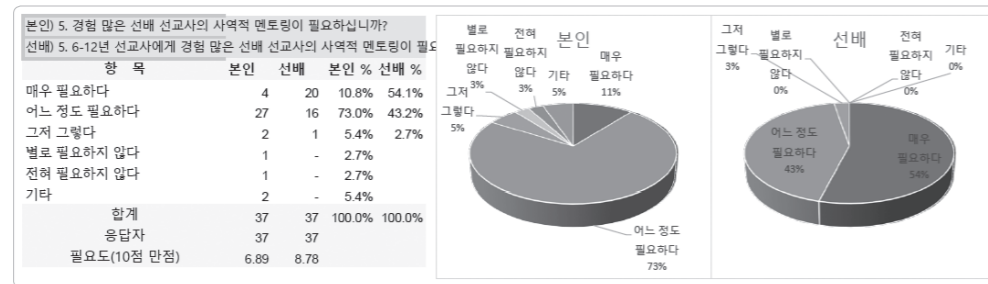
3. 선교사에게 얼마만 한 주기의 훈련(입소 훈련)이 필요하다고 생각하십니까?



〈그림 3. 선교사에게 필요한 훈련의 주기〉

선교사에게 필요한 입소훈련 주기를 묻는 질문에 본인은 평균 8.9년, 선배는 8.1년으로 비슷하게 나타났다. 선교사들은 10년에 한번 정도의 훈련이 필요함을 인정한다고 볼 수 있다.

4. 경험 많은 선배선교사의 사역적 멘토링이 필요하십니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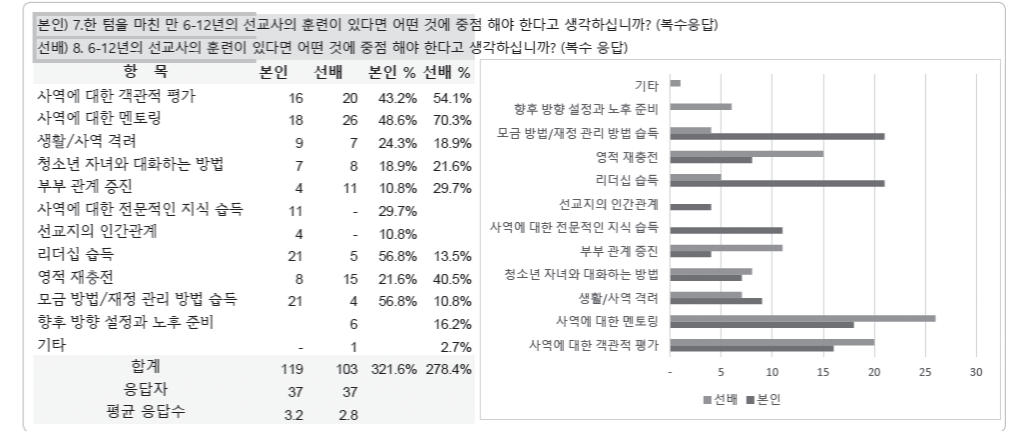


〈그림 4. 선배의 사역적 멘토링 필요성〉

선배 선교사의 사역적 멘토링의 필요에 대한 질문에는 본인과 선배 공히 필요하다고 응답

했다. 하지만 그 정도는 차이가 있어서 본인은 10점 만점에 6.89점으로 어느 정도 공감하는 반면, 선배는 8.8점으로 매우 필요하다고 생각하고 있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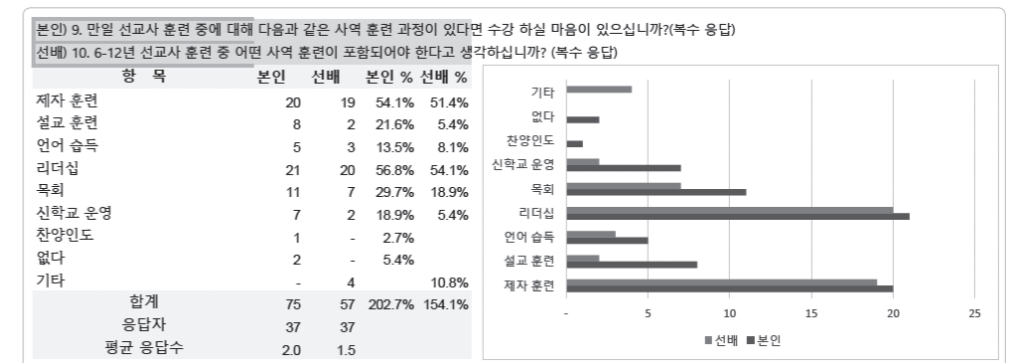
5. 선교지에서 한 팀을 마친 만 6-12년의 선교사의 훈련이 있다면 어떤 것에 중점 해야 한다고 생각하십니까? (복수 응답 3가지)



〈그림 5. 연장훈련의 중점〉

6-12년차 선교사를 대상으로 한 연장훈련에 중점해야 할 내용을 묻는 질문에 본인은 리더십 습득(56.8%), 모금/재정 관리 방법(56.8%), 사역 멘토링(48.6%), 사역 평가(43.2%)로 대답했다. 반면 선배는 사역 멘토링(70.3%), 사역 평가(54.1%), 영적 재충전(40.5%)로 답하여 본인보다 사역에 초점이 맞추어지는 경향을 보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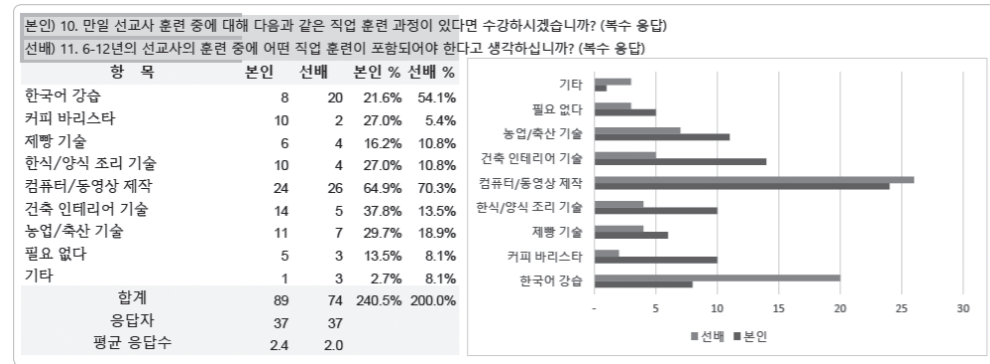
6. 만일 선교사 훈련 중에 다음과 같은 사역 훈련 과정이 있다면 수강 하실 마음이 있으십니까?(복수 응답)



〈그림 6. 연장훈련 중의 사역훈련〉

연장훈련 중에 어떤 사역 훈련의 필요에 대한 질문에 본인과 선배 공히 ‘리더십’과 ‘제자훈련’이라고 했으며, 본인 중 일부는 ‘목회와 설교’에 대한 필요를 표시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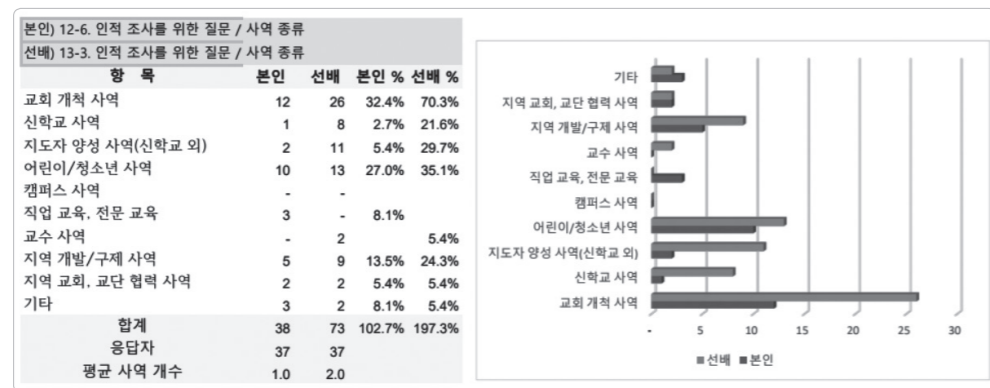
7. 만일 선교사 훈련 중에 대해 다음과 같은 직업 훈련 과정이 있다면 수강 하실 마음이 있으십니까? (복수 응답)



〈그림 7. 연장훈련 중의 직업훈련〉

사역훈련 이외에 직업적 훈련에 대한 필요를 묻는 질문에 본인과 선배 공히 ‘컴퓨터/동영상 제작’에 대한 필요를 제일로 꼽았다. 그 외에 선배들은 ‘한국어 강습’(54.1%)을 꼽았는데, 상대적으로 본인들은 낮은 필요를 피력하여 의외였다. ‘건축인테리어’, ‘농업기술’, ‘커피 바리스타’, ‘한식/양식 조리’ 등 다양한 필요를 들었다. 본인들의 사역 환경에서 필요한 것을 꼽는 것 같았다.

8. 선교 현장에서 어떤 사역을 하고 있습니까?



〈그림 8. 현장에서 하고 있는 사역의 종류〉

선교지에서 하고 있는 사역에 대한 질문에 대해서 본인들은 평균 1.0개의 사역을 하고 있었고, 선배들은 평균 2.0개의 사역을 하고 있었다. 본인들의 사역은 ‘교회개척’(32.4%), ‘어린이/청소년 사역’(27.0%)를 하고 있었다. 그런데 본인들의 ‘어린이/청소년 사역’, ‘지역개발/구제사역’ 등의 사역은 독자적인 사역이기 보다 교회개척의 종속사역이거나 플랫폼 사역인 경우가 많아서 아직 사역에 깊이 들어가지 못했음을 암시하고 있었다.

IV. 선교사 연장훈련의 발전적 제언

1. 효과적인 연장훈련의 필수 조건

연장훈련의 사례와 현지 선교사들의 희망을 조사 분석하면서 선교사 연장훈련을 효과적으로 실시하려면 3가지의 필수 조건이 선행되어야 함을 발견했다. 그것은 첫째 훈련단체와 훈련시설이고, 둘째 훈련 프로그램(커리큘럼)과 훈련자이며, 셋째 훈련생의 안정적인 확보이다. 이제까지의 연장훈련이 정착하지 못하고 어려움을 겪는 이유는 이 조건이 만족되지 못한 채로 시행되었기 때문이다.

1) 훈련단체와 훈련시설(training organization and facilities)

훈련단체와 훈련시설은 안정적인 훈련을 위해 필수적 요소이다. 특히 연장훈련에서는 선교지에서 피곤한 심신에 휴식을 제공해야 하기 때문에 편안함을 주는 시설이 필요하며, 시설과 훈련을 안정적으로 유지 발전시키는 단체와 조직이 있어야 한다.

특히 선교사훈련은 성인교육의 필수적 요소인 ‘전인적 훈련(integral training)²⁷⁾이 이루어지기 때문에 훈련시설과 프로그램이 잘 조화를 이루어야 한다. 이런 훈련이어야 선교사에게 안정감을 주고 변화에 대한 욕구를 도전하게 되기 때문이다. 더욱이 수준 높은 훈련이 하루아침에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므로 경험이 축적되고 연구하는 조직이 있어야 한다.

2) 훈련 프로그램과 훈련자(training curriculum and trainer)

선교단체가 선교사 연장교육을 지속적으로 연구 발전시키기 위해 전문적인 인력이 있어야 한다. 처음 한국에 선교사훈련이 시작되었을 때에는 선교학자들의 역할이 컸다. 이제 한국의 해외선교가 30년의 역사를 넘어서면서, 한국 선교단체의 행정인력, 훈련자들 대부분이 선교사 출신으로 교체되고 있다. 그 결과 선교훈련이 이전보다 실재적, 현장 중심으로 변하고 있지만 선교사 출신의 훈련자들은 선교학자들에 비해 시야가 좁은 단점이

27) Robert Brynjolfson, “전인적 선교훈련을 향한 여정”, Integral Training, 변진석, 엄주연 역, “전인적 선교훈련 어떻게 할 것인가?”, (서울: 한국해외선교회, 2013), 78.

있다. 따라서 여전히 선교학자와 선교사, 그리고 교회 목회자가 협력하는 훈련 프로그램이 가장 바람직하다고 볼 수 있다.

또한 선교환경이 급변하고 있기 때문에 선교사훈련의 방향도 변화되어야 하며, 선교훈련자 혹은 훈련기획자는 유연하고 변화에 민감해야 한다. 4차 산업혁명과 코로나-19가 디지털화, 비대면화를 촉진시켰고, 그에 따라 선교사훈련의 방향도 변화되어야 한다는 것은 누구나 동의한다. 하지만 ‘어떻게?’라는 질문에는 명확한 답을 내어놓지 못하고 있다. 필자는 향후 선교사훈련에 있어서 ‘전인적 훈련’이라는 철학과 ‘비대면 훈련’이라는 방법론이 충돌할 것이라고 본다. 왜냐하면 전인적 훈련을 위해서는 대면훈련/입소훈련이어야 하지만 변화의 큰 흐름은 비대면화이기 때문이다. 문제는 이 두 가지 중 하나가 다른 하나를 흡수할 수 없다는 것이다. 그렇다면 선교훈련기관은 시설을 가지고 함께 생활하며 훈련하는 전인적 훈련과 인터넷으로 강의를 송출하는 비대면 훈련을 병행해야 할 것으로 본다. 선교훈련기관도 공통처럼 느린 동작으로 변화에 적응하지 못하고 불필요한 존재가 되지 않기 위해 변화를 수용하는 몸부림이 있어야 한다.

3) 훈련생(Trainee)의 안정적 확보

아무리 좋은 시설과 프로그램이 있어도 훈련생을 안정적으로 확보할 수 없으면 훈련은 존재할 수 없다. 사실 교육기관은 근본 원인이 어디에 있든 최종적으로 학생의 확보가 안 되어 문을 닫게 된다. 선교사 훈련기관도 마찬가지이다. 하지만 현장에 이미 나가 있는 선교사들은 현장 사역여건이나 자녀 교육 문제로 한국에 들어와서 훈련 받는 것이 쉽지 않다. 심지어 연장훈련이 필요하다는 것을 인정한 선교사들도 안식년에 연장훈련 받는 것에 익숙하지 않다. 그런 면으로 선교단체는 연장훈련을 모든 선교사가 필수적으로 받도록 제도화하는 노력이 필요하다. 필수가 아닌 연장훈련이 훈련생 모집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것은 이것을 반증하고 있다.²⁸⁾

하지만 필수훈련이 되면 훈련의 동기유발이 약해지고 이는 훈련의 효과와 직결된다. 따라서 선교기관들은 연장훈련을 필수훈련으로 규정하기 전에 홍보를 통한 기대감 유발 및 훈련수료자 우대와 재정 지원책 등을 준비해야 한다.²⁹⁾ 또한 선교사를 격려하고 재충전하며, 확실한 효과를 낼 수 있는 좋은 훈련 커리큘럼을 먼저 준비하고 나서 필수훈련으로 지정해야 할 것이다.

28) 파송전훈련이 이제 한국선교사에게 정착된 것은 대부분의 선교단체에서 필수훈련으로 조건을 내걸었기 때문이다. 연장훈련도 마찬가지로 한국에서 유일하게 두란노해외선교회는 2종류의 연장훈련을 필수훈련으로 규정하였기 때문에 안정적으로 연장훈련을 실시하고 있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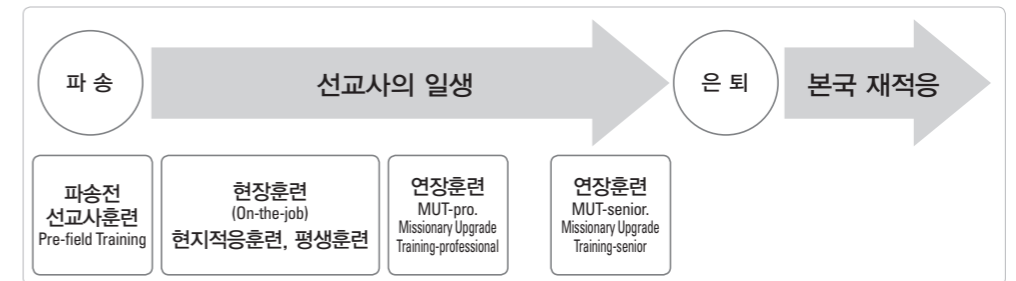
29) 침례교해외선교회 해외선교훈련원(WMTC)에서는 연장훈련 전에 파송교회에 훈련비 부담에 대한 공문을 발송한다. 각별한 사정이 있는 곳을 제외하고 모든 교회에서 선교사의 훈련비를 부담해주고 있다.

2. 효과적인 연장훈련 방법 제안-FMB/WMTC의 연장훈련을 중심으로

효과적인 선교사연장훈련은 어떤 훈련일까? 훈련의 디테일은 훈련의 경험이 쌓이면서 함께 축적된다. 하지만 처음부터 올바른 방향을 잡아야 목표에 도달할 수 있으므로 방향이 매우 중요하다. 선교사를 위한 연장훈련을 준비하고 시행할 때 고려할 중점사항을 다음과 같이 제안한다.

1) 선교사의 일생 주기에 맞춘 훈련

선교사의 연장훈련은 선교사의 일생의 주기에 맞추어 준비되어야 한다. 어차피 선교사의 대량 증가는 이제 기대하기 어려워졌다. 설상가상으로 최근 선교사 지망자들은 한국선교 초기의 선교사 지망자들에 비해 기본이 다소 떨어진다는 평가이다.³⁰⁾ 어려운 환경에 대한 적응력도 떨어지며, 전도훈련, 제자훈련 양육 등의 기본적인 부분이 덜 갖추어져 있다고 우려하고 있다.³¹⁾ 따라서 선교사의 질을 높이기 위해서 지속적인 훈련 즉, 연장훈련이 필요하다는 것이 이 논문의 핵심 논지이다. 선교지에서 보낼 시간이 길어진 지금 선교사의 일생에 맞춘 멤버케어와 선교훈련을 제공해야 하는 것이 선교단체의 중요한 임무가 되었다.³²⁾



〈그림 9. FMB의 선교사훈련 도표〉

많은 논의 끝에 FMB는 소속 선교사들의 일생 동안에 받아야 하는 훈련을 결정했다. FMB 소속 선교사는 일생동안 총 3회의 입소훈련과 현장훈련을 받아야 한다. 즉, FMB 선교사로 허입되기 이전에 ‘파송전훈련(Pre-field Training)’을 받아야 하고, 6년이 지나고 나서 1차 연장훈련인 MUT-pro. (Missionary Upgrade Training-professional)라는 훈련을 받아야 하며, 65세가 되기 이전에 2차 연장훈련인 MUT-senior(Missionary Upgrade Training-senior)

30) 최원진, “한국 침례교 선교동원과 훈련을 위한 전략적 제안”, 『복음과 실천』61(2018, 4): 251.

31) 선교사훈련단체에서 사역하면서 관찰한 바에 의하면 최근 선교사 자원은 20~30년전에 비해 국제 감각과 전문적 기술(예를 들어 영상, 음악 등)은 뛰어나지만, 헌신도와 선교의 핵심인 전도/양육경험이 부족하다는 것을 발견한다. 이는 21세기에 들어 교회가 퍼포먼스 형태의 예배를 추구하면서 설교자와 찬양인도자 및 영상/음향전문가를 양산한 반면 전도자, 제자훈련가를 양성하지 못한 결과도 있다고 본다.

32) GMTC 변진석 원장은 “선교사훈련은 전 생애를 아우르는 전망을 갖도록 훈련해야 한다.”고 했다. “변진석, “선교사 훈련-타문화 사역을 위한 변화와 성장의 기초”, 『선교와 신학』28(2011, 8): 46.

라는 훈련을 받아야 한다. 또한 현장에서 인터넷으로 현장훈련(On field Training)을 받게 된다. 이를 통해 ‘훈련으로 완성되는 선교사’를 지향하고 있다.³³⁾

2) 각 훈련의 차별적 특성

선교사들이 일생동안 받아야 하는 각각의 훈련은 그 시기의 선교사들에게 유익하고 좋은 효과를 내어야 한다. 특히 연장훈련이 기존 훈련의 반복이 되지 않도록 유의해야 한다. FMB의 각 훈련의 특징과 목표를 다음과 같이 정리하였다.

	훈련 종류	시기	적정기간	시행시기	중점
입소 훈련	파송전훈련 (Pre-field Training)	파송직전	12주	1998년~	선교사 신분에 대한 이해 생활과 사역의 통합적 준비
	1차 연장훈련 (MUT-professional)	6-12년차	5주	2022년	현장 적응/언어 습득 후 사역 평가와 방향의 재설정 중년부부/청소년 가정의 준비
	2차 연장훈련 (MUT-senior)	60-65세	4주	2018년	선교사역의 이양/종료와 본국 재정착 준비
현장훈련 (On field Training)		도착직후	2주	2022년	현지의 적응을 도움 선교사의 선교팀과 관계 형성
		2-10년차	매년 2시간X5회	2023년	필요한 추가지식 습득 상위학위 취득

〈표-2. FMB의 선교사훈련(입소) 내용〉

크게 3회의 입소훈련(합숙)과 1회의 현장훈련이 있다. 입소훈련은 파송 전, 파송 후 6-12년, 은퇴 5년전으로 구분된다. 선교사의 사역기간을 30년으로 본다면 10~15년에 한 번 씩 훈련을 받는다는 의미이다. 그때마다 선교사는 각각 다른 인생/가정의 문제와 사역의 과제를 가지게 되는데, 각 훈련이 이런 선교사의 과제를 적절하게 도와줄 수 있는가에 성패가 달려있다.

세 번의 입소훈련의 특성은 다음과 같다. 첫째, 파송전훈련의 참석자는 30~40대가 대부분이므로 어린 자녀를 동반한 젊은 부부에 초점을 맞춘다. 그들은 선교적 열정을 가지고 있으나 타문화 사역경험이 부족하다. 따라서 먼저 소명과 선교사 삶의 베이스를 점검하고, 인생과 가정을 설계하도록 하며, 타문화 사역을 이해하고 준비하게 한다. 이를 위해 공동생활을 통한 일상훈련(informal training)과 예배와 토론, 상담을 통한 비공식훈련(mono-

33) 이외에 현장의 리더십으로 임명되기 전에 받는 훈련(Leadership Training)이 있으나 이것은 그 해당자만 받는 훈련이므로 연장훈련의 범주에 넣지 않았다.

formal training), 강의를 통한 공식훈련(formal training)을 적절히 조화하게 된다.³⁴⁾ 둘째, 현장에서 6~12년 경력 선교사를 대상으로 하는 MUT-pro. 훈련은 40~50대로서 청소년 자녀를 가진 가정이 중심이 된다. 이들은 이미 언어습득과 현장 적응이 완료되었고, 사역이 시작되었으나 다양한 사역적 문제에 봉착해 있을 가능성이 많다. 따라서 먼저 사역에 대한 객관적/주관적 평가를 하여 사역의 장기방향을 재설정하게 하고, 중년/청소년 가정으로서 준비하게 한다. 이를 위해 강의보다는 자기평가와 디브리핑, 멘토링과 상담에 초점을 맞추게 된다. 셋째, 은퇴 전에 받는 MUT-senior 훈련은 60~65세의 사역의 정리와 이양 및 한국 재정착을 준비하는 선교사를 위한 훈련이다. 이들을 위해서는 현장사역의 정리와 이양을 돕고, 사역의 회고를 통해 격려하고 한국의 재정착을 준비시키는 것이 중요한 목표가 된다. 이를 위해 디브리핑과 회고, 자율적 연구를 주요한 방법으로 한다. 즉, 파송전훈련은 ‘베이직(영성, 사역능력 점검, 타문화 습득 등)’에 초점이 맞추어져 있는 반면, 1차 연장훈련(MUT-pro.)는 ‘사역 평가와 전개’에 초점을 맞추며, 2차 연장훈련(MUT-senior)는 ‘선교사의 일생’에 초점이 맞추어져 있다. 그런 특성이 잘 살려지지 못하면 세 훈련이 유사해져서 효과를 충분히 내지 못하게 된다. 연장훈련은 파송전훈련과 차별되는 분명한 차이점을 가지고 있어야 한다.

3) 선교사의 사역 평가

연장훈련의 또 하나의 특징은 선교사역에 대한 평가가 이루어져야 한다는 점이다. 파송 전 훈련은 떠나기 전이므로 이후 상황에 불확실성이 너무 많다. 더욱이 각 훈련생은 다양한 나라로 흩어지게 되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공통점에 초점을 맞추게 된다. 하지만 연장 훈련은 이미 시작된 사역을 객관적으로 평가하고 방향을 재설정하게 하는 것이 중요한 과제가 된다.

그런데 이미 수년간 하나님의 부르심으로 믿고 진행해 온 사역을 어떻게 평가할 것인가? 또한 선교사들은 그 평가를 수긍할 것인가? 만일 연장훈련에 참석한 선교사가 그 평가를 받아들이지 못한다면 그 뒤의 훈련은 제대로 이루어지지 못할 것이다. 즉, 연장훈련(특히 6-12년차가 참석하는 MUT-pro. 같은 훈련)은 ‘사역평가’가 관건이다.

이현모는 사역평가의 중요성과 함께 사역평가의 방법론을 제시했다.³⁵⁾ 매우 자세한 평가 방법이지만 아직 제도적으로 활용되지 못했다는 한계가 있다. FMB의 연장훈련은 객관적

34) Robert Brynjolfson, "전인적 선교훈련을 향한 여정": 131.

35) 이 분야에 대해서 이현모 교수(당시 WMTC 원장)는 한국적인 선교사 사역평가 방식을 총 6가지 분야의 평가를 제안했다. 그것은 첫째 언어 습득, 둘째 문화 적응, 셋째 사역 내용, 넷째 인간관계, 다섯째 재정 관리, 여섯째 자기 관리의 영역이다. 이현모, "한국형 선교사사역 평가", 『복음과 선교』8(2007): 96-121.

인 선교사 사역평가 방법이 적용되고, 경험을 축적하는 중요한 기회가 될 것이다.³⁶⁾

4) 자기주도적 훈련(Self-directed training)

연장훈련은 스스로 체득하는 자기주도적인 훈련이어야 한다. 찰스 밴 엔겐(Charles Van Engen)은 선교사 훈련의 형태를 다섯 가지로 구분한다. 도제 모델(the apprentice model), 수도원 모델(the monastic model), 대학 모델(the university model), 신학교 모델(the seminary model), 전문가 개발 모델(the professional development model)이다.³⁷⁾ 선교사훈련은 신학교의 교육을 타문화 중심으로 바꾼 것으로 처음 시작되었기 때문에 사실상 신학교 모델(the seminary model)에 가까웠다. 이에 대해 최원진은 전문화된 선교기관을 통한 선교훈련이 적합하다고 주장한다.³⁸⁾ 이런 훈련 기관을 통한 훈련이 발전하면서 차츰 영성, 인성이 지식보다 중요하다는 것을 인식하면서 선교사훈련은 '전인적 훈련(integral Training)'의 방향으로 발전해 갔다.³⁹⁾ 한편 선교사 연장훈련은 원래 교육학 상 '성인교육'에 해당한다. 더욱이 인생 가운데서도 많은 생각을 가지게 하는 성인중기~후기에 해당되는 기간이므로 스스로 깨닫고 결정하게 해야 한다.⁴⁰⁾ 성인교육은 안드라고지(Andragogy)에 속하기 때문에 주입식 교육으로는 한계가 있고, 스스로 생각하고 토론하는 교육이어야 한다.⁴¹⁾ 특히 연장훈련은 현장의 다양한 경험을 가진 전문가들을 훈련하는 것이므로 학습자의 학습능력 수준에 절대적으로 의존하는 '자기주도적 학습'을 바람직한 방법으로 제시한다.⁴²⁾ 이는 과업이 복잡하고 개인의 학습능력이 높은 학생들일수록 스스로 연구하고 토론하여 습득하는 '자기주도적 학습'이 적합하기 때문이다.⁴³⁾

그런 면으로 선교사 연장훈련은 강의 중심의 교육보다는 스스로 깨닫고 연구하며 자신의 길을 재설계하는 과정이어야 한다. 따라서 안목을 제공하는 강의가 필요하지만 그보다 디브리핑과 나눔의 시간을 통해 스스로의 한계를 발견하고, 그에 맞는 발전 방향을 스스로 도출하게 만드는 것이 중요하다. 그러므로 훈련의 분위기를 나눔과 토론, 연구와 발표

36) 이를 위해 FMB/MMTC에서는 전문가의 자문을 얻어 우선 전선교사의 평균 수치를 도출하고 있다. 즉, 각 평가항목에 대해 객관적인 기준이 존재해야만 자신이 어느 위치에 있는지를 알게 되기 때문이다. 훌륭한 업적을 남긴 선배(멘토)들이 사역에 대해 평가해주고 지도해주는 것을 마련하고 있다.

37) Charles Van Engen, Mission on the Way: Issues in Mission Theology. (Grand Rapids: Baker Book House, 1996), 240-252.

38) 최원진, "21세기 선교현장에 맞는 한국 선교사를 위한 선교훈련", 『복음과 선교』24(2013): 234.

39) 최원진, "21세기 선교현장에 맞는 한국 선교사를 위한 선교훈련" 235.

40) 이에 대해 교육학자 레빈슨(Levinson)은 성인기를 사계절로 구분하였는데, 연장훈련을 받는 선교사는 40대 후반으로 성인후기에 들어서는 전환점을 맞게 되고, 육체 심리적으로도 갱년기를 맞게 된다.

권두승 조아미, 『성인학습 및 상담』(서울: 교육과학사, 2021), 117.

41) 안드라고지(Andragogy)는 성인교육을 의미하는 단어로 아동교육/일방적 교육을 의미하는 페다고지(pedagogy)와 대조가 되는 단어이다. 권두승 조아미, 『성인학습 및 상담』, 141.

42) Confessore, Gray 외, Guideposts to Self-Directed Learning. 김지웅 김지자 역, 『자기주도학습의 길잡이』(서울: 교육과학사, 1996), 77.

43) 차갑부, 『성인교육방법론』(서울: 양서원, 1997), 69.

방식으로 디자인해야 한다. 특히 모범이 되는 선배가 함께 와서 멘토로서 후배 선교사들의 사역평가와 연구를 돕는 것이 적합하다고 본다.

5) 비대면(인터넷) 현장훈련 제공

4차 산업혁명이 가져온 디지털 세상은 맹위를 떨친 코로나-19의 영향으로 더욱 빠른 속도 우리 생활에 가까이 왔다. 이제는 전문용어인 AI(인공지능)나 메타버스(Metaverse)정도는 익숙한 단어가 되었으며, 핸드폰 송금이나 줌(Zoom)을 통한 인터넷 만남은 노인에게도 익숙하게 되었다.

이런 디지털화의 변화는 선교현장에서 더 큰 영향을 미치고 있다. 물론 선교지의 전도나 선교사훈련처럼 비대면으로 완전 대체할 수 없는 것이 있다는 것을 인정한다. 하지만 인터넷의 만남은 선교지와 만남을 크게 확대시켰다. 예를 들어 요즘 전 세계의 선교사들과의 만남이 훨씬 자주 일어나고 있으며, 참석도 과거와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좋아졌다. 인터넷 강좌가 매우 활발해졌다는 것도 코로나가 가져온 일상의 변화임이 분명하다.

이런 변화의 물결은 선교사훈련에도 큰 영향을 미쳤다. 선교사훈련은 전인적인 훈련을 목표하기 때문에 비대면훈련에 한계가 있지만, 현장의 선교사에게 필요한 지식을 제공하는 것은 인터넷으로도 충분히 가능하다. 이에 따라서 FMB에서는 2023년을 목표로 선교사가 받는 현장훈련을 준비하고 있다. 선교지에 도착한 선교사가 2년차부터 10년차까지 매년 10시간(매주 2시간씩 5주) 강의를 수강하는 것을 기본계획으로 한다.⁴⁴⁾

기술적으로 선교 현장에서 인터넷으로 수강할 수 있는 과정을 개설하는 것은 크게 두 가지 방식이 있다. 하나는 실시간 방식(streaming)⁴⁵⁾과 동영상 방식⁴⁶⁾이 있다. 실시간 방식은 질문과 토론이 가능하다는 장점이 있지만 전 세계에 흩어져 다른 시간 속에 살고 있는 선교사에게는 현실적인 방법이 아니다. 따라서 선교사 현장훈련은 이미 준비된 동영상을 원하는 시간이 보게 하는 방식이 될 것이다. 하지만 이 경우 콘텐츠(강의)와 수강여부, 과제 등을 관리하는 전문적인 플랫폼이 구축되어야 한다는 부담이 있다.⁴⁷⁾

44) 이를 위해 2022년 2월 별도의 설문조사를 통해 선교사들이 희망하는 과목을 조사하였다. 선교사들이 현장에서 수강하기 원하는 과목(복수응답)은 다음과 같았다. ① 사역 멘토링(59.2%), ② 대인관계-갈등해결(46.9%), ③ 선교사의 노후관리(42.9%), ④ 영상편집(38.8%), ⑤ 최신 선교학의 동향(36.7%), ⑥ 리더십(32.7%), ⑦ 선교지의 위기관리(32.7%), ⑧ 부부의 관계(30.6%)이었다.

45) 이를 스트리밍(streaming;음악 파일이나 동영상 파일을 스마트폰 따위의 휴대용 단말기나 컴퓨터에 내려 받거나 저장하여 재생하지 않고, 인터넷에 연결된 상태에서 실시간으로 재생하는 일. 또는 그런 재생 기술이나 기법)이라고 한다(두산백과사전). 일반화된 Zoom을 통한 만남이 대표적인 스트리밍 방식이다.

46) 유튜브처럼 원하는 시간에 수강하는 방식을 말한다. 교육계에서 흔히 사용하는 LMS(Learning Management System)는 온라인으로 학생들의 성적과 진도, 출석 등을 관리해주는 시스템으로 학교와 물론 기업과 공공기관에서도 사용된다(두산백과사전).

47) FMB 소속의 MMTC에서는 관리 가능한 플랫폼을 구축하고, 2023년부터 단계적으로 강의(콘텐츠)를 제공하는 것을 계획하고 있다. 그를 위해 전문 인력을 구축과 커리큘럼을 준비하고 있다. MMTC는 선교사 설문조사와 전문가의 자문을 통해 모든 강의는 인터넷으로 진행되며, 현장에 도착한 선교사는 2~10년 동안 매년 필수적으로 한 과목을 수강해야 하는데, 모든 과목은 2시간*5주간(10시간)으로 구성하기로 했다. 예상 과목은 언어습득/현지적응, 선교지의 종교/세계관 연구방법론, 사례 연구-교회개

V. 나가는 말

장차 한국인 선교사수는 정체 혹은 감소할 것으로 예상된다. 따라서 한국교회의 해외선교는 질적 향상에 사활이 달려있다. 앞으로는 훈련을 통해서 선교사의 수준을 높이고, 선교사가 현장에서 더 효율적인 사역을 하게 해야 한다. 더욱이 선교현장이 빠르게 변화하고 있기 때문에 선교사는 현재에 안주하지 않기 위해 지속적인 업그레이드가 되어야 한다. 여기에 연장훈련의 필요성이 생기는 것이다.

하지만 연장훈련을 체계적으로 하고 있는 선교단체는 흔치 않았다. 이제 선교단체는 선교사의 인생주기, 사역주기에 맞추어 훈련을 제공해야 한다. 필자는 선교사가 10~15년에 한 번씩 연장훈련을 통해 부단히 업그레이드 되도록 평생 3회 정도의 훈련을 받기를 권한다. 비슷한 훈련을 반복하지 않기 위해서 각 훈련은 현장의 필요에 근거하여 특성화되어야 한다. 하지만 세상의 변화에 따라 대면훈련(입소훈련)과 비대면훈련(현장훈련)을 병행하도록 변화되어야 한다. 특히 단순한 지식적 업데이트는 비대면 훈련으로도 충분히 가능하기 때문이다.

선교사는 주님의 부르심에 응답하여 파송되고 헌신하지만, 동시에 훈련을 통해 부단히 갱신되고 완성되어 가야한다. 그를 위해 현장의 선교사에게 인생의 주기에 맞는 적절한 훈련이 제공되어야 한다. 그러면 선교사는 현장에서 풍성한 열매를 맺고 그들을 부르신 주님께 영광을 돌리게 되는 것이다.

“너희가 나를 택한 것이 아니요 내가 너희를 택하여 세웠나니 이는 너희로 가서 열매를 맺게 하고 또 너희 열매가 항상 있게 하여 내 이름으로 아버지께 무엇을 구하든지 다 받게 하려 함이라.”(요한복음 15장 16절)

척, 사례 연구-훈련사역/신학교, 세계선교의 최신 동향, 리더십, 멘토링, 위기관리 및 위기 상황 디브리핑, 최신 선교신학의 변화 등이다. 이외에서 건강, 재정관리, 자녀교육, 중년부부 등과 같은 선택과목을 계획하고 있다.

참고 문헌

- 권두승 조아미, 『성인학습 및 상담』, 서울: 교육과학사, 2021.
- 변진석, “21세기 한국선교교육과 훈련의 개혁방안: 한국선교훈련원(GMTC)의 사례를 중심으로”, 『미션네트워크(Mission Network)』6(2018. 2): 79-103.
- _____, “선교사 훈련-타문화 사역을 위한 변화와 성장의 기초”, 『선교와 신학』28(2011): 35-58.
- 이병문, “새로운 상황에 대비한 미래지향적 선교사훈련”, 『미시오데이』77(2019.12): 34-57.
- 이태웅, “선교사 재교육 프로그램에 대한 소고”, 『선교연구』32(1996): 1-2.
- _____, “100세를 사는 시대를 위한 전인관리”, 『한국 선교운동과 선교사』, 서울: 한국해외선교회 출판부, 2021: 591-614.
- 이현모, 『현대선교학개론』, 서울: 침례신학대학교 출판부, 2007.
- _____, “한국형 선교사사역 평가”, 『복음과 선교』8(2007): 96-121.
- 차갑부, 『성인교육방법론』, 서울: 양서원, 1997.
- 최원진, “21세기 선교현장에 맞는 한국 선교사를 위한 선교훈련”, 『복음과 선교』24(2013): 221-256.
- _____, “선교사 연장훈련의 필요와 발전적 제안”, 『복음과 실천』59(2017): 288-320.
- _____, “한국 침례교 선교동원과 훈련을 위한 전략적 제안”, 『복음과 실천』61(2018. 4): 235-264.
- 최형근, “타문화 선교사 훈련 방법: 한국적 상황을 중심으로”, 『교수논총』15(2004): 485-508.
- Brynjolfson, Robert 외, Integral Ministry Training. 변진석 엄주연 역, 『전인적 선교훈련 어떻게 할 것인가?』, 서울: 한국 해외선교회, 2013.
- Confessore, Gray 외, Guideposts to Self-Directed Learning. 김지웅 김지자 역, 『자기주도학습의 길잡이』, 서울: 교육과 과학사, 1996.
- Drucker, Peter F. The Essential Drucker, 이대규 역, 『프로페셔널의 조건: 어떻게 자기실현을 할 것인가?』, 서울: 청림출판사, 2008.
- Engen, Charles Van, Mission on the Way: Issues in Mission Theology. Grand Rapids: Baker Book House, 1996.
- Mackenzie, W. Douglas. The Preparation of Missionaries, 이종만 역, 『에딘버러세계선교사대회 연구 총서 5 - 선교사 훈련』, 서울: 한국연합선교회, 2012.
- Act29 비전빌리지 홈페이지, <http://www.visionvillage.org>, 2022, 4, 28 접속.
- GMTC 홈페이지, <https://gmtc.co.kr/gmtc-%ec%97%b0%ed%98%81>, 2022, 4, 27 접속.
- Krim “2021 한국선교현황”, <https://krim.org/2021-korean-mission-statistics>, 2022, 4, 27 접속.
- OMSC 홈페이지, <https://omsc.ptsem.edu/history>, 2022, 5, 5 접속.
- 침례교해외선교회 홈페이지, <https://fmb.or.kr>, 2022, 4, 27 접속.
- Hastings, Thomas J “정체기 한국교회 목회자에 필요한 건 안식” 국민일보(2017년 3월 21일), <http://news.kmib.co.kr/article/view.asp?arcid=0011344141&code=61221111&cp=du>, 2022, 5, 5 접속.
- 두산백과사전, <https://terms.naver.com/list.naver?cid=40942&categoryId>, 2022.5.1. 접속.
- IMB 한국 사무실 전화 문의(2022. 5. 6)
- IMB 미국 본부에 이메일 문의(2022. 5. 6).
- GBT 한국본부에 전화 문의(2022. 5. 6).

1차 자료

- 구글 설문조사, FMB 소속 6-12년차 선교사 대상 설문조사, WMTC, 2022.1.11.~1.27.
<https://docs.google.com/forms/d/1BqtFCYxNRtigMFST59jqDdHhwqr-jTXP3pfkIBjCs/edit>
- 구글 설문조사, FMB 소속 20년 이상 선교사 대상 설문조사, WMTC, 2022.1.11.~1.27.
<https://docs.google.com/forms/d/1UBDzk1YgeZxVaam9WOF9o2iIMNjFxT7XjeFF7PRjSQ/edit>



한국 선교사 자녀(MK) 교육 케어



| 한국침례신학대 선교대학원
박윤환 (Th. M)

I. 들어가는 말

한국선교 역사에서 MK 사역이 처음 시작된 것은 1993년 MK 전문가인 데이비드 폴락(David Pollock) 박사가 한국을 방문하여 한국 선교 리더십들과 함께 컨설팅(consultation)을 함으로써 시작되었다. 그 결과 한국 선교사 자녀 교육 방향성을 한국세계선교협의회(KWMA)의 이름으로 발표하였고, 이는 향후 한국 선교사 자녀교육의 근간을 이루는 선교사 자녀 교육 철학으로도 이어졌다.¹⁾ KWMA의 ‘한국 선교사 자녀 교육 정책안’을 보면 ‘한국인 선교사 자녀가 한국인의 열과 정체성을 지니고 한국 교회의 좋은 신앙을 물려받은 참된 그리스도인이 되도록 하며, 국제적 감각을 갖도록 하여, 장차 성장하여 살게 될 사회의 책임 있는 일원이 되도록 한다.’는 것이 주요 내용이었다.²⁾ 이 정책안에 따라 교단이나 선교 단체에 MK를 위한 교육 정책 수립을 위한 제언을 하였다. 또한 선교사 자녀들이 공부할 수 있는 학교 모델들을 소개하였으며, 추후 더 구체적인 정책을 수립하고 지원 체계를 갖추며 상호 협력해 나갈 필요성을 인식하였다는 내용을 덧붙였다. 이후 이를 받아들인 몇몇 선교단체에서는 자녀 교육에 대한 나름의 정책을 만들어 추진하기도 하였다. 예를 들어, 1994년 마닐라 한국 아카데미가 필리핀에 범 교단과 선교부의 연합 지원

1) 방준범·전병철, “한국MK에 관한 국내 연구 동향과 고찰”, 『ACTS 신학저널』 제35집(2018): 126-7.
2) KWMA가 1993년 11월 1일~4일 양수리 수양관에서 협의한 후 발표한 결의문 중에서 발췌함.

으로 세워지기도 했으며, GMF와 KWMA 안에 각각 MK-Nest와 KOMKID 같은 조직이 만들어지기도 하였다.³⁾

MK는 선교사인 부모의 정체성에 근거하지만, 부모의 문화 또는 선교지의 문화에 온전히 속하기 어렵다. 그들이 경험한 다양한 문화로 인해 한 문화권에 속하지 못하기 때문이다. 이에 MK들의 제3문화(the Third Culture) 경험으로 인한 유익과 도전, 슬픔과 고통이 무엇인지를 이해하고 성장 과정에 따른 필요를 종합적으로 조망할 수 있는 것에서부터 MK 교육 케어가 이루어져야 한다.⁴⁾

II. 선교사 자녀(MK)에 대한 이해

선교사 자녀들의 특성과 관련하여 이들의 독특한 상황을 ‘다문화 경험(cross-culture)’과 ‘이동성(mobility)’으로 요약할 수 있다. 선교사 자녀들은 이 두 가지 요소로 인해 국내의 또래들과는 다른 특성들을 가지고 있다.⁵⁾ 이러한 특성은 선교사 자녀들에게 폭넓은 융통성과 적응력을 소유하게 하며, 글로벌한 사고와 안목, 성숙한 가치관과 세계관을 형성하게 하고, 사람들에 대한 공감의 폭과 깊이가 남다르게 발달한 측면을 형성하게 한다. 따라서 이들은 모국의 문화 속에서만 자라난 사람들에 비해 동정심이 많고 자기중심적인 사고의 틀에서 벗어나 있다.⁶⁾ 일반적으로 성장기 자녀들은 자기 문화와 언어를 습득함으로써 문화 정체성을 형성하고 자기 안목으로 세상을 바라보는 세계관을 확립한다. 하지만 성장기를 해외에서 보낸 선교사 자녀들은 다양한 문화를 경험함으로써 태생적 문화와 언어가 희석된다.⁷⁾ 이로 인해 선교사 자녀들은 언어적, 문화적 정체성 혼란이 필연적으로 발생한다. 정체성 형성에 가장 중요한 역할을 하는 문화가 선교사 자녀들에게 장점과 단점을 동시에 가져다주어 MK로 하여금 고심을 하게 만드는 요인이 되는데, David Pollock은 이에 대해 아래와 같이 4가지로 설명하고 있다.⁸⁾

첫 번째 문제는 이동성(mobility)으로 인한 거주 불안정성이다. 선교사 자녀들은 선교 경험과 관련된 수많은 기억을 가지고 있는 동시에 불안정성과 계속되는 이주의 압박 때문에 고심한다.

3) 홍세기, “한국 MK를 위한 최선의 교육과 한국 교사 선교사”, 『한국선교 KMQ』 통권 57호(2016), 46
4) 허은영, “선교사 자녀 어떻게 도울 수 있을까?”, 『한국선교 KMQ』 통권 57호(2016) 103.
5) 임숙경, “한국 청년 선교사자녀들의 국내적응을 위한 교육적 필요”, 6.
6) 김동화, “선교사 자녀들의 특성 및 한국 선교사 자녀 교육의 방향”, 『한국 선교사 자녀 핸드북』 박순남 편(서울:한국해외선교회 출판부, 1999), 59.
7) 박재덕, “선교사 자녀교육의 방향:아프리카의 경우”, 『한국선교 KMQ』 통권 57호(2016), 63.
8) A. Scott, Moreau, Evangelical Dictionary of World Missions, (서울:CLC, 2014), 741-743.

두 번째 문제는 관계형성의 불안으로 인한 친밀감 상실이다. 선교사 자녀들은 다양한 사람들을 만나고 문화를 경험하기 때문에 대체적으로 모든 사람들과 쉽게 친해지는 편이다. 그러나 대부분 피상적인 관계에 머물고 마음을 터놓는 관계를 형성하지 못하는 경향이 있다. 세 번째 문제는 문화적 불균형으로 인한 소외감이다. 특별히 이들은 국제적 경험을 통해 문화적인 다양성에 대한 풍부한 지식을 소유하고 있지만, 모국의 문화에 대해서는 역사나 규범, 유머 등에 무지하거나 부족한 지식 때문에 “숨겨진 이주민”처럼 소외감을 느끼게 된다. 네 번째 문제는 다양한 언어로 인한 한계성과 혼란이다. 선교사 자녀들은 현지 언어들을 빠르게 흡수할 수 있는 능력을 가지고 있다. 그래서 학습 방식과 언어의 뉘앙스를 분별할 줄 알지만 또 다른 한편 언어의 한계와 혼란 때문에 고통을 당하기도 한다. 특히 모국어의 상실은 여러 가지 문제를 가져다준다. 왜냐하면 모국어는 자기 문화와 자기 동질성의 근간이 되기 때문이다. 그렇기에 모국어의 상실은 단순히 모국어 능력이 부족하다는 차원이 아니라 자기 존중감의 결여, 정서적 불안, 가족 간의 소통 언어 상실과 같은 문제가 발생하여 동일 문화 공유자 및 가족 간의 단절과 같은 결과를 초래할 수 있다.

III. 6하 원칙으로 살펴보는 한국 선교사 자녀 교육 케어의 방향성

좋은 교육을 실현하기 위해서는 몇 가지 요소가 필요하다. ‘뚜렷한 교육 철학’ 그리고 그 교육 철학을 세세히 풀어 교육 목표와 내용, 방법으로 풀어나가는 ‘교육과정’, 그리고 이 교육과정을 실제 학교와 교실에서 수행해 내는 ‘좋은 교사’와 ‘교육 리더십’이다. 부수적으로 학습 효과를 가늠하는 요소로는 실제 학습의 주체인 ‘학생’들의 자질이나 성향이 있고, ‘교육 환경’과 ‘시설’ 그리고 ‘학부모’ 자질과 ‘지역사회’ 환경 등이 있다.⁹⁾ 선교지에 있는 자녀들을 위해서 이 선교사 자녀 교육의 문제를 어떻게 풀어나가야 할지 6하 원칙의 방향성으로 살펴보고자 한다.

1. Why(공유된 교육 철학 연구 및 재 공유)의 방향성

일반 공교육에서는 ‘무엇을, 어떻게’의 문제를 주로 다루지만 기독교 교육에서는 ‘왜’의 문제를 중요하게 생각한다. 이는 앞서 언급한 ‘교육 철학’이 기독교적인 시각을 담아내야 한다는 전제 때문이다. ‘교육 철학’은 교육의 방향이다. 기독교인들에게는 ‘신앙의 신조’가 교육 철학의 기초가 된다. 그렇기에 1993년 KWMA에서 제시한 ‘한국 선교사 자녀 교육 정책안’은 한국 선교사 자녀 교육의 철학을 ‘한국적 정체성이 있는 교육’, ‘좋은 신앙인으

9) Gaylen J Byker, 'Being Distinctively Christian and Academically Excellent' 제2회 칼빈대학교 초청 국제학술세미나, 61-78.

로서의 교육’ 그리고 ‘국제화된 교육’이라 규명한 것이라고 볼 수 있다. 이 교육 철학은 교육의 중심에 자리 잡고 있어서 앞서 언급한 교육의 모든 요소에 중대한 영향을 미친다. 미국의 칼빈이나 도르트 대학의 경우 이 철학을 담아내는 ‘핵심 교육과정’을 개발하는데 수 년 동안 많은 인력과 경비를 들였다. 그리고 끊임없는 피드백을 통해서 정비해 간다. 세상이 변해가도 ‘진리’를 담아내는 성격을 가진 이 교육철학으로 인해 ‘기독교성’과 ‘학문성’을 놓치지 않는 것이다. 그렇기에 선교사 자녀 교육에 있어서도 우리의 아이들을 어떤 방향으로 어떻게 키워야 할지에 대한 논의가 우선되어야 한다. 실용성에 치중된 이 시대의 교육 가치를 넘어서 성경적 교육방향과 철학을 시대 상황과 잘 접목하여 만들어야 한다. 근 30여년 동안 이뤄진 우리의 MK 교육경험에 대한 선행 사례 연구들을 바탕으로, 4차 산업혁명 및 포스트-코로나라는 이 시대의 기독교 교육에 대한 연구가 함께 협력하여 이뤄져야 한다고 본다. 이렇게 연구된 교육 철학은 다시 업데이트 되어 가장 먼저는 부모 그룹부터 시작하여 모든 협력 그룹에 재 공유 되는 과정이 중요한 첫 출발점이 될 것이다.

2. Who(협력 그룹의 종합적 케어)의 방향성

1) 부모 그룹

MK 문제를 조명할 때 우리는 흔히 MK만을 바라보는 오류를 범하게 된다. 그러나 그들의 표면에 나타나는 문제 이면에는 역기능적인 선교사 가정, 건강하지 못한 선교사 부부의 모습이 가려져 있는 경우가 적지 않다.¹⁰⁾ 문상철은 부모의 역할에 대해서 “부모가 성경적인 가치관을 정립하고 자녀들에 대해 일관성 있는 기대를 하는 것이 필요하다. 이러한 부모의 태도는 자녀의 정체성 형성에 지대한 영향을 미칠 것이다.” 라고 말한다.¹¹⁾ 따라서 부모가 자녀 교육에 있어 어떤 개념을 가지고 있느냐에 따라 자녀 교육이 좌우된다고 말할 수 있다. 선교사 부부가 올바른 성경적 교육 개념을 가지고 있는 것이 중요하다. 이것은 MK들이 국제 학교, 현지 학교, 이중 언어학교, 기독교 학교, 선교사 자녀 학교, 한국 아카데미, 국내 대안학교, 홈스쿨링 등 어느 곳에서 공부를 하더라도 선교사 부부가 염두에 두어야 할 과제이다. 장은경이 MK에 대한 부모의 역할을 제안한 것 중 몇 가지를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¹²⁾

- (1) MK 부모는 부모이자 교사로서 자녀의 본이 되고, 부부 간에 서로를 존중해야 한다.
- (2) MK의 사고와 행동에 대한 편견을 버리고, 부모 자신이 그리스도 안에서 분명한 교육 방향을 수립해야 한다.

10) 장은경, "MK 지역의 새로운 패러다임에 대한 연구", 『한국선교 KMQ』 통권 57호(2016), 41.

11) 문상철, 『한국 선교사 자녀들의 교육적 필요』 (서울:한국해외선교회출판부, 2013), 23.

12) Ibid, 42.

- (3) 부모는 기독교적인 시각을 갖도록 끊임없이 자신을 훈련해야 하고 부모로서 자녀의 멘토 역할을 충실히 수행해야 한다.
- (4) 부모는 자녀와 늘 의사소통이 되어야 한다. 무엇보다 신앙 교육의 바탕 위에서 대화가 이루어져야 한다.
- (5) '적극적 경청의 자세'를 가진 부모와 그 자녀가 사랑과 존중을 바탕으로 한 따뜻하고 친밀한 관계가 형성되면 가족 내의 세대 차이도 없어질 수 있다.

2) 교사 그룹

교육 철학에 따라 부모인 선교사가 어떤 교육을 선택할 지 자녀 교육에 대한 방향을 설정했다면 그 다음으로 필요한 것은 교사 그룹이다. 유형의 교육 기관이 없어도 교사가 있으면 그곳은 학교가 되고, 교과서 같은 교육 자료가 없어도 교사가 있다면 교육 내용을 만들어 교육할 수 있다. 이런 교사들 집단이 함께 일하면 바람직한 교육 철학도 생산 및 업데이트 해낼 수 있다. 부모 선교사는 본래 선교지에서 주어진 1차적 사명이 있으므로 교사 그룹과 잘 협력해야 할 필요가 있는 것이다. 신앙적인 면 뿐 만 아니라 학습 내용을 다루는 것을 교육이라고 한다면 일정 기간 학부모에 의해서 어느 정도는 학습이 가능할 것이나 또래집단 의식이 커지고 자아개념이 형성되는 초등학교 고학년 학령기에는 이를 만들어주고 검증해 줄 만한 또래집단과 객관적인 시각의 교사가 필요하다. 학습 내용을 다루는 경우도 중학교 이상 고학년으로 올라갈수록 전문적인 역량을 갖춘 교사가 필요하다. 특별히 한국 학생들의 경우 대부분의 경우 진학하고자 하는 '대학'이라는 관문을 놓고 볼 때에도 한국적 상황을 잘 알고 학생들을 깊이 이해하면서 성경적으로 진학, 진로 지도를 해줄 기독교사가 필요하다. 서구 학생들이나 현지 학생들과는 매우 다른 한국이라는 환경에 재입국해 다시 살게 될 확률이 높은 우리 한국 아이들을 그들의 입장에서 살피고 돌보는 전문가가 없다면 아이의 인생에서 시행착오를 겪을 확률이 MK들의 경우 더 높아질 수 있다는 것이다.¹³⁾

한국인 교사는 한국형 선교사 자녀 학교에만 필요한 것이 아니라, 서양식 선교사 자녀 학교나 국제 학교에도 필요하고, 현지 학교에도 필요하다. 한국 아이들이 있는 곳이면 어디나 한국 교사 선교사가 필요하다는 뜻이다. 선교지의 학교 직원으로서 학교를 도울 수도 있고, 한국 학부모나 학생 상담도 필요하고 직접적 교수 활동도 필요하다. 학교 측과 논의하여 시간과 공간을 얻어서 구체적인 한국적 교육 활동을 하는 사례는 여러 곳에서 나타난다. PNG Ukarumpa 학교는 20여 년 전부터 각국의 특별교실을 학교에 만들고 자국

13) 홍세기, "한국 MK를 위한 최선의 교육과 한국 교사 선교사", 『한국선교 KMQ』 통권 57호(2016), 51.

의 교사들이 자국 학생들의 정체성 교육을 하고, 필리핀의 Faith 학교는 한국인 교사들이 한국어와 역사 교육과정을 운영하며, 상담 사역을 활발히 하고 있다. 태국의 Grace 학교에도 두 가정의 한국인 교사가 교과 과정과 진학 상담을 하고 있으며, 인도의 Hebron 학교에서는 한국인 음악교사 두 가정이 정규 음악 교육과정을 담당하고 있다. 케냐의 Lift Valley 학교에는 10년 넘게 한국인 교사가 상담 사역을 하고 있다.¹⁴⁾

또한 일반적으로 교사들은 MK를 이해하고자 노력하며 그들의 어려움을 함께 해주는 부모와 유사한 거의 유일한 존재라는 점에서 '예수님의 성육신'적 마음을 가지고 선교지에서 학생들을 대하게 된다. 온몸과 마음을 선교지에서 선교사 자녀들과 함께 하고자 하며 특별히 중학교 시절 사춘기를 지나 독립적인 삶을 살고자 애쓰는 고등학교 시절의 MK들에게 자신을 이해해 주며 삶을 함께 해주는 이 타인이야말로 아이들의 전인적 성장에 중요한 요소라고 볼 수 있다.¹⁵⁾

문제는 이런 역할을 할 수 있는 교사를 어떻게 공급하느냐 인데 이를 위해서는 교사 선교사를 모집하고 훈련하며 실제 파송하고 관리하는 모체가 있어야 한다. 이를 위해 교사 선교사라는 특별한 영역의 일을 '교육'과 관련 있는 그룹에 맡겨 협력하는 것도 좋은 해결책이 될 수 있을 것이다. 한국기독교교사연합 단체 중 좋은교사운동¹⁶⁾에서 실시한 설문조사 결과를 보면 한국의 기독교사들이 가지고 있는 선교적 관심에 대해 어느 정도 알 수가 있다. 응답한 273명의 현직 기독교사 중 선교지에 파송되어 일해 보겠다는 교사들은 53%이며, 이미 선교사 자녀에 대해서 듣거나 이해하고 있는 교사들도 86%나 된다. 장단기 선교지 경험이 있는 교사가 23%, 후에 선교사 자녀를 위한 교육 활동을 펼치고 싶은 교사가 57%이다. 응답자의 거의 대부분은 한국의 기독교사연합인 좋은교사운동에서 선교사 자녀 교육을 직접 돕거나 간접적으로 도와야 한다고 응답했다. 응답 결과를 해석해 본다면 이미 선교지 교육 활동을 알거나 해야 한다는 교사가 50%를 상회한다. 즉 교사 그룹의 자원이 없는 것이 아니라 제대로 발굴하고 훈련하며 지원케하여 파송하지 못한 것이 MK를 위한 교사 인력의 부족한 주요 원인을 알 수 있다.¹⁷⁾ 좋은교사운동에서는 선발과 훈련을 위한 체계적인 프로그램은 없지만 회원단체 13개 중에서 6개 단체가 아래와 같이 활발한 자체 선발과 훈련의 시도들을 이어가고 있다.¹⁸⁾

14) Ibid, 52.

15) Ibid, 53.

16) 좋은교사운동은 1998년 제1회 기독교사대회를 시작으로 태동하여 오늘날까지 한국 기독교사 3500여명이 참여하고 있는 단체이다. 제1회 교사선교대회를 2016년 200여명의 현직교사가 참석한 가운데 대전에서 개최했으며, 2년에 한번 열리는 기독교사대회는 대회 때마다 1500~2000여명의 기독교사들이 참여하고 있다. 학교복음사역, 교육정책, 수업 및 생활지도 연구, 국제개발협력 교육선교 사역 등을 진행하고 있다.

17) Ibid, 55.

18) 이라신, "좋은교사운동 교육선교 현황과 전망", 『월간 좋은교사』 (2016. 10월호), 53.

〈표 2. 좋은교사운동의 13개 회원단체 중 교육선교가 이뤄지는 6개 단체의 교육선교 현황〉

단체명	교사선교회	기윤실 교사모임 꿈사랑배움터	선한교육	하나님의 교사들 (GT)	한국기독교 사회 (TCF)	행복교육 실천운동 (행복교실)
국가	필리핀	캄보디아, 미얀마	몽골, 탄자니아, 에콰도르, 캄보디아	네팔, 싱가포르, 우간다, 중국, 티벳, 캄보디아	Q국, R국, 몽골, 캄보디아, 필리핀, 네팔, 러시아	인도
대상	현지 예비교사, 현지교사, MK	MK	현지인, 현지교사, MK	MK, 현지교사, 현지인	MK	현지교사, TCK
주요 지역	필리핀 국립대학 (PNU) 예비교사, 현지교사 양육, 교육, 설교/단기 사역팀 매년 파송	MK 캠프 프놈펜 좋은학교 설립운영 (한국형MK학교)	교회지원사역, 교회개척 및 교회사역, 한글학과 교수사역, 교 회개척사역, 경영학과 교수사역, 현지학교교 육, 선교센터지원, 선 교센터 구입, MK단기 과학 및 예체능 캠프, 학습캠프	MK학교지원, MK국내캠프지원, 현지학교 특강팀 파송, 현지학교 교육컨설팅팀 및 학교설립, GT해외단체 설립	MK 캠프지역, MK 한국형학교 교사, 국제학교 교사	현지교사컨퍼런스 : 수업성찰, 교수학습 과정안, 교수학습전략, 각종수업자료제작, 학 급경영 등을 기독교적 관점에서 연수/TCK캠 프 : 진로 및 비전 코 칭, 한국어, 이성교제 및 성교육, 수학학습캠 프, 팀워크 훈련, 용성 프로그램 등
동기	필리핀 한국 아카데 미 교사로 파송/ PNU 사역시작	성동모임에서 MK 관심으로 시작	몽골MK 스쿨초 등과학 및 예체능 캠프 계기	1995년 정영찬, 정은주 선생님 MK단기교육(방학 중)선교로 시작	1997년 필리핀마닐라 한국 아카데미 김숙현 교육선교사 파송, 2003년 MF 공식협조 요청으로 공동체 차원 에서 캠프지역 시작	2004~2005년 손영 심선생님의 인도단 기봉사 이후 인도현 지교사 교육에 대한 필요성 인식후 2011 년 시작
시작 연도	1994년 한국아카데미 파송/ 2010 PNU 캠퍼스 사역시작	2003년	2003년	1995년	1997년	2011년
기간	장기/단기/방학중	장기/방학중	장기/방학중	장기/방학중	장기/단기/방학중	단기/방학중
횟수	22년차/6회차	7년차/13회차	10회차	해외단기선교 4회차, 중국 곤명 한국국제 학교 5회차, HOPE MK 2회차	Q국 3회차, R국 8회차	6회차
효과 (결과)	Phil-TEM 교사모임 이 예비교사 모임을 통해 양육이 시작됨. 지역학교와 교회성 김으로 발전하고 있 음	MK 한국형 학교설 립, GVf에 사역 연 계, 미얀마 개척 등	-	-	-	아가페 학교 현지 교 육의 질 향상, 학교에 대한 평판 좋아져 학 비를 넘어 자립의 계 기가 됨, 현지교사자 체 컨퍼런스 기획을 통한 전달연수/TCK 들과 관계형성, 한국 선교사들과 신뢰구 축, 학습캠프로 영역 확대 등

향후 계획	-	교회개척, 현지교육, TCK교육(방과후학 교, 토요학교, 한글교 실), 학교지원, 시니 어선교, 단기선교, 지 원선교(교회, 학교, 센터 유지를 위한 하 드웨어 지원), 재생산 사역(현지교회 및 학 교의 지도자 양성)	캄보디아 현지 선교사와 협력하여 초중등학교 설 립, 사범대와 교대 예비 교사 양육을 통한 기독교 사단체 설립, 사범대 및 교대시설지원, 특강 팀 파송을 통한 교사연 수, 학생들에게 다양한 교육의 기회제공, 후임 선교사발굴	개인선교사 파송, 캠프 사역(프로그램개 발, 한글교재연구), 여 름방학에 R국으로 겨울방학에 지속적으로 섬길 팀 찾고 있 음	지속적인 현지교사 컨퍼런스 실시, 중상 위 계층을 겨냥한 국 제학교 설립을 통한 인도사회변화 유도, 인도아가페 사범대 기독교사 양성협력/ TCK를 위한 학교 설립 필요
----------	---	--	--	---	---

이 외에도 우리나라에는 많은 미션스쿨이 있으며 최근 전국적으로 많이 생기는 기독교학 교(대안학교)도 있다. 이들 기존 교육 조직을 선교에 활용하는 것도 적극적으로 모색할 수 있는 대안이다. 뿐만 아니라 교대나 사범대학생들로 이루어진 선교 단체¹⁹⁾를 통해서 선교에 대해 배우는 많은 예비 교사 대학생 자원이 있다. 문제는 현 기독교사들에게 어떻게 MK 케어 사역을 도전하고 발굴하며 훈련할 것인가이다. 이들은 특성상 대부분 현 교직을 완전히 포기하고 선교지에 가는 것에 두려움을 가지고 있다. 장기적으로는 그런 교사들이 필요하겠지만 접근 순서로 일정 기간 한국에서의 교직을 내려놓고²⁰⁾ 선교지에 가게 하는 것도 좋을 것이다. 이를 위해 교사 그룹을 위한 훈련 과정을 만들고, 이들을 훈련할 수 있는 시간과 장소에서 훈련을 마친 후 일정기간 파송하는 전략이 만들어져야 할 것이다. 교사들에게 맞는 훈련 프로그램으로 기간도 잘 고려하여 전략적으로 운영된다면 한국 MK의 교육적 케어를 위한 중요한 협력 그룹이 일어나게 될 것이다.²¹⁾

3) 교회 및 파송 단체 그룹

전 세계에 흩어져 있는 다른 문화, 다른 언어, 다른 환경에서 자라고 이는 한국 MK를 돌보고 키우는 일에는 큰 울타리와 같은 교회 및 파송 단체의 역할이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할 수 있다. MK에 대한 교회 및 파송 단체의 역할에 대해 허은영 선교사가 제안한 것을 골자로 정리해보면 다음과 같다.²²⁾

〈교회의 역할〉

- ① 파송교회는 MK 돌봄을 위한 전담(사역 위원회) 부서를 마련해야 한다. 지속적이며 적극적인 선교사 가정의 정서적, 교육적 필요와 구체적인 기도 제목들을 위해 헌신하도록 해야 한다. (예: 자녀 교육 상황 및 생일 챙기기, 위로와 섬을 위한 방안 마련과 교구 및 격려 선물 소포 보내기 등)

19) 대표적으로 TEM(교사선교회)가 있다. 교사선교회는 전국의 교대와 해외 교대에도 지부를 두고 있다.

20) 휴직, 파견 등의 방법이 있다. 휴직은 특별히 육아휴직을 사용할 경우 1차녀 당 3년의 휴직이 가능하다. 조건은 선교지에도 꼭 자녀와 함께 가야하고 이 중 1년은 유급 휴직으로 적용된다.

21) 홍세기, "한국 MK를 위한 최선의 교육과 한국 교사 선교사", 『한국선교 KMQ』 통권 57호(2016), 56.

22) 허은영, "선교사 자녀 어떻게 도울 수 있을까?", 『한국선교 KMQ』 통권 57호(2016) 111-112.

- ② 파송 교회는 MK의 모국어 교육의 중요성을 함께 인식하고 교육의 기회를 제공해야 한다.
- ② 한국에 MK 홀로 재입국 시 MK를 교회가 케어 해야 한다. 먼저 안전한 숙소를 제공하고 한국 적응을 도울 수 있는 공동체를 준비해야 한다.
- ④ 성인 MK 자원과 교회는 다음 세대를 위해 적극적으로 동역해야 한다. MK가 경험한 다른 문화 이야기와 삶의 이야기가 같은 시대를 살아가는 동료들이나 또래들에게 하나님의 일하심을 보게 하는 기회가 될 것이다.

〈파송 단체의 역할〉

- ① 단체들은 MK 전문 사역자를 세워야 한다. 그리고 MK 특성상 단기보다는 장기적으로 사역하도록 지원해야 한다. (지속적인 사랑과 케어로 돌볼 수 있는 장을 마련해야 한다.)
- ② MK를 위한 교육과 케어 전문 사역자들을 파송해야 한다. 지금까지의 한국선교 역사를 보면 MK 교육은 많은 부분을 서양 교육 시스템에 의존하여 큰 은혜와 혜택을 누려왔다. 그러나 각 나라의 학교들이 교사 지원 및 재정적인 어려움에 당면해 있다. 우리도 MK들을 위한 전문 사역자 파송에 힘을 쏟아야 한다.
- ③ MK 위기관리 시스템이 마련되어야 한다. 선교지에서 당면하는 위급 상황 뿐 아니라 재입국하여 군대 혹은 사회에서 많은 위험과 어려움을 당하는 MK들의 안타까운 소식들이 전해지고 있다. 상담, 의료, 법 등 개개인의 힘으로 감당할 수 없는 사건들을 함께하는 전문가가 필요하다.
- ④ 성인 MK들을 선교사로 파송하고 지원하는 시스템이 필요하다. MK가 부모의 대를 이어 선교사로 헌신하고 있다는 것은 참으로 큰 열매이다. 이미 현장에서 여러 문화 경험과 몇 개의 언어 구사 능력이 있는 MK 선교사 후보생들을 위한 새 포도주를 새 부대에 담을 훈련과 파송이 준비되어야 한다.

〈교회와 파송 단체 공통의 역할〉

- ① 연령에 따른 자녀 교육비를 생활비와 별도로 책정해야 한다.
- ② 선교사 자녀의 영적발달을 위한 체계적인 교육 및 성경공부 교재를 제공해야 한다.²³⁾
- ④ 교회와 단체는 주기적으로 MK 부모 선교사들을 위한 교육의 기회를 제공해야 한다. 가정 안에서 제자화가 이루어지도록 도와야 한다. 이를 위해 조기 부모 교육이 필요하며 각 가정이 건강해야 건강한 선교지 문화가 창출될 것이다.

23) 함영주 · 고경국, "교리교육이 선교사 자녀의 신앙발달에 미치는 영향", 『ACTS 신학저널』 제42집(2020): 143-146.

3. When(연령별 및 파송 시기에 따른 전 생애적 MK 케어)의 방향성

1) 연령에 따른 전 생애적 케어의 방향성

MK 케어를 연령별로 살펴보면 영유아, 학령 전, 초등, 청소년, 대학, 청년, 결혼 후 등으로 구별된다. 그렇다면 이들을 몇 살까지 케어해야 할까? 성장기뿐 아니라 중요한 연령 시기인 만 18세는 성인의 뇌로 전환하는 불안정한 시기를 공감하고 지지하는 케어가 필요하고, 만 23세(대학 졸업 무렵)까지는 지속적인 관찰과 도움을 통해 소속감을 주는 환경이 필요하다. 이후 결혼과 자녀 양육 시기와 40세, 55세 등에도 모임과 필요에 따른 상담을 도와주는 등 지속적인 멘토링과 영적 케어를 통해 단체와 연계되도록 후속 조치도 필요하다. 흔히 청년이나 결혼 후에는 케어가 필요하지 않다는 생각이 만연하다. 그러나 전문가들은 인생의 큰 변곡점에 이들을 이해하고 받아들여 줄 사람이 필요하다고 이야기한다. 대학 진학 때, 취업 준비할 때, 결혼을 고민할 때, 결혼 후 친정이 필요할 때, 출산을 경험할 때 등등이다. 오히려 성인 MK들이 사회 진출과 미래에 대한 두려움으로 더 많은 관심과 케어가 필요함을 고려해야 한다.²⁴⁾

2) 파송 시기에 따른 케어

MK 케어는 선교사 허입 후부터 시작하여 시기에 맞게 케어하는 것이 필요하다. 크게 3단계로 나누어 보면 1) 출국 전 준비 단계(Pre-Field Care Program), 2) 선교지 현장 단계(On-Field Care Program), 3) 재입국 단계(Re-Entry Care Program)로 살펴 볼 수 있다. 선교사 후보생으로 훈련받는 때부터 MK들의 훈련도 함께하고, 선교지에 도착해서도 MK들이 교육받고 케어 받는 환경을 점검하고 지원하도록 하는 것이다. 또한 학령기를 선교지에서 보내고 대학 진학이나 입대 등을 목적으로 재입국하는 과정 또한 독립과 한국 문화 진입의 시작이기에 이들을 잘 환영하고 정착을 돕는 프로그램들을 마련하는 것이 중요하다.

파송 시기에 따른 케어에 대한 사례로 침례교와 바울선교회의 사례를 살펴보려 한다. 침례교에서는 부모인 선교사와 선교부가 함께 노력해야 하는 상황에서 자녀교육 지원부가 특별히 선교사 자녀의 한국인으로서의 정체감을 바로 갖도록 하는 일을 중점적으로 돕고 있다. 이곳에서 이뤄지고 있는 파송 시기에 따른 케어는 아래와 같다.²⁵⁾

(1) 선교지 출국 전 지원

- ① 선교지에서의 자녀교육에 관한 전반적인 상담
- ② 선교지에서의 자녀교육을 위한 부모역할 훈련

24) 허은영, "선교사 자녀 어떻게 도울 수 있을까?", 『한국선교 KMQ』 통권 57호(2016) 105.

25) 김민수, "선교사 자녀들의 기독교 세계관과 신앙생활의 상관관계", 종신대학교 선교대학원, 2018, 15.

③ 전반적인 교육안내, 홈스쿨링, 부모역할, 한국어 교육안내)

(2) 선교지에서의 자녀교육 지원

- ① 한국어 교육에 관련된 교재 지원
- ② 필요한 지역에 개인 교사 선교사나 순회교사 파송
- ③ 자녀교육에 관련된 정보제공
- ④ 선교지에서의 선교사 자녀 단기 캠프 운영
- ⑤ 선교지에서의 선교사 자녀 단기 한글학교 운영
- ⑥ 선교지에서 선택 가능 한 학교 안내

(3) 안식년 선교사 자녀지원

- ① 재입국 전에 자녀의 한국생활 적응에 관한 안내
- ② 한국생활 재적응에 관한 상담
- ③ 선교사 자녀를 위한 캠프나 기타 건전한 어린이 행사 안내
- ④ 재출국 전 선교지에서의 재적응을 위한 상담

또 다른 사례로 바울선교회가 진행 중인 MK들의 라이프 케어도 있다.²⁶⁾

4. Where(지역별 및 어디에서 배우느냐에 대한 숙고)의 방향성

1) 지역별(대륙별) 케어의 방향성

선교지의 지역에 따라, 특별히 대륙별 특성을 고려하는 부분은 MK 케어의 방향성을 결정함에 있어서 상당히 중요하다. 예를 들어 아프리카 권역과 중동 권역은 문화와 종교와 교육 환경 등이 모두 다르기 때문에 한국 MK를 이해하고 지원하고 돕는 접근과 방법도 차이가 있어야 한다. 한 예로 바울선교회는 전 세계를 7개의 권역으로 나누어 그 지역 특성에 맞는 MK 맞춤 케어를 하고 있다. 2년에 한 번씩 선교사 케어를 위한 수련회가 있는데 이를 대륙별로 진행한 다음 한국에서 전체가 다 모여 이루어지는 프로세스로 되어 있다. 권역별 MK수련회를 통해서 연구된 자료에 의하면 MK들의 하나님에 대한 이해와 자신의 신앙고백에도 차이를 보이고 있다. 구체적으로는 MK 개개인의 타문화 노출 시기가 다르고 각 나라와 거주 지역의 상황과 교육 환경이 서로 다른 배경에서 성장했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MK가 자란 환경과 지역의 특성에 맞는 케어가 준비되어야 한다.

26) 허은영, "선교사 자녀 어떻게 도울 수 있을까?", 『한국선교 KMQ』 통권 57호(2016), 106-110.

2) 어디에서 배우느냐의 방향성

MK가 선교지에서 선택할 수 있는 학교 유형은 다양하지만, 부모의 사역지와 사역형태, 경제형편, 기숙 여부 등을 고려하여 한국 선교사들은 대개 다섯 가지 정도의 학교 유형을 선택하고 있다.²⁷⁾ 교육 기관과 내용에 따라 각각의 특징을 살펴보면 아래와 같다.²⁸⁾

- (1) 국제학교 : 한국 MK들은 높은 비율로 선교현지에 세워진 국제학교에 다닌다. 국제학교의 유형 안에는 일반 비기독교학교와 기독교학교로 나눌 수 있다. 일반 비기독교학교 같은 경우는 한국 MK에게 이질적인 학생들(종교, 계층, 시민권, 문화 등)과 어울릴 수 있는 기회와 함께 국가, 문화적 차별감을 덜 느끼는 편안한 분위기를 주기에 국제인으로 성장하게 해준다. 기독교 국제학교는 기독교 선교부에 의해 설립된 학교로 대부분이 기숙사를 두어 언젠가 귀국할 모국 문화의 친숙함을 잃지 않도록 양육하는데 신경을 쓰며 현지 문화 및 자국 문화를 정도의 차이는 있지만 교육에 포함시키고 있다.
- (2) 현지학교 : 현지 정부 또는 개인에 의해 세워진 학교로 현지 국가의 교육과정을 현지어로 가르친다. 장점은 한국 MK들로 현지어를 빨리 습득하게 하고 현지인들과의 관계 형성과 그 문화에 신속히 적용할 수 있도록 하며 MK로 형성된 네트워크는 부모 선교사들로 현지인을 접촉하는데 통로가 되게 하기도 한다. 그러나 교육의 질이 상대적으로 낮은 편이며 외국학생의 타문화에 대한 포용력이 부족한 편이다. 결정적으로 현지 종교와 세계관이 교육철학의 근간에 영향을 미치고 있기에 한국 MK들에게 비성경적인 가치관이 침투될 수 있다.
- (3) 한인학교 : 한인학교는 각 현지의 한국인들에 의해 세워진 학교이다. 한국재외공관으로부터 학력인정을 받는 정규한국학교가 있고 그 외 매일 방과후나 주말에 이뤄지는 한국의 커리큘럼 및 문화, 정서를 교육받는 학교로 나눌 수 있다.(순회교사, 개인교사, 팀교육) 정규한국학교의 경우 한국인으로서의 정체감 형성에 크게 도움이 되고 국내 정착을 위하여 한국 사회로 진입하려 할 경우 다른 선택의 경우보다 용이하다는 장점이 있다. 그렇지만 자칫 다중문화의 장점을 놓쳐서 국제 감각을 배우지 못할 수 있고 신앙교육이 부재할 수 있게 되는 단점이 있다. 다른 한인학교의 형태인 순회교사, 개인교사, 팀교육의 경우 정규학교의 교육을 보완하는 기능을 하며 각 학교의 역량에 따라 한국어, 국어, 국사 등과 신앙교육을 제공하게 된다.
- (4) 홈스쿨링(가정학교) : 홈스쿨링이란 일반적으로 '학교'와 같은 제도화된 시스템이 아닌 일반 가정에서 부모가 직접 교육자가 되어 가르치는 것으로 정의한다. 스스로 알아서 원하는 것을, 원하는 때에 원하는 방식으로, 원하는 곳에서 학습하는 것으로 단순히 집안

27) 이현모, 「현대 선교의 이해」, 339-342

28) 김은경, "선교사자녀 교육에 대한 연구", 목원대학교, 2006, 18-28.

에서만 배우는 것이 아니라 세상을 학교 삼아 배운다고 보는 것이 옳다. 원칙적으로 가정에서만 배우는 것이 아니라 지역사회 전체를 배움의 장으로 바라보는 다양성과 유연성을 가지고 있기에 필요하다면 지역사회의 다양한 교육장소를 이용하기도 한다.

(5) 한국 내 교육기관 : 중앙기독교초등학교, 한동국제학교 등과 같이 귀국한 MK들을 돌보고 있는 국내의 교육기관이다.

〈표 3. 선교지에서의 교육형태/기회문제²⁹⁾〉

형태	학비	한국교육	가족동거	학력인정	장점
국제학교(일반)	고	무	부/가	가능	영어, 국제성
국제학교(MK School)	중	무	부/가	가능	영어, 국제성, 영성
현지학교	저	무	가	가능	현지적응
한인학교	정부공인 한국학교	중	부/가	가능	한국교육
	순회교사(장단기)	저	가	불가능	한국교육
	개인교사(장단기)	저	가	불가능	한국교육
	팀교육	저	유	가	불가능
홈스쿨링(가정학교)	저	유	가	불가능	가족유대
한국 내 교육기관	고	유	부	가능	국내 한국교육

MK는 새로 접하게 되는 선교지의 문화와 언어, 학교 등에 적응해야만 한다. 선교지 상황과 여건에 따라 위의 표와 같이 다양한 학교 유형 중 한 곳을 선택하여 진학을 하게 된다. 선교지에 있는 모든 학교의 유형마다 장·단점이 있으며, 이를 고려하여 보완책을 마련해 어디(Where)에서 교육적 케어를 받을지 결정해야 하는 것이다. 이때 장기적으로 자녀의 진로 문제에 대한 혼란을 줄이기 위해서 어디에서 배우느냐에 따른 방향성을 고려하는 것이 필수적이라 하겠다.

5. What(무엇 중에서도 특별히 신앙에 대한 케어)의 방향성

실제 선교 현장에서 부모가 현지인 선교에 주력하고 있는 경우 자녀는 현지인 교회학교에 가서 배우든지, 부모가 출석하는 교회에 방문하여 예배드리는 것이 일반적이다. 특히 복음 화율이 아주 미약한 지역이나 창의적 접근 지역에 거주하는 선교사 자녀들은 지속적이고, 체계적이며, 공동체적인 신앙교육을 받을 기회가 별로 없다.³⁰⁾ 또한 종교적인 자유가 없거나 영적인 전투가 치열한 곳에서는 부모들이 영적인 압박을 느껴 자녀들의 신앙적인 면까

29) Ibid, 29.

30) 김덕순, "선교사 자녀들에게 있어서 부모와의 관계가 신앙에 미치는 영향" (총신대학교 신학대학원, 2003), 50.

지 세심하게 돌보지 못할 가능성이 있다.³¹⁾ 이러한 이유로 MK는 일반 교육에서도 어려움을 겪고 있지만 한국의 교회학교 학생들과 비교했을 때 신앙 교육면에서도 열악한 환경에 있다고 볼 수 있다.³²⁾ 따라서 선교사 자녀들의 신앙성장을 위해 부모와 파송교회, 교단이 상호간에 협력하여 신앙교육 프로그램을 전략적이고 체계적으로 시행해 갈 필요가 있다. 그렇다면 신앙발달과 교육의 관계는 무엇인가? 김국환은 신앙발달에 대해 "신앙의 대상인 하나님에 대하여 지적으로 바르게 알고, 신뢰적 신앙으로 믿으며, 실천적으로 생활하는 신앙의 내용과 영적 변화의 과정"이라고 했다.³³⁾ 즉 신앙발달은 신앙의 대상인 하나님에 대해 바르게 알고(지적 신앙), 바르게 믿으며(신뢰적 신앙), 바르게 실천하는(실천적 신앙) 신앙의 내용과 방식에 대한 영적 변화의 과정인 것이다. 이러한 신앙발달은 하나님께서 세우신 교사와 목사(엡 4:14)와 같은 사역자들을 통해 이루어 가시는 역사이다.³⁴⁾ 물론 영적 성숙이 결코 인간의 노력이나 결단, 행위로 얻어지는 것이 아니지만 오직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이뤄지는 교육을 통해 신앙의 지적, 정서적, 의지적 영역의 발달이 이뤄질 수 있는 것이다.³⁵⁾ 함영주·고영국이 MK의 내적강화를 위해서 교리교육이 신앙발달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 살펴보고 이를 토대로 교리교육의 방향성을 제시한 내용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 ① 선교사 자녀의 영적발달을 위한 체계적인 교리교육이 필요하다. 교리교육을 실시하기 전의 영적 성숙도에 대한 사전검사와 실시 후의 사후 검사를 비교해 본 결과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집단 간의 차이를 발견하면서 교리교육이 MK들의 영적 성숙도를 향상 시킬 수 있게 된다. 이를 위해 현지에 있는 네트워크를 활용하여 교리교육 컨퍼런스 및 지역별, 지부별 교리교육 강좌를 개설할 것을 제안한다.
- ② 선교사 자녀용 성경공부 교재를 만들 때, 심리적 구인, 즉 자존감과 자아회복탄력성을 회복시킬 수 있는 내용들을 첨가하여 가르칠 때 신앙발달에 있어 더 효과적이다. 이는 신앙발달과 자존감이 함께 비례한다는 사실을 밝힌 노은석³⁶⁾의 연구와 기독교청년들의 자아회복탄력성을 높이기 위해서는 가정과 교회에서 말씀 교육의 중요성을 강조한 이상용³⁷⁾의 연구 결과와 연결된다.

31) 김종성, "선교와 현장", 「선교와 현장」 제6집(2001): 100.

32) 서성민, "선교사 자녀의 신앙교육", 「교회교육」 204 (1993): 71.

33) 김국환, 「신앙 발달과 기독교교육」 (서울: 기독교교육학회, 2006), 32-33.

34) 함영주·고영국, "교리교육이 선교사 자녀의 신앙발달에 미치는 영향", 「ACTS 신학저널」 제42집(2020): 132.

35) 한춘기, "교육을 통한 신앙발달의 가능성에 대한 연구", 121-127.

36) 노은석, "기독교청년들의 영성이 생활만족도에 미치는 영향", 「선교와 신학」 No.54(2018): 158-159.

37) 이상용, "기독교 청년의 고난 회피와 회피 수준에 따른 신앙성숙도와 자아 탄력성과의 차이" (총신대학교 목회신학전문대학원, 2016), 69-71.

③ 선교사 자녀용 신앙교육 교재는 이론과 실전을 조화한 교재로 만들어야 한다. 이에 함영주는 이론과 실천적인 면이 조화를 이루기 위한 학습자 중심의 교육체계로의 전환을 위한 교수법을 개발하고 실천할 것을 제안한다.³⁸⁾ 실제적인 방법 중 하나로 Richards와 Bredfeldt의 4Ks의 활용법이 있다. 이는 ㉔ Hook(관심 끌기), ㉕ Book(성경심층 분석), ㉖ Look(성경의 원리와 삶의 연결점 찾기), ㉗ Took(학습자의 삶에 적용)이다. 이론적이고 딱딱하게 느껴질 수 있는 신앙교육을 할 때 위의 단계들은 상당히 의미있는 전개라 볼 수 있다.³⁹⁾

교육에 있어서 신앙에 대한 케어와 성경적 가치관에 대한 교육은 MK들 사이에 계속적으로 이루어져야 한다. ‘등잔 밑이 어둡다’는 속담처럼 선교사를 부모로 둔 자녀의 신앙에 대한 케어가 제대로 이뤄지지 않으면 MK 교육에 대한 논의는 대학 진학 및 취업을 위한 징검다리 정도 밖에는 되지 않을 것이다.⁴⁰⁾

6. How(현 시대에 따른 방법을 활용한 MK 교육적 케어)의 방향성

1) 미래교육의 지향원리와 에듀테크(Edu-Tech)를 접목한 체계적인 교육시스템의 구축
MK를 위한 교육 시스템 구축에 있어서 기존의 강의식 하나만을 사용하는 교육시스템에서 미래교육의 지향원리를 접목한 체계적인 교육시스템의 구축이 필요하다. 조운정은 미래교육의 지향원리로 배움에서의 학습자 주체화, 삶과 연계된 학습, 학습의 시공간 확장, 교육격차 해소를 들고 있다.⁴¹⁾ 이를 표로 정리해보면 아래와 같다.

〈표 4. 미래교육의 지향원리〉

미래학습의 지향원리	내 용	가치지향성	가치지향성의 내용
배움에서의 학습자 주체화	교육과정 기획자 및 지식관리자로서의 학습자 재개념화	주체성 (Independent)	학습자들은 주도적으로 학습의 주인이 되어 자신의 학습을 스스로 관리하여야 함
삶과 연계된 학습	자신과 삶의 기반이 되는 마을과 연계	유의미성 (Relevant)	학습자는 현재 중요한 문제들을 확인하고 해결하며, 실제 세계와 분리되어서는 안 됨
학습의 시공간 확장	비형식 및 무형식 학습과의 연계	확장성 (Scalable)	학습자들이 언제, 어디서든 학습할 수 있어야 함
교육격차 해소	보편적 학습설계 원리 적용	보편성 (Universal)	모든 학습자들이 성공 경험을 가질 수 있어야 함

38) 함영주, 「심장을 뛰게 하는 가르침의 기술」(서울: 소망플러스, 2012), 98-147.

39) Richard & Bredfeldt, 「창조적 교수법」, 안영희, 이순옥 역 (서울: 그리심, 2010).

40) 김주만, 「한국 선교사 자녀 교육에 대해」, 「한국선교 KMQ」 통권 57호(2016) 190.

41) 조운정 외(2017), 「미래학교 체제 연구: 학습자 주도성을 중심으로」, 경기도 교육연구원

위의 미래교육 지향원리는 어떤 특정한 교육환경에서만 작동하는 것이 아니라 MK들에게 교육이 이뤄질 때 적용되어야 할 방법적인 원리를 의미한다고 볼 수 있다.

여기에 현 시대의 기술스마트교육을 활용한 신앙교육 방법에 대해 연구한 하만규⁴²⁾의 방법과, 모바일을 통한 신앙교육에 대해 연구한 전병식⁴³⁾의 연구도 선교사 자녀들이 흔히 접할 수 있는 기술을 활용한 교육 방식이 MK들의 전인적 교육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고 있다는 제언을 하고 있다. 에듀테크는 특별히 포스트-코로나, 워드-코로나 시대를 맞아 2020년도에 없어서는 안 될 수단이 되었다. 이를 적극적으로 활용하여 오프라인과 온라인 교육을 병행할 수 있는 신앙교육 자료, 학습 교육 자료 등을 만들면 MK들의 지리적 한계, 이동성 한계를 극복해내며 더 좋은 효과를 발휘할 수 있을 것이다.⁴⁴⁾ 백인숙이 미래 지향적인 MK 교육 대안 개발을 위하여 제안한 내용을 살펴보면 아래와 같다.⁴⁵⁾

- ① 이 세상의 기술 변화뿐 아니라 세계 선교계, 그리고 한국 선교계의 변화에 대해서도 주시해야 한다.
- ② 전통적인 교과만으로는 미래 사회를 위해 학생들을 제대로 구비시킬 수 없다. 혁신적인 교과 구성과 교수법을 계속 창안해 내야 한다.
- ③ 인성 교육의 중요성이 더욱 커지고 있다. 글로벌 마인드를 키우고, 세계시민교육을 해야 한다.
- ④ 미래지향적인 MK 교육 문제해결을 시도해야 한다.
 - ㉔ 그 대안은 혁신적이고, 창의적이며, 지속가능한 대안이 되어야 한다.
 - ㉕ IT 강국인 한국에서 글로벌 교육 네트워크의 강력한 허브를 구성하여 한국 MK 및 재외국민의 미래지향 교육을 선도할 필요가 있다.
 - ㉖ 협업(Collaboration)을 통하여 대안을 마련해야 한다.
- ⑤ 부모들은 이제 자녀 교육에 대한 현실적인 기대를 완전히 달리 하고 열린 태도를 가져야 한다.
 - ㉗ 내적 역량 강화, ㉘ 주도권과 창의력 함양, ㉙ 지역화를 위한 의도적 노력, ㉚ 문제해결 능력 함양, ㉛ 개방성과 평생교육 모드, ㉜ 디지털 기기 사용을 통한 자녀와의 소통의 확대

42) 하만규, 「스마트 교육을 활용한 성인전기 신앙교육 프로그램 개발」(충신대학교 일반대학원, 2016); 91-93.

43) 전병식, 「모바일 러닝을 통한 기독교 신앙교육」, 「기독교 신앙교육」 Vol. 17, (2013); 160-162.

44) 한국형 블렌디드 러닝 모델을 찾아라, <https://www.eduinews.co.kr/news/articleView.html?idxno=29521>, 2020.11.23. 접속, 온라인 수업과 오프라인(면대면) 수업을 결합한 수업 형태를 블렌디드 러닝(Blended Learning) 이라고 한다. 즉, 학습 효과를 극대화하기 위해 각테일처럼 온라인과 오프라인 교육, 그리고 다양한 학습 방법을 혼합한 교육 형태라 하겠다.

45) 백인숙, 「미래지향적인 MK 교육 대안 개발을 위하여」, 「한국선교 KMQ」 통권 57호(2016) 14-24.

여기에서 주의할 점은 에듀테크는 결국 사람을 위한 하나의 도구라는 인식이 필요하다는 점이다. 교육의 본질과 기본을 놓치지 않으면서 그동안 한계가 있었던 문제를 보완하는 유용한 톨로 인식해야 한다. 이를 위해서는 기술 자체가 아니라 하나님의 형상인 사람을 중심에 놓는 기술을 모색해야 한다. 과도한 기술 만능주의와 전통적인 교육만을 고수하려는 에듀테크 ‘쇄국주의’ 역시 경계해야 하는 것이다.⁴⁶⁾

2) MK를 위한 다양한 온라인 프로그램 개발

코로나19는 포스트모더니즘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의 생활 패턴을 완전히 바꾸고 있다. 이런 상황에서 우리는 ‘사회적 거리두기(social distancing)’와 ‘거리 둔 사회생활(distance socializing)’에 대한 개념 정의를 분명히 해야 한다. ‘사회적 거리두기’란 행사, 모임 참여 자제 등 사람과의 접촉을 최소화하는 것이라면, ‘거리 둔 사회생활’은 사회적 거리두기라는 새로운 문화를 받아들여서 새 삶의 방식에도 적응하여 익숙하게 생활하는 것을 의미한다.⁴⁷⁾ 물론 직접 얼굴을 보고, 함께 식사하며, 정을 나누는 것이 주는 긍정적인 효과를 과소평가해서는 안 되지만 지금 위드-코로나의 상황에서 MK들을 향한 교육적 케어에 있어 이들에게 다가갈 수 있는 현명한 방법을 찾고 그 방법을 적용해 보는 노력이 필요한 상황이다. KWMA MK 케어 영역의 실행위원회 위원이며 MK 출신인 전수정⁴⁸⁾은 온라인으로 MK 돌봄 상담이 충분히 이루어질 수 있음을 말하면서, “10-20대 MK들은 디지털 시대와 더 맞닿아 있어서 화상으로 정서적 교류가 이루어지고 있기 때문에 선교단체들이 상담센터와 연결하여 진행하면 좋을 것 같다.”고 강조한다.

또 다른 온라인 프로그램의 예로 온라인 영성캠프,⁴⁹⁾ 온라인 기도회⁵⁰⁾ 등이 새롭게 생겨나기도 하고 기존의 프로그램이 빛을 발하며 많은 MK들이 공간과 시간의 제약을 넘어 영적 혜택을 받고 있는 상황이다. 온라인 학습 자원봉사 사역도 통합측 총회 MK사역 위원회가 세브 에듀 수학과 MOU를 맺어 MK의 수학 학습을 돕고 있고,⁵¹⁾ 수년 전부터 Skype를 활용하여 MK를 케어하던 CCC출신의 기독교사로 이루어진 교사선교단체 CCC-TIM의 원격수업 역시 큰 효과를 내고 있다. 지난 8월 28~29일에는 KWMA MK케어 영역 실행위원회 주최로 제1회 “2020 Online MK Career Guide”가 개최되었다. 이는 원래 올해 개최하기로 한 MK 취업 박람회가 코로나19로 연기되면서 이루어진 것인데, 오히려 온라

46) 김성천, “코로나19가 우리 교육에 남긴 것은 무엇인가”, 『월간 좋은교사』 (2020. 8월호), 25.

47) 장은경, “거리 둔 사회생활에서의 MK 사역”, 『선교타임즈』 (2020.8월호), 39.

48) Ibid, 40.

49) 올해 생겨난 온라인 영성캠프로 킹덤 컨퍼런스가 있다. <https://kingdomusa.org/>, 2020.11.23. 접속.

50) 다니엘 기도회는 올해 13,000여 참여교회를 뛰어넘어 150,000 가정에서 진행되었다. <https://www.danielprayer.org/hmpg/biz/main/HmpgMain.do>, 2020.11.23. 접속.

51) Ibid, 41.

인 화상 플랫폼인 Zoom으로 개최하게 되면서 전 세계에 흩어져 사는 MK들이 더 많이 참여할 수 있는 기회가 주어진 새로운 성과를 얻게 되었다.

또한 앞으로는 TCK와 MK 사역자들이 참여하는 Global Summit과 같은 대회들도 온라인 개최로 전환될 것을 예상하면서 세계 각국의 사역자들이 역설적으로 더 많이 참여하게 되는 일들이 일어날 것이다.⁵²⁾ 여기에 더하여 MK의 전인적 케어에 관심이 있는 부모 선교사, 이들이 속해 있는 선교단체, 파송교회, 기독교 학교 및 여러 기관들이 각자의 위치에서 MK 케어를 위해 함께 협력하고 개입하며 실행할 방안들이 무엇인지 모색하고 적극적으로 노력하게 되는 계기가 열릴것이라 예상해 볼 수 있다. 이와 같이 MK를 위한 다양한 온라인 프로그램이 개발되어 새로운 패러다임의 사역이 일회적으로 끝나지 않고 지속됨으로써 MK들에게 더 풍성한 교육적 케어가 적용되길 기대해본다.

IV. 나가는 말

한국교회는 처음부터 선교하는 교회였다. 대부분의 교회마다 조직명을 ‘선교회’로 이름 붙이는 것만 봐도 선교에 대한 열정과 역사를 느낄 수 있다. 외국 선교사들의 많은 순교와 선교의 역사로 말미암아 1907년 드디어 한국 제1호 선교사 이기풍 목사가 제주도에 선교사로 파송되었고 이후로도 선교 DNA가 한국교회에 빠르게 전달되었다. 이렇게 선교 강국으로 성장한 한국이지만 이러한 성장의 이면에 선교사들의 애환이 담긴 문제들이 노출되고 있다. 그중에 대표적인 것이 선교사 자녀, MK 교육에 관한 것이다. 선교사 자녀들 가운데는 타문화의 적응과정에서 생기는 정체성 혼란이나 감정적 변화, 신앙적인 문제 등의 다양하고도 복합적인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경우가 많다. 이로 인해 안 좋은 영향으로 선교사의 중도 사역 포기, 도시 중심의 사역 편중, 선교 재정의 전략적인 지출 부족 현상 등이 나타나고 있다.⁵³⁾

이에 본 소고에서는 현재 한국 MK선교사 자녀 교육 케어의 방향성을 6하 원칙으로 살펴 보며 첫 번째로 27년 전 공유된 교육 철학 연구가 새롭게 이루어져야 하고 이것이 다시 재 공유 되어야 함을 Why의 관점에서 제안하였다. 또한 두 번째로 MK 교육에 있어 중요한 협력 그룹인 부모 그룹과 교사 그룹, 교회 및 파송 단체 그룹이 서로 협력하며 종합적으로 케어해야 함을 Who의 관점에서 살펴보았다. 세 번째로 MK의 연령에 따른 전 생애적 케어의 방향성과 파송 시기에 따른 케어를 When의 관점에서 구체적인 사례를 통해 정리해보았다. 네 번째로 MK가 어디에서 배우느냐와 지역별(대륙별)을 숙고한 방향성의

52) 전수정, Global TCK Summit - 세계 각국에서 모인 TCK와 MK 사역자들, 『선교타임즈』 (2020.2월호), 36-38.

53) 함영주 · 고경국, “교리교육이 선교사 자녀의 신앙발달에 미치는 영향”, 『ACTS 신학저널』, 제42집(2020); 147.

케어가 필요함을 Where의 관점에서 다시한번 환기하였다. 다섯 번째로 한국 MK의 교육적 케어 있어서 다양한 내용을 다뤄야 하지만 특별히 중요하지만 취약하다고 여겨지는 신앙에 대한 케어의 방향성에 대해 What의 관점으로 살펴보았다. 마지막으로 급변하는 현 시대를 반영한 교육원리와 기술을 활용한 MK 케어의 방향성을 How의 관점에서 제안해 보았다. 아무쪼록 본 소고를 통해 선교사 자녀(MK)들이 영성, 인성, 지성의 전인격적인 성장에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는 통찰을 제공해주기를 소원해본다.

참고 문헌

이현모, 「현대 선교의 이해」, 대전: 침례신학대학 출판부, 2000.
 Ted Ward, Values Begin at Home, 김희자 역, 「자녀교육을 깨운다」, (두란노, 1989).
 함영주, 「심장을 뛰게 하는 가르침의 기술」 (서울: 소망플러스, 2012).
 Richard & Bredfeldt, 「창조적 교수법」, 안영혁, 이순옥 역 (서울: 그리심, 2010).
 A. Scott, Moreau, Evangelical Dictionary of World Missions, (서울:CLC, 2014).
 David Carlson, Counseling and Self-Esteem, 이관직 역, 「자존감」 (서울: 두란노, 2002).
 폴 히버트, 「선교와 문화 인류학」, 김동화 역 (조이선교회, 1996).
 문상철, 「한국 선교사 자녀들의 교육적 필요」 (서울:한국해외선교회출판부, 2013).
 김민수, 「선교사 자녀들의 기독교 세계관과 신앙생활의 상관관계」, 총신대학교 선교대학원, 2018.
 김은경, 「선교사자녀 교육에 대한 연구」, 목원대학교, 2006.
 김덕순, 「선교사 자녀들에게 있어서 부모와의 관계가 신앙에 미치는 영향」 (총신대학교 신학대학원, 2003).
 김종성, 「선교와 현장」, 「선교와 현장」 제6집(2001).
 서성민, 「선교사 자녀의 신앙교육」, 「교회 교육」 204 (1993).
 김국환, 「신앙 발달과 기독교교육」 (서울: 기독교교육학회, 2006).
 백인숙, 「낮선 고향에 돌아온 한국 MK 첫 세대」, 「MK 저널」 (2003 가을호).
 광영옥, 「한국 선교사 자녀교육에 대한 연구」 (협성대학교 신학대학원, 2008).
 박재덕, 「선교사 자녀교육의 방향:아프리카의 경우」, 「한국선교 KMQ」 통권 57호(2016).
 강병권, 「MK 정체성 혼란과 대안」, 「한국선교 KMQ」 통권 57호(2016).
 장은경, 「MK 사역의 새로운 패러다임에 대한 연구」, 「한국선교 KMQ」 통권 57호(2016).
 이래신, 「좋은교사운동 교육선교 현황과 전망」, 「월간 좋은교사」 (2016. 10월호).
 김성천, 「코로나19가 우리 교육에 남긴 것은 무엇인가」, 「월간 좋은교사」 (2020. 8월호).
 방준범 · 전병철, 「한국MK에 관한 국내 연구 동향과 고찰」, 「ACTS 신학저널」 제35집(2018)
 홍세기, 「한국 MK를 위한 최선의 교육과 한국 교사 선교사」, 「한국선교 KMQ」 통권 57호(2016).
 허은영, 「선교사 자녀 어떻게 도울 수 있을까?」, 「한국선교 KMQ」 통권 57호(2016).
 김주만, 「한국 선교사 자녀 교육에 대해」, 「한국선교 KMQ」 통권 57호(2016).

봉미숙, 「그것이 알고 싶다 선교사 자녀」, 「세계선교훈련원 격월간 소식지 WMTC」, (1997년 6월호)
 Joyce M. Browsers, ed., Raising Resilient MKs, (Association of Christian School International, 1998).
 김동화, 「선교사 자녀들의 특성 및 한국 선교사 자녀 교육의 방향」, 「한국 선교사 자녀 핸드북」 박순남 편(서울:한국해외선교회출판부,1999).
 함영주 · 고경국, 「교리교육이 선교사 자녀의 신앙발달에 미치는 영향」, 「ACTS 신학저널」 제42집(2020).
 노은석, 「기독교청년회의 영성이 생활만족도에 미치는 영향」, 「선교와 신학」 No.54(2018).
 이상용, 「기독교 청년의 고난 회피와 회피 수준에 따른 신앙성숙도와 자아 탄력성과의 차이」 (총신대학교 목회신학 전문대학원, 2016).
 조윤정 외(2017), 「미래학교 체제 연구:학습자 주도성을 중심으로」, 경기도 교육연구원
 하만규, 「스마트 교육을 활용한 성인전기 신앙교육 프로그램 개발」 (총신대학교 일반대학원, 2016).
 전병식, 「모바일 러닝을 통한 기독교 신앙교육」, 「기독교 신앙교육」 Vol. 17. (2013).
 장은경, 「거리 둔 사회생활 에서의 MK 사역」, 「선교타임즈」 (2020.8월호).
 장은경, 「KWMA MK영역 실행위원회 주최 제1회 "2020 ONLINE MK CAREER GUIDE"를 은혜 가운데 마친다」, 「선교타임즈」 (2020.11월호).
 전수정, Global TCK Summit - 세계 각국에서 모인 TCK와 MK 사역자들, 「선교타임즈」 (2020.2월호).
 고명진, 침례교회의 특징(장점과 단점), <http://www.newspower.co.kr/26021>, 2020.11.23. 접속.
 교육의 혁명! 미래를 변화하는 디지털 교육 '에듀테크'란?, <https://www.lifentalk.com/1820>, 2020.11.23.접속.
 한국형 블렌디드 러닝 모델을 찾아라, <https://www.eduinews.co.kr/news/articleView.html?idxno=29521>, 2020.11.23.접속.



Bible in All Children's Hands 선교 콘텐츠 원더풀스토리

| 이상훈 선교사(FMB/베트남)



1. 원더풀스토리

UBS '2019년 세계 성서 번역 현황 보고서'에 따르면 2019년 말 기준 성경전서는 지구 상 총 7,359개의 언어 중 694개의 언어로 번역되었다고 한다. 하지만 어린이들에게 보급 되는 어린이 성경 스토리는 100여 개 언어에 불과하다. 이 중 원더풀스토리 어린이 성경은 38개국 55개 언어로 번역되어 어린이들의 손에 전달되고 있다.

원더풀스토리는 "Bible in All Children's Hands - 모든 아이들의 손에 말씀을"이란 가치로 미전도 종족들을 향하여 어린이 성경 콘텐츠를 보급하는 사역이다. 이 사역을 진행하는 이상훈 선교사는 침례신학대학교 신학대학원, 총신대 교육대학원, 그리고 미국 MBTS에서 박사과정을 공부했으며 침례교단 교회진흥원에서 교재 개발과 집필, 출판을 담당하였고 '틴틴과워인 지저스' 청소년 공과, 예수꼐 공과 아동 청소년파트의 기획, 집필자였기도 하다. 베트남 오기 직전까지 서울 목동에 위치한 영도중학교 교목으로도 8년간 활동하였다.

2004년부터 베트남/중국어 어린이 성경 이야기와 교재 제작으로부터 시작된 원더풀스토리 콘텐츠 제작 사역은 2009년 베트남으로 베이스 옮긴 후 현재 전 세계 어린이들의 손에 성경 말씀을 전달하기 위한 일들을 펼치고 있다. 50여개 언어로 어린이 성경 이야기



'원더풀스토리' 제작하고 있으며 30여개 언어로 출판을 하였다. 현재는 Bible in All Children's Hands의 대표 선교사이며 베트남 침례신학교 교수로도 활동 중이다.

2. 선교현장 스토리

선교 콘텐츠의 제작

원더풀스토리 어린이 성경 이야기는 한국으로 시집온 베트남 여성의 기도와 소원으로 부터 시작이 되었다. 베트남에서 한국으로 이주해 결혼하고 아이를 두고 있지만 엄마의 언어인 모국어로 아이와 대화 되지 않는 것을 알았다. 엄마는 그녀의 모국어로 아이들과 대화하기 원했다. 그리고 아이에게 성경 이야기를 들려주기를 원했다. 하지만 모국어로 된 어린이 성경이야기는 없었다. 어린이 그림 성경이 자신의 모국어로 있기를 기도해 왔다는 이야기는 감동이 되었다. 그때부터 약 3년간 원더풀스토리 어린이 성경 작업이 시작 되었다. 470컷에 이르는 그림과 스토리 작업이 진행되었다.

첫 어린이 성경이 베트남어였으며 그 다음이 중국어였다. 가장 최근에는 우크라이나 난민 아이들에게 전달하기 위한 원더풀스





토리 어린이 성경이 5천 세트가 인쇄되었다. 현재는 폴란드에서 2차 인쇄가 준비 중이다.

협력사역의 모델 원더풀스토리

베트남어 어린이 성경 출판을 위해 2008년 베트남에 도착했을 때 ‘사회주의 국가인 베트남에서 어린이 성경을 출판할 수 있을까’라는 질문이 있었다. 하지만 경제적으로 발전하고 있는 베트남 그리고 제한적이지만 종교의 자유를 허락하고 있었다. 2년 간의 현장 리서치 결과 출판이 가능하다는 판단을 할 수 있었다. 이때 정식 허가 과정을 신청하였고 첫 출판이 이루어지게 되었다. 다음 문제는 이 책의 보급을 어떻게 하느냐가 문제였습니다. 이 때 현장 선교사들과의 협업은 사역의 공유 모델로서 콘텐츠가 유용하게 사용되어지는 과정을 만들어 볼 수 있었다. 교단 교파를 초월하여 원더풀스토리 보급을 위한 협의체를 구성하였고 함께 지역과 교회에 책이 내려갈 수 있도록 협력하는 시스템이 만들어졌다. 그리고 그것을 활용하는 프로그램도 제작이 완성 되었다.

원더풀스토리 리딩 캠프

책은 읽어야 그 가치가 발휘된다. 어린이 성경 이야기 원더풀스토리는 엄마의 마음으로 만들어진 책이다. 자신의 아이에게 엄마의 마음으로 성경 이야기를 읽고자 하는데서 시작된 사역이었다. 책을 출판한 다음 책의 보급을 고민하던 중 여러 단체 선교사들이 함께 리딩 캠프를 만들어 볼 것을 제안했다. 각기 다른 은사가 있는 선교사들이 함께 모여 프로그램을 고민하고 지역별로 보급하는 계획을 세웠다. 협업이었다. 그 결과 원더풀스토리는 성경 읽기 캠프로 발전했고 현재는 베트남 중심 교단이 공식 프로그램으로 인정하는 교회학교 리딩 캠프가 되었다. 2011년부터 현재까지 약 3만 명의 베트남 주일학교 어린이들이 참여하는 프로그램이 만들어졌다. 책에서부터 출발한 어린이 캠프 프로그램은

한국의 단기 선교팀들이 현장사역에 활용하기에도 효과적이어서 베트남의 많은 선교사들이 함께 이용하고 있다.

3. 원더풀스토리의 확장

모든 아이들의 손에 다국어 프로젝트 원더풀스토리

‘원더풀스토리’는 복음을 전하는 효율적인 도구로 개발된 어린이 그림 성경이다. 앞서 베트남 사례를 경험한 이후 많은 나라의 언어로 원더풀스토리는 보급되고 있다. 현재 50여개 언어로 만들어지고 있으며,



약 30여개 언어로 출판이 되어 있다. 유럽에서는 그리스 집시들(그리스어)과 시리아(레반트아랍어) 난민 캠프와 아프가니스탄(다리어) 난민 루트에 보급되고 있다. 특히 시리아어는 터키에 있는 시리아 난민들에게 보급하기 위해 허가를 받아 인쇄하였다. 2016년 터키 군부 쿠데타가 일어나기 직전 터키어 원더풀스토리 어린이 성경을 신청했는데 극적으로 허가를 받았다. 쿠데타 중에 허가가 나온 것은 예상치 못한 일이었다. 이를 근거로 시리아 아랍어와 아프가니스탄 다리어를 함께 신청하였다. 터키어가 허가되자 두 언어도 순조롭게 허가를 받을 수 있었다. 이를 계기로 요르단, 레바논에서 추가 인쇄를 하였다. 시리아에서 레바논을 오가는 목회자들이 시리아 안에서 인쇄를 요청한 것은 2019년이었다. 시리아 안에서 3천권의 신구약 원더풀스토리도 허가를 받아 인쇄를 할 수 있었다. 마음으로는 이것은 기적이라고 생각했다.

미주에서는 스페인어로 출판하여 남미 선교의 도구로도 소개되고 있습니다. 동남아시아에서는 원더풀스토리 캠프 프로그램으로 제작되어 미얀마, 태국, 캄보디아, 라오스 베트남에서 보급되고 있으며, 베트남의 경우 약 3만 명의 아이들이 교회활동 및 전도 프로그램으로 참여하고 있습니다. 현재까지 한국어, 영어, 베트남어, 스페인어, 중국어, 몽골어, 캄보디아어, 미얀마어, 태국어, 인도 벵갈어, 인도 힌디어, 레반트 아랍어, 페리시

아 아랍어, 그리스어 등으로 출판되어 있으며, 베트남 소수부족 13개 언어로 출판이 되고 있다.

현재, 72개의 성경 이야기 그리고 470여개의 그림을 통해 어린이들이 꼭 알아야 할 주제들로 편집하여 단기선교와 교회학교 활동 자료로 사용하도록 하고 있다. 선교 현장에서 주요 접촉 대상이기도 한 어린이들에게 복음을 전할 수 있는 쉬운 방법을 제시하고 있다. 연령의 제한 없이 다국어로 미전도 종족에게 전달 도구로 사용하며 소수부족이나 글을 모르는 대상들에게 복음을 전할 수 있는 그림 성경으로 '예수 필름'과 같은 역할을 하고 있다.

4. 원더풀스토리 온라인 콘텐츠

원더풀스토리 어린이 성경이야기는 책으로 출발했지만 다양한 활동들이 개발되어 온라인 상으로 확장되고 있다. 첫 번째는 각국 언어로 녹음하여 움직이는 콘텐츠로 제작되고 있다. 유튜브로도 보급되고 있다. 인터넷 상황이 좋지 않은 곳에서는 녹음 파일로 듣는 오디오 성경 이야기로 제작되어 보급된다. 두 번째는 TV 유치원처럼 온라인 성경 유치원으로 각 주제별로 제작되어 보급되고 있다. 세 번째는 온라인 상에 성경이야기 각 과를 활동 프로그램으로 만들어 신 구약 전체 주일학교 운영이 가능하도록 보급하고 있다. 현재는 베트남으로 제작되고 있지만 각국 언어로도 확장되어 나갈 예정이다.

원더풀스토리 확장 프로그램 중 주일학교 활동 프로그램은 현재 베트남 원키즈 클럽을 통해서 제작되고 있다. wonkidsclub.net은 원더풀스토리 각 주제별로 주일학교 또는 가정에서 사용할 수 있도록 성경 이야기 콘텐츠를 제작하여 보급하고 있다. 또한 베트남 온라인 보급 기독교 단체에서는 HOPE STORY라는 이름으로 원더풀스토리의 주제들을



주일학교 온라인 콘텐츠로 제작하여 보급하고 있다.

5. 원더풀스토리의 선교적 의미

원더풀스토리 사역은 누가복음 1장 1절에서 4절의 말씀을 기초로 하고 있다. “우리 중에 이루어진 사실에 대하여 처음부터 목격자와 말씀의 일꾼 된 자들이 전하여 준 그대로 내력을 저술하려고 붓을 든 사람이 많은지라 모든 일을 근원부터 자세히 미루어 살핀 나도 데오빌로 각하에게 차례대로 써 보내는 것이 좋은 줄 알았노니 이는 각하가 알고 있는 바를 더 확실하게 하려 함이로라”

기독교의 가장 중요한 특징은 성경의 존재다. 그리고 성경이 있음으로 믿음의 전승이 변하지 않을 수 있었다. 특히 유일한 헬라어로 쓰여진 누가의 편지는 곧 다른 민족 로마 사람 데오빌로에게 편지로 전달되고 그것을 읽으므로 복음이 전달되게 되었다. 원더풀스토리는 그와 같은 배경으로 유년기 어린이들에게 복음을 전하기 위한 도구로 만들어졌다. 쉬운 어린이의 눈길과 언어로 72개의 스토리를 선택과 인지능력이 발달하는 유아 유년 시기에 72개 성경이야기를 복음의 내용을 담아 성경 이야기를 그림으로 전달함으로써 복음을 효율적으로 전달하도록 제작하였다. 원더풀스토리 어린이 성경은 누가의 편지처럼 선교적 의미로 제작되어 복음의 통로로 사용된다.

에필로그 - 선교 콘텐츠 서밋 원더풀스토리

원더풀스토리 어린이 성경이 국제적으로 확장이 시작된지 만 10년이 되었다. 그동안 원더풀스토리 제작에 참여한 국가수는 38개 국이다. 함께 일한 선교사만 50여 명이 넘는다. 콘텐츠 제작에 참여한 사람들은 10명 정도 되고 각국에서 출판에 참여한 현지인들도 물론 많다. 번역자들은 더 많이 참여했다. 이를 기념하여 내년 1월 9일부터 제1회 국제 선교 콘텐츠 서밋을 원더풀스토리를 주제로 호치민에서 열게 되었다. 현재 22개국 60여명이 참석하는 대회가 준비되고 있다. 모두 원더풀스토리를 출판한 국가 대표들로 원더풀스토리 콘텐츠가 선교사역에 어떻게 영향을 주고 있는지와 원더풀스토리 다음 사역에 대한 이야기들을 나누게 된다. 4차 산업 시대에 선교사역도 변화가 필요하다. 아니 새로운 도전이 필요하다. 원더풀스토리는 10년 동안 온라인 기술 변화 속에서 함께 해 왔으며 선교 플랫폼으로 자리 잡았다. 10년을 경험으로 다음 사역을 준비하는 터닝 포인트가 될 것으로 기대된다.



MUT-pro. 소감 (기간 : 7월 12일 ~ 8월 11일)

● 조중수

선교지의 척박한 상황과 사역의 어려움으로 인해 몸과 마음이 많이 지쳐있었습니다. 그래서 훈련에 대한 기대가 크지 않았고, 자원하여 신청했어도 팔짱을 끼고 관망하는 듯한 자세로 훈련을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저도 모르는 사이에 멘토 선교사님들의 사랑과 스텝들의 섬김, 동기들의 따뜻한 관심으로, 얼어붙은 저의 마음이 녹으면서 자연스럽게 팔짱이 풀리는 것을 경험하였습니다. 훈련 마지막 즈음, 하나님께서는 제게 사명을 좇아 예루살렘을 향했던 바울의 마음을 허락해 주셨습니다. 주님께서 주시는 마음을 감사하는 마음으로 굳게 붙잡고, 허락하신 사역지로 돌아가 감사하는 마음으로 사역하겠습니다.

● 김선영

선교지의 척박함과 소외된 관계, 사역의 버거움으로 인해 많이 지쳐있는 상태에서 훈련에 참여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런지 훈련 초반에 있었던 심리 검사와 자기 진단이 버겁게 느껴지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5주간의 훈련은 '나는 무엇을 해야 하는가?', '어떻게 살아야 하는가?'에 대한 답 찾는 기회였고, 인생과 사역의 방향을 점검하고 재설정하는 시간이었습니다. 다시 사역지로 귀임하려고 보니, 여전히 척박한 환경과 소외된 관계 그리고 어려운 사역들이 눈에 보입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그곳에서도 저와 함께 해주시겠다고 약속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저는 이 약속만 붙잡고 오늘도 믿음으로 한 걸음을 내딛기로 하였습니다. 포기하고 싶은 마음을 바로잡고 다시 방향을 설정하여 믿음으로 걸음을 뚝 수 있도록 도와주신 멘토 선교사님들과, 사랑으로 섬겨 주신 스텝들에게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 유정주

사역의 한계와 개인적인 사정으로 갈피를 잡지 못하던 상황에서 MUT-pro.에 관한 소식을 듣게 되었습니다. 자연스럽게 훈련에 대한 기대감이 생겼고, 그동안 선교지에서 해결하지 못한 다양한 문제들을 훈련을 통해 해결 받고 싶어졌습니다. 그리고 실제로 이번 훈련을 통해 많은 것들을 구체화하고 방향을 잡을 수 있게 되어 감사했습니다. 훌륭한 멘토 선교사님들을 통해 선교사로서 놓치지 말아야 하는 것이 무엇인지 다시금 마음에 새기게 되었고, 가정 역시 놓치지 말아야 할 중요한 요소임을 알게 되어서 감사했습니다. 여러 가지 이유로 인해 '우리가 이 길을 끝까지 걸을 수 있을까?' 하며 절망하기도 했는데, 훈련을 통해 만난 멘토 선교사님들을 보며 다시 한번 소망을 품게 되었습니다. 또한 함께 훈련받는 선교사님들의 모습을 보며 나의 부족함을 발견하고 단련할 수 있었던 좋은 기회였습니다. 이렇게 좋은 훈련을 마련해 주시고 사랑으로 섬겨주셔서 감사합니다.

● 고기영

저는 가정에 일이 있어 한국에 들어와야 했던 차에, 훈련이 있다는 말을 듣고 신청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런지 처음에는 훈련에 대한 기대감이 크지 않았습니다. 지금 생각해보니 저는 많이 지쳐있었고, 이 사실에 대해 저를 비롯한 주변 사람들은 이미 알고 있었지만, 저는 그런 것들을 애써 부정하며 힘겹게 앞만 보고 달리려고만 했던 것 같습니다. 다행히 이번 훈련을 통해 방향을 잡지 못했던 사역과 답답한 인간관계에 대한 실제적인 도움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 그동안 저는 좋은 결과를 얻기 위해 지나치게 일에 몰두하여 중요한 것을 놓치면서 사역하는 경우가 많았는데, 훈련을 통해서 좋은 결과를 얻는 것보다 좋은 선교사가 되는 것이 더 중요하다는 새삼 깨닫고 결심하게 되었습니다. 경계심을 갖고 사람을 대하던 저를 따뜻하게 섬겨주시고, 좋은 훈련을 통해 앞으로의 사역을 어떻게 감당할지 고민하게 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 박희찬

비자 문제로 인해 국내 머무르는 시간이 길어지면서, 검사겸사 훈련에 참여하게 되었습니다. 훈련을 통해 서로 다른 사역지에서 헌신적으로 사역을 감당하고 있는 여러 선교사님들을 ‘훈련 동기’로 만날 수 있어서 행복했습니다. 무엇보다 아이들(MK)을 만날 수 있었다는 것은 저에게 있어서 너무 감사하고 행복한 일이었습니다. 더 자주 만나서 많이 교제하고 싶었는데 그러지 못해 아쉽습니다. 부족한 제 이야기를 끝까지 들어주시고, 저의 문제와 상황을 놓고 진심으로 기도해 주신 멘토 섬교사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처음부터 끝까지 따뜻한 마음으로 대하시는 멘토 선교사님들을 보며 어느샌가 저도 ‘저분들을 닮고 싶다. 저분들처럼 살고 싶다.’는 마음이 생겼습니다. 저에게 있어서 MUT-pro는, 자신을 아끼지 않고 내어준 많은 사람들이 텅 비어버린 저를 가득 채워준 시간이었습니다. 10년 후 이 훈련을 돌아보았을 때, 지금의 감사가 삶의 흔적으로 나타나 있을 수 있도록 열심히 살아가겠습니다.

● 유은미

누군가의 권유로 참석하게 되었고, 사실 불순한 마음도 없진 않았습니니다. 이런 저의 이야기를 편견 없이 다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무엇보다도 모범적인 선배 선교사님들을 멘토로 만나서 선교사로서 닮고 싶은 모델이 생겨서 감사했습니다. 훈련을 통해 만난 동료 선교사님들을 보며, 각자 자신에게 주어진 사역으로 힘들 때 서로가 서로를 끌어주는 관계가 맺어진 것 같아 감사했고, 저희 가정에도 그 역할이 주어졌다는 사실에 감사했습니다. 또한 동기 훈련생들이 각자 가진 사역에 대한 진지한 고민을 나눌 때는 ‘관계의 문제’에 매여있던 저를 돌아보게 되었고, 앞으로 어디에 초점을 맞추며 살아야 할지 생각하게 되었습니다. 마음을 열고 친숙하게 다가와 ‘전우애’가 무엇인지를 알게 해주신 동기 선교사님들과, 드러나지 않는 곳에서 겸손하게 저희를 섬겨주신 많은 분들께 감사드립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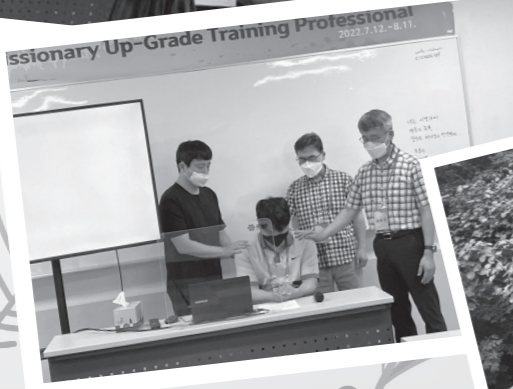
● 나명숙

저는 신입 선교사 훈련을 받지 않은 상태에서 남편을 따라 선교지로 갔기 때문에, 훈련이 꼭 필요했던 상황이었습니다. 파송 전 본부와 했던 약속을 지키기 위해 훈련을 신청하긴 했지만, 사역지를 비워야 하는 상황은 여러모로 부담이었습니다. 그런데 훈련을 받고 나니 ‘선교 훈련은 올바른 선교의 시작’이라는 말의 의미를 알 것 같습니다. 훈련을 통해, 사역의 한 팀을 다시 시작하기 전 ‘선교사로서의 정체성’을 재정립할 수 있었고, 신선한 강의와 세심한 멘토링을 통해 사역에 대한 기술을 하나씩 갖추게 되었습니다. 또한 사역 계획과 언어습득에 대한 부담감 없이 사역했던 이전과는 달리, ‘자랑스러운 FMB 선교사’로서 최선을 다해 언어를 배우고, 주님께서 주신 계획을 붙잡고 열심히 사역해야겠다는 마음이 들었습니다. MUT-pro가 필수 훈련이 된다는 말을 들었는데, 3년쯤 지나 이 훈련의 효과를 간증할 수 있는 기회가 저에게 꼭 주어졌으면 좋겠습니다.

● 김유진

우선 MUT-pro.를 위해. 보이지 않은 곳에서 수고해준 스텝들과, 선교사라는 이름 하나로 기꺼이 섬겨준 많은 교회와 성도님들, 그리고 끝까지 저희들을 위해 기도해주신 중보 기도팀에게 감사합니다. 선교지에서는 함께 마음을 나눌만한 친구가 없었고 어딜 가든 항상 막내였는데, MUT-pro.를 통해 좋은 동료, 친구, 룸메이트를 만나서 감사합니다. 또한 그동안 사역에 대해 돌파가 일어나지 않아 답답했는데, 탁월한 멘토 선교사님들을 만나서 격려받고, 섬세하게 조언을 들을 수 있어서 감사했습니다. 저에게 있어서 MUT-pro.는 신학을 하지 않은 평신도 여성 싱글 선교사로서 겪는 어려움을 씻어내는 행복한 시간이었습니다. 또한, 막연했던 것들이 명확하게 보이고, 앞으로의 사역을 위한 맷집을 기르는 시간이었으며, 제가 선교 사역을 감당하는 것을 기뻐하시는 하나님의 마음을 받는 시간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사진으로 보는 MUT-PRO.



MUT-senior 소감 (기간 : 10월 18일 ~ 11월 10일)

● 사라김/아브라함차 (TJ국)

두 번째 안식년에 나와 2주만에 아버님이 소천 하셨습니다. 그 이후 남편은 기가 다 빠진 사람처럼 무기력이 되었고, 저는 코로나 후유증으로 질병으로 고통의 시간을 보냈습니다. 그러다 보니 MUT훈련을 신청한다고 남편이 말할때 동의를 하지 않았습니다. 한달을 훈련 한다는것도 마음에 들지 않았고, 은퇴 이후의 삶을 준비하는 훈련이라는것도 마음에 들지 않았습니다. 왜냐면 우린 은퇴가 아직 멀었다고 생각했기 때문입니다. 더욱 싫었던것은 저의 평생에 한번 오는 회갑을 훈련원에서 있고 싶지 않았습니다. 저는 이런 부정적인 생각으로 가득찼기 때문에 어떤 기대도 없이 들어왔습니다. 첫주간 프로그램을 보니 디브리핑과 갖가지 검사로 가득차 있어 더욱 맘에 들지 않았습니다. 마음이 닫힌 상태였기 때문에 마음을 열어 남들에게 이야기 한다는 자체가 부담스러워 아무것도 준비하지 않았습니다. 나이순으로 하는 디브리핑에 우리 부부는 막내였기 때문에 마지막 순서 이어서 먼저 모든 분들의 삶을 들었습니다. 처음 만나는 모든 분들에게 친근감과 존경이 들기 시작했습니다. 강의가 시작되면서 “안 오면 큰일날뻔 했다. 우리가 복 받았다”라는 생각이 들기 시작했습니다. 사역에 몰두하여 앞만 보고 달려온 저희 부부는 지난 시간을 돌아 볼 시간도 돌아보고 싶지도 않았습니다. 또한 은퇴 이후의 삶에 대하여 막연함과 남의 이야기처럼 생각했었습니다. 지금까지 사역에만 집중하느라 선교사님들과도 교제해보지 못하다가 선교사님들과 교제함이 어찌나 좋고 기쁘던지, 저는 시간이 가는것이 아까웠습니다. 또 하나는 가장 행복한 회갑이 될줄을 누가 알았겠습니까? 선교지에서 동일한 사역을 하면서 고난과 기쁨을 겪었던 선교사님들의 회갑 축복과 기도는 저의 평생에 잊을수 없는 추억을 만들어 주었습니다. 또 귀한 선교사님들에게 회



갑 기념으로 식사를 대접해 드릴 수 있는 기회를 얻은 것도 잊을 수 없는 기쁨입니다. 저는 지금까지 여러 훈련을 받으면서 이번 MUT 훈련처럼 즐겁고 행복한 훈련은 없었던것 같습니다. 다양하게 저희에게 필요한 훈련과 다양한 통로에서 공급하는 풍성한 식사 교제도 저희를 행복하게 하는 이유 중의 하나입니다. 저에게 있어 MUT 훈련은 ? “행복”입니다.

● 이재호/신옥순 (필리핀)

안녕하세요. 이재호 신옥순 선교사입니다. 먼저 MUT에 불러 주신 하나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나눔과 축복, 강의와 상담, QT와 세움기도회와 예배, 풍성한 식사와 Group 모임으로 구성된 스케줄이 알차고 짜임새가 있었습니다. 편안하고 쾌적한 환경과 공동생활 시설이 훈련에 집중하기에 적절했습니다. 헌신적이며 노련한 스태프분들의 섬김, 통찰력있는 강사님들의 균형잡힌 탁월한 강의, 본받고 싶은 동역자님들과의 만남이 기쁘고 감사했습니다. 진실한 삶이 사역과 얼마나 깊이 연결되어 있는지 가까운 가족들에게 인정받는 선교사라야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선교사임을 보고 배운대로 남은 선교 기간과 은퇴 이후까지 실천하고 적용하도록 하겠습니다.

● 윤누가/황안나 (중앙아시아)

우리에게 MUT훈련은 예기치 않은 은혜라고 할 수 있다. 처음 훈련에 대한 제안을 받았을 때 우리에게 꼭 이런 훈련이 필요할까 생각하였었다. 그러나 훈련이 시작되는 첫날부터 동료선교사님들의 디브리핑을 들으며 우리의 생각이 짧았음을 느끼게 되었다. 동료선교사님들의 자라온 배경과 사역을 들으며, 연륜이 깊은 교수님들의 강의를 통해 우리에게 주시는 은혜는 ‘공감과 감사’라는 단어로 표현할 수 있을 것 같다. 첫째, 우리 자신에 대하여 알려주는 심리검사결과와 모든 지표와 여러 교수님들의 강의에 우리 자신이 정말 그렇다고 공감하게 되었다. 특별히 우리의 내면을 보게 하는 선교사의 발달주기와 중 노년 부부에 대한 강의는 우리가 어떤 단계에 있는 가를 보여주었다. 둘째, 함께 한 동료 선교사님들의 삶의 배경과 해온 사역은 다르지만, 하나님께

서 사역자로서 삶을 준비하여 주신 과정과 사역을 통하여 나타내시는 은혜의 손길은 모두 ‘아멘!’으로 공감할 수 있는 것이었다.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은 사역자들이 나누는 모든 것은 하나같이 감동이고, 격려가 되는 것이었기에 함께 울고 웃을 수 있었다. 셋째, 은퇴를 몇 년 앞둔 선교사로서 다시 이 시대에 대한 이해와 선교방향에 대한 도전에 깊이 공감하며 마지막 남은 사역에 건강하게 참여하기를 다짐하게 하였다. 특별히 선교사로서의 사역을 마무리하고 ‘은퇴’를 한다는 것은 소명에 따라 새로운 삶으로 나아간다는 것에 고개를 끄덕이며 감사한다.

기도로 든든한 버팀 목이 되어 주신 중보팀과 훈련의 고된 노고를 기꺼이 담당하여 주신 MUT-Senior 모든 스텝 분들께 깊이 감사드린다.

● 이수홍/정애주 (Kr국)

2012년 WMTC 훈련을 받고 Kr국으로 가서 10년의 사역을 하고 이번에 나와 MUT 훈련을 받으면서 너무나 큰 사랑을 받으며 선배 선교사님들의 디브리핑 시간에 사역 이야기를 들으면서 힘들었던 사역들을 오직 주님만을 바라보시며 승리의 삶을 사신 삶에 박수를 보내며 나도 앞으로의 사역을 선배님들처럼 말씀과 기도로 사역지에서 힘있게 사역하라 다짐을 하면서 나도 모르게 숙연해지고 가슴이 뭉클 하였습니다.

아침 QT 시간에 말씀을 읽고 묵상과 적용을 해왔었는데 새로운 방법으로 더 깊이 말씀을 깨닫고 한편의 설교까지 할 수 있는 은혜의 시간이었습니다.

그리고 강사님들의 강의시간이 기다려지고 저에게 필요한 말씀들을 전해주시고 알지 못하던 것들을 깨닫게 해주셔서 매시간이 은혜의 시간이 되었습니다.

특별히 권이현 교수님과 김재희 교수님의 강의를 통해서 가족을 더 사랑하고 위로하며 격려하게 되었습니다.

MUT 훈련 가운데 소풍을 가면서 고국의 아름다운 가을의 곱디고운 형형색색의 단풍에 매료되어 저절로 아버지께 감사하며 찬양을 올려드리며 힐링의 시간이 되었습니다. 함께한 선교사님들과의 추억도 만들고 카메라 속에 추억을 담아 가져갑니다.

우리가 이렇게 행복하고 즐거운 시간을 보낼 수 있었던 것은 하나님의 은혜와 보이지 않는 사랑의 섬김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또한 세심하게 섬기시는 세계선교 훈련원의 모든 스텝분들에게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 박원규/정명순 (몽골)

먼저 이 훈련을 받게 되어 주님과 훈련원과 함께 훈련받은 선교사님들께 감사드립니다. 솔직히 나는 이런 훈련에 대한 필요성을 느끼지 못하고 있었다. 그러나 개회예배부터 마음에 감동이 밀려왔다. “만일 네가 보행자와 함께 달려도 피곤하면 어찌 능히 말과 경주하겠느냐? 네가 평안한 땅에서는 무사하려니와 요단 강물이 넘칠 때에는 어찌하겠느냐?”(렘12:5) 이 말씀을 듣는 순간 내 미래 사역을 예비하시는 주님을 볼 수 있었고, “미래 사역을 더 잘 준비하라”는 말씀으로 들렸다. 이어서 디브리핑을 들으면서 대부분의 선교사님들의 무르익은 사역 얘기를 들을 수 있었다. 이에 비해 내 사역은 아직 설 익은 열매일 뿐이라는 것을 알게 하셨다.

이 훈련은 과거 돌아보기와 현재 살피기, 미래를 디자인하는 과정으로 구성되어 있다. 특히 여러 가지 심리검사를 진행하고 상담하는 과정은 나 자신, 부부와 가족, 사역을 진지하게 되돌아보는 시간이 되었다. 부부와 가족의 발달과정에 대한 이해가 부족함으로써 미숙한 부부 관계와 원만하지 못한 가족 관계를 만들어 냈다는 것을 이해하게 되었다. 하루 하루의 강의가 너무 소중했다. 코로나 이후의 선교의 변화, 나의 타임라인과 버킷리스트 작성, 선교사의 영성, 연구과제 준비와 발표, 동영상 편집, 갈등과 문제해결 등을 매우 유익한 강의와 실습을 접할 수 있었다. 이런 훈련이라면 더 길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었다.

이 훈련의 장점 중의 하나는 부부 합숙 훈련일 것이다. 대부분의 선교사님들이 선교지에서 들어와서 부부만의 휴식과 여유를 즐길 수 있었다. 더구나 학교 주변의 빼어난 경관, 주변 산책로, 함께 훈련받는 선교사들과의 교제, 풍성한 식사와 간식, 중보기도팀의 기도 등 기쁨과 감사와 감동의 시간이 되었다. 강의의 전문성, 휴식과 충전, 교제 등 세계 최고의 선교사 Up Grade 훈련이었다. 이런 감동을 선물로 주신 주님과 훈련원, 후원해주신 교회들에게 감사드립니다.

● 전기쁨/나행복 (몽골)

한국에서 10년만에 가을을 정겨운 WMTC에서 보내게 되어 행복하고 감사하다. 예배시간에 갈수록 더하여지는 은혜는 가을단풍보다 아름답다. 조용하면서 깊이있는

선교사님들의 기도소리는 곡조없는 합창같고, 약간 느리게 부르는 찬양은 넉넉해진 사랑을 담은 마음같고, 선교사에게 꼭 필요한 말씀을 먹여 영혼을 배부르게 하는 설교시간은 피곤하여 지친 몸과 마음에 생기로 채운다.

‘선교사는 하나님의 선교전략이다’ 라는 말을 반복해 듣는 동안 나 자신이 그런 존재라는 것에 대한 감사와, 더 순종함으로 살았더라면 하나님께서 마음껏 쓰셨을텐데 하는 회개하는 마음에 눈물이 나왔다. 특별히 심리 상담을 통해 저희 부부의 삶에 동일한 문제로 갈등하며 힘들었던 부분에 변화와 성숙이 시작되는 것을 보면서 기쁘고 행복하다. MUT-Senior 화이팅! 감사합니다. 아버지~

이어지는 여러 강의를 통해 나 자신과 우리 부부의 삶과 사역을 돌아보며, 아~ 좀더 일찍 3-4년전에 이 강의를 들었어야 했는데... 하는 아쉬움과 함께 늦은감은 있지만 현지 사역을 마무리하는 시점에서 꼭 필요한 것들을 더 배우기 위해 열심을 내어본다.

● 안지오/송순화 (네팔)

2020~21년도 MUT 훈련에 참여를 신청하였으나 코로나19로 하늘길이 막혀 참여할 수 없어 포기하고 올해는 현장 사역으로 내년으로 미루었던 훈련이 땡기 열로 인해 한국에 치료차 나와 참여하게 되었습니다.

온전한 회복이 되지 않은 상태로 참여하기에 육신과 마음의 부담감이 있었으나 하나님의 계획하심에 순종하는 마음으로 참여했습니다.

10년 전 WMTC에서 선교사 훈련을 받으며 중국에서의 부담감을 떨쳐 버리고 새롭게 시작한 경험이 있어서 이번에도 교육 후 달라질 저희의 모습에 많은 기대로 참여했습니다. 그러나 연약해진 몸으로 책상에 앉아 훈련을 받기에 어려움이 있지만 부원장님을 비롯하여 실장님과 간사님들의 도움으로 훈련에 임하였고 동료 선교사님들의 기도와 격려로 훈련을 잘 마무리 할 수 있도록 인도해주셔서 저희 부부는 이후 사역에 큰 힘이 되고 새롭게 전개될 하나님의 일하심을 기대합니다.

선교지에서의 어려운 고난들이 있지만 이것이 고난이 아니요 행복이며 사명자의 삶은 가치와 의미를 부여하고 뜻을 정하고 달려가고 있음에 서로에게 큰 위로와 도전이 되었으며 서로를 알아가는 디브리핑 시간은 한 분 한 분 선교현장에서 하나님께 귀하고 아름답게 쓰임 받고 계심을 목도하며 뜨거운 열정에 도전이 되었습니다.



또한 교수님들의 알곡 같은 말씀을 통해 사역지에서 잘 접목하고 하나님 나라 확장하는 일에 충성하는 일꾼이 되길 다짐해봅니다.

서로를 위하여 친구가 되고 중보자가 되어 사명자로 승리하기를 기도합니다.

어려운 가운데 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인도해주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 양재학/이종분 (불가리아)

훈련을 받기 전에는 선교지에서 열심히 일하는 선교사를 괜히 선교지에서 불러내어 사역을 중단하도록 하는 부정적인 면을 생각하곤 했던 것이 사실이지만, 막상 훈련이 시작되면서부터는 이 훈련이 앞으로의 사역과 삶을 새롭게 하는 역할을 할 것이라는 기대가 점점 더 커지게 되었다.

개회예배를 드리는 중에 주님과 동행하는 기쁨을 노래하면서 감사와 감격의 눈물을 흘리게 되었고, FMB 이사장이신 김중식 목사님의 설교를 통하여 우리의 영성이 다른 어떤 요소보다 더 중요한 영향을 우리의 선교사역에 미친다는 사실을 들으면서 공감하게 되어 또 한번 영성훈련에 끊임없는 노력을 해야겠다는 결심을 하게 되었다.

디브리핑 시간을 통해서 자신의 삶과 사역을 간략하게 소개하는 동료 선교사님들 모두가 자신의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는 모습을 보고 들으면서 새로운 도전과 각오를 갖게 되었고, 그들에 대한 자랑스러움과 뿌듯한 마음을 뿌리칠 수 없었다.

또한 오랜만에 강사님들의 강의를 듣고 서로 나누면서 전에는 미처 생각지 못하고 사역에 몰두했던 부분들을 발견하게 되어 선교사역에 대한 이해의 폭을 넓혀가는 복된 시간이 되고 있는 느낌을 받곤 한다. 왜냐하면, 그렇게 선교에 대한 생각의 폭을 넓혀갈수록 선교사역이 더욱 더 자연스럽게 온전하게 이루어지리라는 기대를 갖게 되기 때문이다.

특히, 부부관계에 대한 심리테스트와 강의는 나에게 꼭 필요했던 것으로 생각된다. 나 자신은 아내를 배려한다고 하는 말과 행동이 실제로는 아내에게 도움이 되기보다는 마음의 상처만을 입히는 경우가 종종 있음을 깨닫게 되어, 그러한 실수와 허물을 점차로 고쳐나갈 수 있는 계기가 되었기 때문이다. 그리고, 순수한 마음으로 선교사들을 돕기 위해 이 훈련과정을 만들어 최선을 다해 섬기시는 부원장님 부부를 비롯한 모든 간사님들의 수고에 깊이 감사드리며 그 섬김에 대해서 온 우주의 통치자이시며 온 교회의 주인이신 전능하신 주님께서 놀라운 하늘과 땅의 복으로 갚아주시길 소망한다.

● 박철수/최정순 (인도네시아)

고풍스러운 붉은 벽돌과 빨갛게 물들어가는 담쟁이 잎파리가 오랜만에 침신대 캠퍼스에 발길을 옮기는 저희 부부에게 참 정겹게 느껴졌습니다. 때 맞추어 가을 단풍에 교정과 주변이 어느 화폭처럼 채색되어 있어 한동안 만날 수 없던 가을을 마음에 다시 담기에 더없이 좋은 날이었습니다.

처음에 MUT Senior 훈련을 받아야 한다는 이야기를 들었을 때는, 그것도 4주간 합숙하며 훈련이 진행된다는 내용을 들었을 때는, 사실 왜 이런 불편한 과정을 만들어서 오랫동안 선교지에서 수고하고 애쓴 Senior 선교사들을 어렵게 하는지 모르겠다는 불편한 마음도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것은 채 하루가 지나기도 전에 기우였다는 사실을 알았습니다.

함께 참석한 동료 선교사님들의 개인적인 삶의 배경들과, 지독히도 어려운 그런 상황 속에서도 주님에 대한 식지않는 헌신과 열정으로 좋은 열매들을 맺어가고 있음을 나누는 디브리핑 시간은 큰 도전과 은혜의 시간이었습니다. 서로 나누는 간증과 사역의 모습들이 우리 모두에게 서로 격려가 되고 위로가 되는 귀한 시간이었습니다. 다른 곳에서는 나눌 수 없었던, 그 현장에 있었던 우리들만이 공감하고 이해할 수 있는 그런 나눔이었습니다. 그것만으로도 나에게서는 충분히 의미있는 시간이었습니다.

어느 곳, 누구와도 쉽게 나눌 수 없던 선교지 선교사 부부의 문제들을 돌아볼 수 있었고, 그 외에도 우리 모두가 다 조금씩은 고민하며 어려워하고 있는 은퇴 후의 사역, 파송 교회와의 관계, 실제 변화하고 있는 미래 선교와 우리 교단 선교에 대한 고민과 나눔 등, 다른 곳에서는 나눌 수 없는 이야기들을 이 MUT Senior 훈련을 통해 나누고 공감할 수 있었음에 큰 감동이 있었습니다. 이병문 부원장님과 차실장님, 그리고 두 분 간사님들의 사랑과 섬김도 빼놓을 수 없는 큰 감동이었습니다.

이번 훈련을 통해, 앞으로 남은 선교지 사역에서 더 신실하게 바르게 사역해야겠다는 도전과 다짐을 하게된 것도 큰 은혜였지만, 개인적으로 가장 큰 도전을 받은 것은, 마무리가 좋은 지도자가 되는 것입니다. 사역이 마쳐지는 그 날까지, 더 나아가 삶의 마지막 순간까지 하나님과 생동감있는 관계를 유지하고 그리스도를 닮은 인격으로 모든 이들에게 선한 영향력을 끼치는 종이 되려합니다. 귀하고 아름다운 기회를 주신 주님께 감사와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함께 훈련에 동참한 귀한 선교사님들을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그리고 모든 분들께 감사를 드립니다. 살롬.

● 김항목/서루디아 (카자흐스탄)

본부의 배려로 남편과 함께 같은 장소에서 참석하는 두 번째 훈련입니다. 처음 SYIS KOR 워크숍에서 목사님, 선교사님과의 세미나에 참석했던 평신도인 남편은 처음엔 머뭇거렸지만 그때 기대 이상의 좋은 만남을 갖게 되었기에 이번에는 즐거운 마음으로 참석하게 되었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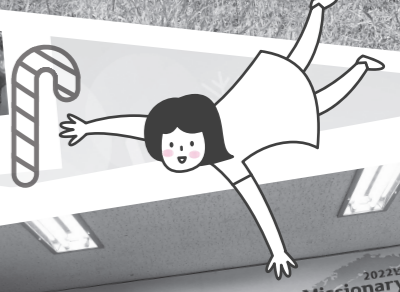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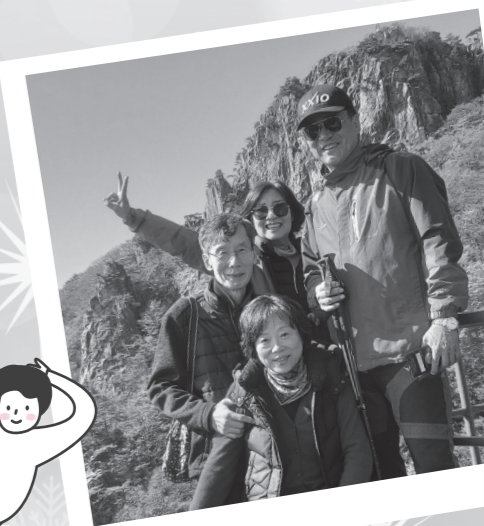
1등으로 숙소에 도착한 우리는 깨끗이 정리되고, 기본적인 것이 준비되고 심지어 부원장님 사모님이 손수 담구어 가정마다 공급하신 김치와, 중보기도 하시는 분이 총각김치와 겨울 옷을 보내심에, 겨울채비를 못한 선교사님들을 배려한 마음을 보며, 사랑으로 중보 하심에 신뢰와 시니어를 환영하는 따뜻한 마음을 느꼈습니다.

첫 주의 디브리핑은 익히 잘 알고 있는 선교사님들과 전혀 성함조차 모르던 다른 지역의 선교사님 열 가정의 이야기를 듣는 것으로 훈련의 첫 포문을 열었는데, 우리 모두의 마음에 감동과 사랑 그리고 보화를 발견하는 시간이 되었습니다. “이름 없이 빛도 없이 감사하며 섬기리다!”의 현장중계가 바로 이 자리가 아닌가 싶었습니다. 남편 역시 헌신된 분들의 삶을 들으며 경이로움으로 새로운 세상을 경험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시작된 첫 강의인 “최신 선교동향선교”를 통해 기독교 구심점의 이동, 선교 신학적 변화를 들으며 학자의 눈과 이론의 중요성을 더욱 실감하는 시간이었습니다. 누군가는 현장에서, 누군가는 연구로 우리 기독교가 건강하게 발전하는 것에 감사했고 정리된 선교이론을 배우는 즐거움을 맛 보았습니다. 이어지는 강의 하나하나 역시 지난 시간을 돌아보며 미래를 설계하도록 돕는 시간이었으며, 큐티 시간도 잃어버린 방법을 기억케 하여 적용보다는 말씀 연구에 집중케 하는 신선함을 경험하고 있습니다.

가을 여행으로 대둔산을 함께 산행하면서 사진으로 본 그 빨간 사다리는 일찍이 포기했었지만 아픈 다리를 쉬어 가면서도 그 사다리에 먼저 오르는 선교사님을 보며 저 역시 뒤 따라가게 되었습니다. 모든 곳에서 배움을 주시는 주님과 동료 선교사님 그리고 섬기시는 훈련원의 모든 분들께 감사드립니다. 시니어 MUT를 통해 우리를 업그레이드 시키시는 주님을 찬양합니다.

사진으로 보는 MUT-senior



2023년 상반기 기관별 사역 일정

침례교 해외선교회(FMB)

- 1월 - APBF Mission Committee's Meeting
- 2월 - 인턴선교사 훈련
- 3월 - FMB 정기이사회
- 6월 - 장단기 선교사 시취

선교전략연구개발원(SRDC)

1. 1월 31일까지 다음 연구 수행

- 1) 연보고서 형식과 내용 수정(담당자 : 황권상)
- 2) MB의 현 상황에 적합한 현장 사역 구조(담당자 : 문승호)
- 3) 합리적인 재정 정책(담당자 : 임태순)
- 4) FMB 사역자들과 현지 침례교 교단들의 관계와 협력 방안(담당자 : 문승호)
- 5) 해외선교회 신앙 고백문 작성(담당자 : 광이범)

2. 제4차 SDRDC 전략회의

- 1) 기간 : 9월 25일(월) - 9월 28일(목)
- 2) 장소 : 미정

세계선교훈련원(WMTC)

2023년 상반기에는 33기 장단기 선교사훈련, 선교사 업그레이드 훈련이 각각 진행됩니다. 장단기 선교사훈련은 선교사 후보생들이 인성, 타문화이해, 사역 기술 등의 훈련을 통해 사역과 삶에 균형을 갖춘 건강한 선교사가 되도록 훈련하는 과정이며, 선교사 업그레이드 훈련은 현장 선교사들이 지난 사역을 점검하고 급변하는 국제 사회 환경과 선교 환경에 대응하여 지속 가능한 선교를 할 수 있도록 돕는 과정입니다.

■ 32기 장단기 선교사훈련(신입선교사 훈련, Missionary Pre-field training)

- 훈련기간 : 2023년 3월 ~ 5월(12주)
- 훈련대상 : FMB 소속 장단기 선교사 후보생, 타 단체 소속 장단기 선교사 후보생
- 훈련내용 : 공동생활, 영성과 인성, 전문상담, 타문화 이해, 선교학, 사역기술, 선교실제 등

■ 선교사 업그레이드 훈련(Missionary Up-grade Training)

	MUT-Professional	MUT-Senior
훈련기간	2023년 7월 ~ 8월(5주간)	2023년 10월 ~ 11월(4주간)
훈련대상	만 6년 ~ 12년 차 현직 FMB 선교사	55 ~ 65세 미만 현직 FMB 선교사
훈련내용	공동생활, 디브리핑, 전문상담, 사역점검, 전문 강의 등	

■ 인투미션 선교 교육(in2mission)

	인투미션 선교위원 과정	인투미션 웨비나	교회 방문 인투미션
개요	선교위원 및 교회 내 선교 헌신자들을 위한 '선교 실무교육'	온라인으로 진행되는 기초 선교 이론 교육	지역교회를 방문하여 선교에 대한 이해를 돕는 선교 교육 프로그램
기간	2월 7일 ~ 3월 21일 (매주 화요일, 7주)	4월 11일 ~ 5월 30일 (매주 화요일, 8주)	8 ~ 10주, 대면 방식, 기간은 교회와 협의 후 결정
대상	교회 선교위원, 교회 내 선교 헌신자, 사역자 등	지역교회 성도, 신학생, 선교 관심자 및 헌신자, 사역자 등	지역교회 성도, 사역자 등
진행	강의 + 소그룹 활동	온라인 강의 + 과제물 (강의 연구문제, 보고서)	대면 강의 + 과제물

■ 문의 : 침례교 해외선교회(02-2619-2202), 세계선교훈련원(042-828-3371)



in2mission

인투미션 선교학교

1. 인투미션 선교학교란?

인투미션(in2mission)은 지역교회를 대상으로 하는 '선교 학교'입니다. 각 교회가 선교를 분명하고 체계적으로 이해하여 선교의 방향을 설정하고, 실제적으로 선교에 참여할 수 있도록 선교 아이디어를 제공하는 프로그램입니다. 전/현직 선교사 및 각계의 선교 전문가들의 다양한 강의를 통해 선교이론을 배우고, 생동감 넘치는 선교 현장에 관한 이야기를 함께 나눔으로써, 헌신된 선교 일꾼들을 일으키는 것을 목적으로 합니다.

♣ in2mission의 단어적 의미 지역교회와 평신도들이 선교(mission)에 투입(into)되도록 동원하는 선교학교로서, '선교에 빠지다. 선교에 잠기다. 선교 속으로' 등의 뜻을 지니고 있다. 숫자 '2'는 지역교회와 선교라는 두 개념을 의미하며, 인투미션 선교학교가 이 둘을 연결하는 고리 역할을 한다는 의미이다.

2. 인투미션 진행안내

- 인투미션 : 지역교회를 방문하여 선교에 대한 기초적인 이해를 돕는 기초 선교 교육
 - 기간 : 8~10주(대면 방식, 기간은 교회와 협의 후 결정)
 - 대상 : 지역교회 성도, 사역자 등
 - 진행 : 온라인 강의 + 과제물(독서 보고서 등)
- 인투미션 웨비나 : 온라인으로 진행되는 기초 선교 이론 교육
 - 기간 : 매주 화요일, 8주
 - 대상 : 지역교회 성도, 신학생, 선교 관심자 및 헌신자, 사역자 등
 - 진행 : 온라인 강의 + 과제물(강의 연구문제, 보고서)
- 인투미션 웨비나 선교학 개론 : 보다 구체적이고 전문적인 선교 이론교육(온라인)
 - 기간 : 매주 화요일, 12주
 - 대상 : 지역교회 성도, 신학생, 선교 관심자 및 헌신자, 사역자 등
 - 진행 : 이현모 교수 전담 강의 + 강의 소감문
- 인투미션 선교위원 과정 : 선교위원 및 교회 내 선교 헌신자들을 위한 '선교 실무교육'
 - 기간 : 매주 화요일, 7주(대면, 또는 실시간 비대면 방식)
 - 대상 : 교회 선교위원, 교회 내 선교 헌신자, 사역자 등
 - 진행 : 강의 + 소그룹 활동

3. 수료 혜택

- 침례교 해외선교회(FMB)와 세계선교훈련원(WMTC) 공식 수료증 발부
 - 침례교 해외선교회 "인턴선교사" 자격 부여(6개월 ~ 1년)
 - 침례교 해외선교회 장단기 선교사 시취 시 1순위로 허입
- 문의 : 세계선교훈련원(WMTC) Tel. 042-828-3371

